

## VII. 제2차 동학농민전쟁

1. 동학농민군의 재기
2. 반일투쟁의 전개
3. 동학농민전쟁의 역사적 의의

## VII. 제2차 동학농민전쟁

### 1. 동학농민군의 재기

동학농민군은 9월 중순에 들어와 다시 무장 봉기를 결정하였다.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에서 물러난 후 3~4개월 동안 정국은 급변하였다. 동학 조직에는 많은 사람들이 합류해 왔고, 지방관아의 농민 통제력은 급속히 약화되었다. 동학농민군이 장악한 지역에는 民政기관인 집강소가 설치되어 농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폐정을 개혁하는 전례없는 일들이 벌어졌다. 조선 국토 안에서 벌어진 청일 간의 전투로 인해 경기도·충청도·평안도 지역의 백성들이 전쟁의 참화 속에서 고통을 받았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일본군이 경북궁을 습격한 사건이었다. 그리고 개화파 정권이 들어서서 일련의 개혁조치를 시행한 사실도 그때 그때 전국에 알려져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그러한 속에서 동학농민군이 재봉기를 결정한 것이었다. 이 재봉기는 지역 면에서 볼 때 1차봉기와 크게 차이가 났다. 제1차 봉기는 전라도와 충청도의 일부 군현에서 시작되었지만 재봉기는 전라도와 충청도에서 일시에 켜기 시작한 것은 물론 경상도·경기도·강원도·황해도의 많은 군현에서도 봉기하였다. 동학교단은 1차봉기를 승인하지 않았지만 재봉기에는 교주 崔時亨이 起包수를 내려 전국의 조직을 참여시켰다.

전국에 걸친 대규모의 재봉기가 이처럼 가능했던 것은 우선 斥倭라는 명분이 뚜렷했기 때문이었다. 동학과 사회여론은 斥倭의 명분 아래 일치하였다. 민간에는 壬亂 이후 남아있는 적개심 위에 다시 국왕을 위해한 경북궁 습격사건으로 반일감정이 격화되었고, 일본의 再侵 우려가 고조된 속에서 성립된 민족종교인 동학이 조직과 이념을 제공하면서 對日戰爭에 앞장섰던 것이다.

## 1) 남접농민군의 재기

전라도의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에서 물러난 직후 조선을 둘러싼 국제정세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청일 양국 군대가 국내에 파병되었고, 이들 군대들이 조선 영토 안에서 전쟁을 벌인 것이다. 국내에 들어온 강대한 외국 군대를 막아낼 힘이 없는 조선정부는 위기에 봉착하였다. 이러한 위기는 침략 기회를 노리던 일본의 야욕에서 비롯되었지만 동학농민군의 봉기에 당황하던 당시의 집권층에게도 일부의 책임이 있었다.

강화병을 이끌고 전라도로 내려간 초토사 洪啓薰은 관군 정예병조차 농민군을 진압하기가 어려운 것을 알게 되자 정부에 淸軍의 借兵을 요청하였다. 이 요청을 받은 민씨정권은 반대론에도 불구하고 全州城이 함락되는 급박한 시기에 淸兵 차병을 결정하였다. 淸의 실권자인 北洋大臣 李鴻章은 조선에 영향력을 강화할 기회가 온 것으로 생각하고 군함 두 척과 陸兵 1,500명을 파병하였다. 청병이 6월 10일 충청도 아산에 상륙하자 지역민들은 전란을 예상하고 동요하였다. 외국군대의 진주 소식을 들은 농민군은 관군의 강화요구에 응해서 정부와 타협을 하고 전주성에서 철수하였다. 조선 정부는 농민군과 화의가 성립되어 정국이 안정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청병의 철수를 요구하였지만 청은 이를 듣지 않았다. 오히려 증원군을 아산에 상륙시켜서 영향력을 증대시키려고 시도하였다.<sup>1)</sup>

이 같은 조선의 사정에 즉각 반응한 것은 일본이었다. 일본은 조선에서 철명한 뒤 청과의 一戰을 각오하고 군비확충을 서둘렀다. 그리고 농민군이 봉기하고 조선 내부가 소란한 시기에 정탐원을 파견해서 그 같은 사정을 염탐하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래서 일본은 天津條約에 따라 청이 파병 사실을 통고해 오기 이전부터 군사개입을 결정하고 대규모 병력을 파견하였다.

일본 군함 3척이 인천에 도착한 것은 6월 10일이었다. 일본은 조선 정부의 항의도 개의하지 않고 병력을 서울로 진주시키면서 잇달아 인천에 증원

1) 韓沽劄, 《東學과 農民蜂起》(일조각, 1983), 134쪽.

병력을 파병하였다. 일본은 서울에 주재하던 러시아와 독일 등 외교관들의 출병 이유를 해명하라는 요청도 무시하였다.

동학농민군이 해산해서 집강소를 설치하던 시기에 청일 양국 군대는 충청도 아산과 인천에 머물러 있으면서 대치상태에 들어갔다. 청은 일본에 공동 출병을 제의하였지만 일본은 청일 양국이 조선의 내정을 같이 개혁하자고 역제외하면서 노골적인 간섭 의사를 나타냈다. 그런 한편으로 조선 정부에 내정 개혁방안 강령 세목을 제시하고 개혁을 강요하였다. 일본 정부는 오토 리공사에게 군사력으로 왕궁과 서울을 포위하고 조선 정부에게 강제 수단을 쓰라고 지시하였다.<sup>2)</sup>

6월 21일(양력 7월 23일) 오전 일본군이 돌연 경북궁을 습격하여 점거하였다. 동시에 京軍 병영에 침입해서 조선 관군의 무장을 해제하였다. 외국군대의 기습에 의해 전례없는 변란이 일어난 것이었다. 경북궁 안에 들어온 일본군은 경회루 부근에 주둔하면서 국왕과 관료들을 위협하여 그들의 뜻에 따르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대원군이 왕명으로 입궐해서 중대한 政務와 軍務를 裁決하였고, 6월 25일 軍國機務處를 설치하여 중앙관제와 사회제도 개혁안을 의결 공포하였다. 전근대 조선의 법제를 개혁하는 甲午更張은 이와 같이 일본군의 궁궐 장악 하에 시작되었다.

6월 23일 청일 양국 군함이 해전을 벌임으로써 청일전쟁이 발발하였다. 일본 군함이 아산 앞바다에서 청의 군함 두 척을 포격전 끝에 침몰시킨 것이다. 27일에는 청일 양국군이 성환에서 충돌하고, 평택과 아산으로 전투가 이어졌다. 조선 정부는 일본의 강요에 따라 朝日攻守同盟을 체결했던 까닭에 일본군을 지원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일본은 대규모 군대를 동래에 상륙시켜서 육로를 통해 북상하고 있었고, 독단으로 경인과 경부간 군용전선공사를 벌였다. 일본군의 선제 공격을 막지 못하고 평택과 아산에서 패배한 청국군은 공주와 청주를 거쳐 평양까지 후퇴하였다. 8월 17일 평양에서 일대 회전을 벌였으나 청군이 대패하였다.

백성들은 경악하였다. 일본군의 경북궁 침범 소식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위

2) 陸奥宗光, 《蹇蹇錄》, 6章.

기감을 갖게 하였다. 이와 함께 국토가 외국군대의 전장터로 변한 소문이 전국에 전파되었다. 조선왕조에서는 외국의 침략을 받으면 유생들이 명분을 내세우고 의병을 일으켜서 침략군과 맞서 싸우는 것이 전통이었다. 삼남의 양반가는 壬亂 당시 의병에 참여한 선대를 가문의 자랑으로 삼는 경우가 많았다. 丙寅洋擾를 맞이해서는 召募使가 임명되어 전국에 걸친 동원체제가 강구되기도 하였다. 1894년 여름 국왕이 외국군대에게 볼모와 같이 억매여 자유롭지 못하게 된 사건은 丙子胡亂 이래 최대의 國亂이었다. 따라서 國定敎學인 유학을 배우고 익힌 유생들은 당연히 舉義蜂起해야만 하였다.

그러나 향촌사회의 양반 유생들은 1894년 여름에 영향력을 갖지 못했다. 이들의 힘은 관아의 비호 위에 양반으로서 상천민에게 존경을 받을 때 나오는 것이었고, 지주로서 농민들을 지배할 때 유지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신분차별을 용납하지 않고 경제관행을 인정하지 않는 동학농민군이 대두함으로써 이 모든 힘의 원천은 상실되었다. 반면에 양반 유생들이 세거해 온 전라도·충청도·경상도·강원도·경기도의 향촌사회는 점차 동학농민군의 세상이 되어 갔다.

전라도 각 군현은 전주에서 해산한 동학농민군이 돌아와 읍내를 장악해서 집강소를 설치하였다. 따라서 전라도의 유생들은 의병을 일으키기 위해 힘을 결집할 수 없었다. 그런 양상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른 지역도 같았다. 충청도에서도 동학 조직이 크게 세력을 증대시켜서 관아가 통제할 수 없었다. 경상도와 강원도 그리고 경기도의 많은 군현도 여름이 되면서 동학에 들어가는 농민들이 늘어났다. 거의 전국에서 양반들은 동학도들에게 압도되어 기를 펴지 못하는 상태였다.

청군을 물리친 일본은 조선정부에 대한 내정간섭을 강화하였다. 갑오경장의 급격한 개혁은 관료들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일본의 보호 속에 성립된 새 정권은 대원군과 개화파 인사로 구성되었다. 대원군은 민씨 일파를 배제하기 위해 옹립했지만, 軍國機務處를 다수결 방식의 의결기구로 운영해서 국정에는 간여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러나 주요한 개혁은 일본공사 大鳥圭介의 지시대로 따르지 않으면 안되었다. 급격한 개혁에 따른 반발과 함께 일본의 내정 간섭에 대한 반감은 널리 확산되어 갔다. 전라도 구례

의 유생 梅泉 黃玳은 일본공사의 標信이 없으면 百官이라도 대궐 출입을 하지 못하게 했다면서 제도개혁과 고위관직이 교체된 사실을 날날이 기록하였다.<sup>3)</sup> 서울 소식은 지방관에게도 큰 관심사였다.<sup>4)</sup>

1894년 여름에 유생들을 대신해서 일본과의 전쟁을 준비했던 세력은 동학 농민군이었다. 본래 동학은 외세 배격을 주요 교리로 내세우고 있었고, 일본에게는 강화도조약 이전부터 재침 의도를 우려하면서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아 왔다. 일본군이 서울에 난입하고 경복궁을 침범했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각지의 동학 조직은 즉각 반응하였다. 일본군을 쫓아내기 위한 전쟁 준비에 나선 것이다.

동학농민군의 對日戰爭 준비는 지휘계통에 따라 체계있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각 지역의 동학 조직이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동학 교단에서 고위지도자들이 합의하거나 남접농민군 지도자들이 미리 결정을 하고 추진했던 것도 아니었다. 재봉기는 동학농민군의 하부 조직에서 스스로 시작한 무장강화 활동이 발단이었던 것으로 드러난다.<sup>5)</sup> 남접농민군이거나 교단의 영향이 미치던 조직이거나 같은 시기에 준비를 시작하였다.

일본과 전쟁을 하려면 철저히 대비해야 했다. 일본군은 京軍을 기습해서 일거에 무장해제를 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무력을 가지고 있는 군대였다. 淸軍도 일방적으로 이겼을 정도의 막강한 일본군을 대적하려면, 관군과 싸웠던 것처럼 사전 대비없이 시작할 수는 없었다.

동학농민군의 전쟁 준비는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軍勢를 키우는 것이었다. 군세를 키우려면 동학에 사람들을 많이 입도시켜야 했다. 전국의 동학 조직에서는 입도자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농민들이 이에 적극 호응하여 대거 들어 왔다. 양반들도 참여해 왔지만 신분면에서 볼 때 농민군의 대부분은 상천민이었다. 입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압박을 가하였다. 양반들에게도 예외가 없었다. 입도한 사람은 道人이라고 하면서 서로 도왔고, 입도하지 않은 사람은 俗人이라고 부르며 공세를 취했다. 양반들은 얼

3) 《梧下記聞》，2권 6월(《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1)，129~150쪽.

4) 《固城叢瑣錄》(필사본).

5) 愼鋪廈, 《東學과 甲午農民戰爭研究》(일조각, 1993), 295~296쪽.

굴을 아는 동학도들을 만날 것이 두려워 전진공궁하였다. 반면에 동학교도들의 활동은 농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다음은 軍需錢과 軍需米를 모으고 武器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包接 단위로 수천 명 또는 수만 명의 군사력을 유지하려면 막대한 돈과 곡식을 마련해야 했지만 가난한 농민들이 이를 제공해 줄 수는 없었다. 동학농민군은 부농과 지주가를 찾아 다니면서 돈과 곡식을 헌납받았다. 각 지역의 동학 조직은 대접주 관할의 包나 수 개의 包가 연합한 都會가 중심이 되어 전쟁 준비를 하였다. 따라서 수십 명씩 떼를 이룬 작은 집단들이 읍내와 마을을 다니며 여러 차례 錢穀을 거두었기 때문에 부농들은 거둬지는 요구에 불만을 갖게 되었다. 양반지주들은 많은 재물을 헌납하도록 강요받는 동시에 집중되는 탈취에 시달린 까닭에 피신지를 찾아 숨는 사람이 늘어났다. 양반과 향리, 그리고 지주와 부농들은 동학농민군들의 활동에 반감을 갖게 되었다.

향촌사회 내의 이러한 사정은 여름과 가을에 걸쳐서 계속되었다. 동학농민군의 세력은 갈수록 커졌다. 전라도에서는 나주와 운봉만 동학농민군이 읍내를 점거하지 못했지만 다른 군현은 읍내까지 장악한 집강소체제가 대일전쟁을 준비하였다. 충청도의 군현들은 읍내를 제외한 지역이 동학농민군 세상으로 바뀌었다. 경상도는 전라도와 충청도에 이웃한 군현들이 같은 상태로 되었다. 충청도와 경상도의 일부 군현에서도 향촌사회의 질서를 집강이 통제하였다. 경기도 남부 군현과 강원도의 여러 군현에서도 동학 조직은 양반세력을 능가하는 힘을 지니게 되었다.

武器의 확보는 매우 어려웠다. 민간에서 보유한 칼과 창, 그리고 활 등을 수집한다고 해도 그 수량은 많을 수 없었다. 총은 관군이 무장한 것처럼 사정거리가 긴 신식소총은 구하지 못하고 얼마간의 火繩銃을 갖추는 형편이었다. 각 지역마다 대장간에서 칼을 버려 지니기도 했지만 대개는 죽창을 만들어 무장하는 정도였다. 전라도에서 생산되는 대나무가 충청도와 경상도에 운반되어 죽창 재료로 이용되었다. 먼거리에서 적을 공격할 수 있는 활과 화살의 마련에도 힘을 쏟았다. 화살은 제작이 가능한대로 많이 만들어서 보유하였다.

이처럼 전국 각지에서 동학농민군은 일본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재봉기는 더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제1차 봉기를 주도한 전봉준을 비롯해서 전라도의 주요 대접주가 합의하여 결정하는 방식을 취해야 가능한 문제였다. 남접농민군의 동원은 그러한 절차를 통해야 가능했기 때문이다. 또다른 방식은 제1차 봉기 때 남접의 무장활동에 동의하지 않았던 동학의 제2세 교주 최시형이 교단의 고위지도자들과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이다. 전쟁 준비는 전라도가 중심인 남접은 물론 충청도·경상도·강원도·경기도의 조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북접 교단조직도 마찬가지로 진행해 왔지만 최시형은 기포를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6월 말 이래 동학농민군 지도자들에게 봉기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시도가 외부에서 나오고 있었다. 하나는 흥선대원군이 밀사를 보내서 봉기를 촉구한 일이다.<sup>6)</sup> 대원군은 정치 일선에 다시 나와 국왕을 대신하여 국정을 재결했으나 군국기무처의 설치와 동시에 실권을 빼앗겼다. 그 뒤 대원군은 청일 간의 전쟁이 청군의 승리로 종결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평양에 주둔한 淸軍과 연락을 취하였다. 일본군이 조선에서 철병하고 친일개화파 정권도 무너질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한편으로 삼남지역에 밀사를 나누어 파견하면서 전봉준 등에게 편지를 보내 동학농민군이 봉기하여 호응해 오기를 요청하였다. 전봉준 등은 이에 즉각 따르지는 않았지만 정국이 변화하는 양상에 따라 재봉기는 언제나 시작될 가능성이 있었다. 대원군이 밀사를 각지에 파견해서 봉기를 유도하고 정변까지 계획한 일들은 일본 공사관의 탐지망에 걸려서 세밀한 부분까지 파악되고 있었다.<sup>7)</sup>

두 번째는 일본인들이 순창에 있던 전봉준을 찾아와서 봉기를 선동한 사실이다.<sup>8)</sup> 일본은 1차봉기가 일어났을 때부터 조선 내의 사태를 면밀히 주시하며 天祐挾의 浪人輩를 첩자로 보내서 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들 浪人輩들은

- 
- 6) 李相伯, 〈東學黨과 大院君〉(《歷史學報》17, 18합집, 1962).  
金洋植, 〈대원군 일파의 정변계획과 농민군과의 관계〉(《근대한국의 사회변동과 농민전쟁》, 신서원, 1996).
- 7) 《駐韓日本公使館記錄》5, 47~49쪽.
- 8) 韓祐勳, 〈東學軍에 대한 日人幫助說 檢討〉(《東方學志》8집, 1967).  
姜昌一, 〈天祐挾과 ‘朝鮮問題’〉(《史學雜誌》97卷 8號, 1988).  
韓相一, 〈동학과 일본우익 : 天祐挾과의 제휴에 관한 고찰〉(《갑오동학농민혁명 명의 爭點》, 집문당, 1994), 265~279쪽.

동학농민군을 지지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진봉준 등과 만나 도와 주겠다고 하면서 재봉기를 사주하였다. 이들은 조선 내부에서 혼란을 야기시켜 일본이 개입할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였다. 낭인배들의 부추김은 그리 관심을 끌지 못했다. 반일 주장을 갖고 있던 동학농민군 지도자들이 이들의 말에 미혹되었거나 이후의 사태 진전에 영향을 받은 흔적은 없다.

동학농민군 지도자 가운데 가장 먼저 재봉기의 움직임을 드러낸 사람이 김개남이었다. 김개남은 6월 25일 남원에 들어가서 전라도 동북부 군현들인 순창·용담·금산·장수 등지의 예하 조직을 독자 세력으로 관장하였다. 60여일 동안 결집한 세력은 무려 5~6만에서 7만 명이나 된다고 하였다. 8월 25일경 김개남이 재봉기를 선언하자 진봉준이 남원으로 가서 만류하였다.<sup>9)</sup> 그 요지는 “청일 간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군대가 앞으로 우리를 공격할 것이니 지금은 歸化에 의탁해서 여러 군현에 흩어져 있다가 사태가 변하는 것을 기다리자”는 것이었다. 全琫準은 동학농민군이 비록 수는 많으나 훈련이 되지 않아서 정예군과 싸우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같은 생각은 대접주 손화중도 같았다. 손화중도 농민군 조직의 내부 실상을 털어놓고 김개남의 봉기 주장에 반대하였다.<sup>10)</sup> 봄봉기가 시작된지 반년이 지나서 전라도 전역을 장악했다고 하나 “이름있는 士族이 따르지 않고 재산있는 사람이 따르지 않고 글 잘하는 선비가 따르지 않았으며”, 합류해 온 사람들은 “愚賤해서 禍를 즐기고 剽竊을 기뻐하는 무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방에 흩어져서 안전하게 지내는 편이 좋겠다는 것이었다.

김개남은 이러한 반대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의 주장으로 알려진 말은 “대중은 한 번 흩어지면 다시 모으기 어렵다”는 것 뿐이지만 정국을 파악하는 시각이 진봉준 등과 다르지 않았는가 한다. 8월 말은 각지에서 동학농민군이 이미 무장활동에 나서고 있던 시기였다. 전라도는 물론 충청도와 경상도 군현에서도 동학농민군의 활동은 활발하였다. 따라서 그러한 기세를 몰아서 재봉기에 나서자는 주장은 일면 타당성이 있는 것이었다.

당시 동학농민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지역도 나타나고 있었다. 경상도

9) 《梧下記聞》 2필.

10) 위와 같음.

예천에서는 읍내의 민보군이 동학농민군 11명을 埋殺한 사건을 둘러싸고 13명의 대접주들이 都會를 열어 읍내를 봉쇄하였다가 28일 저녁 읍내 공격을 시도하였다. 비록 민보군의 완강한 반격을 막아내지 못하고 동학농민군이 패배하였지만 이 사건은 南營兵을 순회시키고 일본군이 파견되는 등 경상도 북부 군현을 전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와 함께 동학농민군이 일본군과 충돌하는 사건도 일어났다. 일본군은 淸과 전쟁하기 위해 부산부터 서울까지 병참망을 구축하고 요지마다 병참기지를 두어 소수의 병력을 주둔시켰다. 경상도 북서부에는 해평·낙동·태봉·문경에 일본군 병참부를 설치하였는데, 태봉 인근의 山陽에서 동학농민군이 대규모로 聚會하고 일본군에 위협을 가했던 것이다. 그러자 태봉병참부에서 대위 1명과 사병 2명의 정탐조를 파견하였으나 발각되어 竹內大尉가 피살되기에 이르렀다.<sup>11)</sup> 이 사건은 1894년에 처음으로 동학농민군과 일본군이 맞부딪힌 사건으로서 그 즉시 일본군이 예천과 산양 일대의 동학농민군 근거지를 공격하는 빌미를 제공하였다.<sup>12)</sup> 이미 8월 말이 되면 북접농민군은 민보군과 일본군에 맞서 전투를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전봉준이 8월 말에 재봉기를 결정하지 않고 미룬 것은 여러 이유 때문이었다. 그가 직접 밝힌 내용은 다음 세 가지이다.<sup>13)</sup> 첫째, 수많은 사람들을 일시에 모두 집결시키기가 불가능하였다는 것이다. 전주성에서 나온 동학농민군들은 대개 출신지별로 각 군현에 흩어져서 활동하였고, 또 포접조직에 새로 합류한 사람들도 각기 근거지에서 활동하였다. 그래서 한 지역에 모두 집결시켜서 체계를 갖춘 군사조직으로 만든다는 작업은 군사지도자로서 본다면 불가능하다고 표현할 만큼 어려웠던 것이다. 더욱이 ‘수만명’ 규모로 모인다면 이들을 위한 군량미와 무기 확보도 역시 그에 못지 않게 어렵게 생각되었을 것이다.

11) 《駐韓日本公使館記錄》1, 116~117쪽.

12) 위의 책, 126~128쪽. 8월 29일 오전 일본군은 석문리를 기습해서 屋舍 11칸에 보관해 둔 화승총 103자루, 갈 천자루, 銅錢 9貫을 탈취해 갔다(《甲午斥邪錄》, 9월 1일자).

13) 《全珠準供草》, 五招問目. 問; 旣曰倡義 則聞宣卽行 何待十月고 供; 適有矣病 且許多人衆을 不能一時齊動 兼之新穀未登 自然至十月이외다.

다음은 새 곡식이 익기를 기다렸다는 말이다. 동학농민군은 말 그대로 농민들로 구성된 군대였다. 따라서 논밭에서 곡식이 익어가고 곧 추수를 해야 하는 때에 농민들에게 농촌을 떠나서 기포하라는 봉기령을 내리기는 쉽지 않았다. 더구나 갑오년은 조선 후기에 맞은 최대의 흉년이였다. 3년째 이어지는 가뭄 때문에 식량이 부족해서 고생을 한 농민들이 추수기를 앞두고 굶주리는 가족들을 남겨둔 채 전장터로 떠날 수는 없었다. 전봉준은 이러한 상황을 외면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는 전봉준 자신이 병이 있었다는 것이다. 사사로운 문제처럼 보이지만 이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군사조직은 철저한 上命下服의 위계질서가 있어야 기능을 발휘하는 조직이다. 동학농민군이 무장봉기를 하면 수많은 병력을 장악해서 전투에 임해야 할 최고 군사지도자는 무거운 책임이 뒤따르게 된다. 따라서 전국에서 봉기할 동학농민군의 최고 지도자로서 그 책임을 져야 할 전봉준이 병약한 상태에 있으면 大軍의 지휘에 지장이 초래될 것이기 때문에 봉기를 늦출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9월 초순 전봉준의 결단에 따라 마침내 남접농민군의 재봉기가 결정되었다. 8월 하순까지 기포에 반대했던 전봉준이 생각을 바꾼 큰 이유는 상황이 급변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김개남이 봉기를 강행하려고 한 사실이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sup>14)</sup> 김개남은 남접농민군 조직에 지도력을 행사하는 점에서 전봉준과 경쟁하는 위치에 있었던 지도자였다. 그가 전봉준과 손화중의 만류를 듣지 않고 봉기에 나선다면 누구도 막을 방도가 없었다. 따라서 일부만 기포하는 상황을 지켜보기 보다 전면 봉기를 결정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재봉기 움직임은 김개남 뿐만이 아니었다. 각지에서 전쟁 준비에 나선 동학교도들은 무장을 하고 다니면서 이미 재봉기한 것과 다름없이 활동하였다. 주한일본공사 大鳥圭介가 외무대신 金允植에게 보낸 書翰을 보면<sup>15)</sup> 일본군

14) 愼鏞廈, 위의 책, 298~300쪽.

15) 《駐韓日本公使館記錄》1, 132~133쪽. “금년 8월에서 9월로 접어드는 때로부터 경상 전라 충청 각도에서 東學黨이 再起하여 良民들에게 심한 害를 입혔고 財物을 약탈하고 있으며 …”.

도 9월 초가 되면 再起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이 서한의 요지는 8월 말과 9월 초에 이미 경상도·전라도·충청도에서 제1차 봉기 사태와 같은 사태가 되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일본군을 보내서 진압하겠다는 통고였다.

전봉준은 淸軍이든 日本軍이든 청일전쟁에서 승리하면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러 올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평양 大會戰에서 일본이 승리한 소식은 일본군이 곧 동학농민군을 공격하러 내려온다는 말과 다름없었다. 전봉준이 적절한 시기라고 확신을 했던 하지 않았던, 9월에 들어서서 대세의 흐름은 재봉기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다.

남접농민군의 대도소로 선정된 장소는 삼례였다. 삼례는 1892년 교조신원을 위한 동학집회가 열린 곳으로서 전주 북쪽의 넓은 벌판에 위치하였다. 전라도의 동학농민군이 북상하는 길목에 있는 要衝地이기도 하였다.<sup>16)</sup> 삼례역의 집결지에는 1차봉기 때부터 전봉준이 이끌던 4천 명의 정예 동학농민군이 다시 모여들었다. 남원의 김개남은 독자 행동을 하고 삼례 집결지에 오지 않았다.

## 2) 북접농민군의 기포

동학교단은 1894년 봄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않고 남접농민군이 무장봉기에 나선 것을 승인하지 않았다. 敎祖 崔濟愚가 정부의 탄압을 받아 처형된 이후 관헌의 추적을 받으면서 동학의 교세를 비약적으로 키워 온 제2세 교주 崔時亨은 兵亂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다. 이전에 이필제에게 이끌려서 교조신원을 표방한 兵亂에 휩쓸린 까닭에 동학조직이 거의 무너질 정도로 위기에 처했던 경험이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전라도와 충청도의 일부 동학조직을 책임진 접주들이 교주의 권위를 무시하고 독자 판단으로 무장봉기에 나선 일은 전례없는 사건이었다.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접주들은 교주 최시형과의 사이에 긴밀한 유대감을 갖고 있었다. 오랜 동안 관헌의 탄압 속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인맥은 동학의

16) <全珠準判決宣告書原本>(《東學關聯判決文集》, 정부기록보존소, 1994), 30쪽.

전국망을 유지하는 바탕이 되었다. 최시형을 정점으로 하는 동학 조직의 내부에서 교주와 대접주 그리고 접주를 연결하는 위계질서는 엄격하였다. 전봉준이 동학의 포접조직을 중심으로 농민군을 결성하고 무장봉기한 사실은 이 같은 질서를 크게 무너뜨린 사태였던 것이다.

최시형은 남접농민군의 봉기에 대하여, 敎祖伸冤을 둘러싼 논란이 있을 때와 같은 내용으로 반대 논리를 폈다. 그것은 때를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최시형은 백성들의 어려움을 건져내려고 해도 “아직 운이 열리지 않았고 또 때가 오지 않았다”고 표현하였다.<sup>17)</sup> 1890년대에 들어서서 동학에는 수많은 농민들이 입도해 왔고, 또 유능한 인물들도 들어와서 교세가 크게 증대되었다. 따라서 마음 급하게 행동하지 않고 시간을 기다리면 동학 조직이 전국에 걸쳐 견고하게 기반을 잡을 것이 예상되었다. 그러면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대세를 장악하여 동학에서 지향하는 이상사회를 만들 기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었다.

최시형과 동학교단은 무장봉기를 보고만 있지는 않았다. 남접농민군에 뒤이어 輔國安民을 내세우면서 다투어 봉기하는 동학 조직들을 적극 막으려고 하였다.<sup>18)</sup> 이 조치는 효과가 있었다. 전라도 일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동학 조직이 최시형의 가르침에 순응하였기 때문이었다.

충청도 회덕과 진잠에서 전라도지역과 동시에 일어났던 봉기의 기세는 대단하였다. 청산에 모인 동학교도들은 4월 8일 회덕 읍내에 들어가서 관아에 보관된 무기를 탈취하고 진잠으로 향했는데 그 무리 중 흩어진 사람만 천여 명이라고 했다. 회덕에 남아 있던 이들은 청주의 진남영병이 들이쳐서 진압이 되었다.<sup>19)</sup> 충청도에서 봉기한 동학농민군이 쉽게 진압된 것은 감영과 진남영병의 재빠른 기선 제압이 효과가 있었기도 했지만 큰 이유는 주변 군현의 동학 조직이 호응을 하지 않았던 때문이었다.

17) 《侍天敎宗釋史》二編下. “玄機不露 勿爲心急 此是先師之遺訓也 運既未開 時亦未至 勿爲妄動 益究眞理 毋違天命也”

18) 위의 책. “是時各處敎徒 聲言輔國安民 爭相揭竿而起 師憂其不遵指教 馴致厲階 遂另差都禁察 令束各包”

19) 〈聚語〉(《총서》2), 122~123쪽.  
〈東匪討錄〉(《총서》6), 165쪽.

최시형은 동학교도들에게 修道者로서 正業에 힘쓰며 天時를 기다리기를 요구하였다. 아직 그 때가 오지 않았는데 黨與를 모아 서로 응원하면서 과거의 불만을 터뜨리면 나라에도 해가 되고 생명을 도탄에 빠뜨리는 근심이 된다는 것이었다. 만약 이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단호히 동학의 敎案에서 이름을 빼는 징계를 하겠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각 포에 명해서 都接主가 都講長을 겸하고, 副接主가 副講長을 겸하게 해서 매달 《동경대전》과 동학가사를 배우는 講席을 열도록 하였다. 그래서 의문이 나는 구절은 계통을 따라 法所에 알리고 각 포의 都講長은 사계절의 마지막 달에 모여서 서로 會講하도록 했다.<sup>20)</sup> 한창 전라도 일대가 동학농민군의 무장봉기로 격동하던 때의 일이었다.

그러나 동학 교단의 지침을 따르던 조직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전라도의 남평농민군이 무장봉기한 사실은 관헌의 기찰에 쫓겨 오던 동학교도들에게 엄청난 과문을 불러 일으켰다. 더구나 황도현에서 監營軍을 물리치고 京軍과도 싸워서 이긴 다음 전라도의 首府인 全州를 점령한 소식은 충격처럼 들려왔다. 이와 더불어 각 지역의 동학 조직은 농민들이 다투어 입도해옴으로써 크게 고무되었다. 3월 이후에는 이전과 같이 은밀히 포교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리에 활동하기에 이르렀다. 충청도와 경상도의 각 군현에서 활동하던 동학 접주들과 접소의 위치도 인근에 알려지게 되었다.

충청도의 동학 교세는 크게 증대되어서 군현의 지방관은 물론 감사까지 막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충청감사 이현영은 신임감사로 제수되어 新延인사를 하는 자리에서 국왕에게 경내 전 지역이 보은집회 이래 동학교도들의 聚散을 거듭하며 소란한 상태에 있는 사정을 보고하고 있다.<sup>21)</sup> 충청도와 경상도의 일부 군현에서는 전라도의 집강소 설치를 본따서 집강을 差定하여 향촌 내의 문제를 처리하기도 하였다.<sup>22)</sup>

20) 위와 같음.

21) <錦藩集略>(《총서》4), 4쪽. “所謂匪類 自昨春報恩經擾以後 餘黨尙此聚散無常 湖西則雖不若湖南之猖獗 而至於懷德鎮岑等邑 未免侵逼 全省自爾騷訛 及今撫綏安業 爲急先務”

22) 충청감사 이현영이 永同 執綱 孫仁澤 등에게 보낸 別甘을 보면 감영에서 영동의 집강 선임과 활동을 인정하지 않았나 한다. 또 경상도 金山에서도 片甫

일본군의 경복궁 습격 사건은 북접교단 예하의 동학 조직을 본격시켰다. 여러 자료에서 확인되는 동정을 종합하면, 6월 말부터 동학 조직들은 일본세력을 조선 안에서 내몰기 위해 義兵을 일으켜야 한다고 판단하고 전쟁 준비에 나섰다. 이러한 변화가 최시형을 비롯한 대접주 등 고위지도자들의 결정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하부조직에서 독자 판단에 따라 노선을 바꾼 것인지 알 수는 없다. 그렇지만 동학의 위계질서상 대접주가 모르거나 사전에 지침을 내리지 않았는데 말단 접주나 동학교도들이 독자 활동을 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최시형과 교단의 고위지도자들이 머물고 있었거나 출입이 잦았던 보은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면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다. 보은군수 鄭寅亮이 감영에 보고한 牒呈에 따르면, 7월 2일 동학교도 수백 명이 보은 사각면 고승리의 냇가에 모인 일이 있었다. 한 老教徒의 생일을 맞이하여 회집한 것인데 군수가 해산시키려고 현장에 갔더니 五里 밖의 山谷에 따로 자리를 만들어서 억지로 데리고 간 뒤 이번 모임이 倡義를 위한 것이라며 군수에게 倡義頭領이 되어 주기를 청했다.<sup>23)</sup> 군수 정인량은 관리로서 동학교도들과 함께 할 수 없다며 반대했지만 동학이 아니라 士儒로서 창의를한다며 정인량을 都約長으로 이름을 올리고, 副約長에는 任圭鎬<sup>24)</sup>·黃河一·李觀榮·金在顯과 이방 李商準을 기록했다.

이 사례는 두 가지 주목할 점을 전해 준다. 첫째는 7월 2일이란 시점이다. 일본군이 경복궁을 침범한 날자는 6월 21일이었는데 불과 10일만에 보은에서 동학교도들이 봉기를 위한 준비 모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서울 소식을 들은 즉시 대응에 나선 모습을 전해 준다.

다음은 副約長에 이름이 오른 인물들이 동학 교단의 고위지도자라는 점

彦이 都執綱을 칭하고 활동한 기록이 나온다(〈錦藩集略〉(《총서》 4), 57~58쪽; 〈歲藏年錄〉(《총서》 2), 258쪽.

23) 이 때 군수 정인량이 반대하며 제시한 이유는 첫째 지금 서울 사정을 알지 못하고 妄發하는 것은 불가하고, 둘째 지방관으로서 東學輩 두령이 될 수 없고, 셋째 창의를한다고 해도 巡兵營 兩營에 먼저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24) 任奎鎬의 誤記. 임규호는 또 任局鎬(《駐韓日本公使館記錄》)와 任局浩(《討匪大略》)로 잘못 표기되기도 한다.

이다. 任奎鎬와 李觀榮은 忠慶大接主와 尙公大接主로서 예하에 수많은 교도를 거느린 교단의 고위지도자였다. 임규호는 청주 옥산출신으로 동학에 입도한 뒤 보은 일대에서 포교하여 이 지역의 실력자로서 부각된 사람이다.<sup>25)</sup> 이관영은 경상도 북서부에서 가장 강력했던 동학조직인 상주 공성면에 근거를 가진 대접주였다. 황하일은 그가 속한 包名은 확인할 수 없으나 대접주 반열에 속한 인물로서 남접지도자들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고, 일본군의 정보보고에도 보은의 동학 ‘巨魁’로 임규호보다 앞서 기명하고 있는 사람이다.<sup>26)</sup>

교단의 고위지도자들이 가담한 이러한 시도를 교주 최시형이 사전에 허락했는지는 알 수 없다. 사각면은 교단의 고위 지도자들이 수시로 회동하는 보은 장내리의 대도소와 최시형이 주로 머물던 곳의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그 같은 동향은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최시형이 이를 우려했다거나 금지했다는 기록은 없다. 대접주들이 앞에 나섰던 이 사건은 일본군의 경복궁 침범 소식이 전해진 뒤 동학 교단의 분위기가 義兵 봉기로 집약되고 있었던 사실을 분명히 전해 준다.

교단의 고위지도자들이 관할한 포접조직의 동학교도들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활동한 모습을 보여 준다. 對日戰爭에 관한 의지는 교단과 하부조직이 서로 다르지 않았던 것이다. 각처의 접소에는 입도하는 농민들이 갈수록 늘어났다. 세력을 가진 동학교도들이 관아의 통제력을 무시하면서 활동 내용도 달라지게 되었다. 경전을 익히고 주문을 외우며 수행하기에 힘쓰기 보다 양반과 향리들에게 억압받아 온 농민 집단으로서 한풀이하는 사건들을 벌이게 되었던 것이다. 수십 명씩 떼를 지어 上典家나 地主家에 난입해서 과거사를 보복하는 사례는 지역별로 수없이 일어났다. 진천에서는 현감이 교체되었지만 동학교도들이 舊官을 願留한다면 新官이 오는 것을 막기도 하였다.<sup>27)</sup> 양조정부의 지방관 교체까지 동학교도들이 간여하려고 한 일이었다.

25) 북접농민군 대군이 공주 우금치공방전 이후 충청도로 귀환할 때 상주 소모영 유격병대가 그 지도자를 정탐하였는데, 이 지역사람들이 북접농민군을 이끄는 최고지도자로서 임규호를 지목하였다(金奭中, 《討匪大略》).

26)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94~196쪽.

27) 《錦藩集略》(《충서》 4), 58쪽.

충청감사 이현영과 호서선무사 鄭敬源은 이를 막을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는 까닭에, 전라도에서 실시하는 방책처럼 충청도에서도 집강을 임명하여 동학교도들이 스스로 불법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였다.<sup>28)</sup> 7월 15일 밤 정경원이 공주 감영으로 찾아가 감사와 만나는 자리<sup>29)</sup>에서 이 조치가 논의된 듯 보인다. 집강으로 선임된 사람들은 동학의 대접주 또는 접주들로서 그 명단은 감영에 보고가 되었는지 8월 하순 충주에서 동학농민군을 진무하던 宣撫使가 소지하고 있었다.<sup>30)</sup> 충청감사 이현영은 영동에서 천여 명의 동학교도들이 인가에 들어가 錢財를 탈취해 간 것을 금지하지 못했다고 영동집강 孫仁澤<sup>31)</sup>에게 甘結을 보내서 질책하고 있다.<sup>32)</sup>

충청도 군현의 집강소는 최시형이 허락해서 설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sup>33)</sup> 그렇지 않으면 대접주나 접주가 집강이란 이름으로 활동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시형이 머물던 보은·청산·옥천·영동·황간 등지에는 동학의 유력한 지도자들이 두 명씩이나 집강으로 활약하고 있었다. 또한 청산에는 八路都執綱이란 직함으로 활동한 인물도 있었고,<sup>34)</sup> 八路都省察과 副省察도 있었다. 이들이 이런 직함을 가지고 전국의 동학 조직이나 집강소의 개혁활동을 관장하는 일이 가능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폐정 개혁을 수행하는 군현 단위의 接所를 동학 교단 또는 대접주가 나서서 지도하는 모습은 확인이 된다.

경상도 예천에서는 백성들이 訟詞가 있으면 관부를 찾지 않고 동학 접소

28) 《洪陽紀事》, 甲午 7월 20日.

29) 《錦藩集略》, 7월 15日.

30) 《駐韓日本公使館記錄》2, 61~64쪽. 일본군은 宣撫使(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으나 음력 8월 하순에 巡行하는 것으로 보아 李重夏로 추정됨)에게 명단을 받아 大鳥圭介공사에게 보고하고 있다.

31) 《駐韓日本公使館記錄》2, 64쪽에는 孫仁澤의 이름 중 가운데 글자를 읽지 못해서 口字로 覆字임을 표시하였다.

32) 〈錦藩集略〉(《총서》4), 57~58쪽.

33) 朴孟洙, 《崔時亨研究》(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96), 242쪽.

34) 〈討匪大略〉(《총서》11), 468~469쪽. 金景淵은 權吏로서 집강이 되어 현감까지 험박하고 무단을 꺼리지 않은 인물이라고 정탐되어 상주 소모영 유격장 金奭中이 체포 처형하지만 이 사건까지 포함해서 청산현감은 越權을 이유로 감역중을 감영에 고발하고 있다.

를 찾았으며, 마치 道伯처럼 행장을 차린 東徒 檢察官 張克元이 수행원을 데리고 각 읍을 순행하였는데 風威가 호랑이와 같아 가는 곳마다 소송자가 모여들어 저자를 이루었다고 한다.<sup>35)</sup> 동학농민군의 包事는 보은의 교단과 상의해서 조정했으며 舉事도 그렇게 해서 결정되었다고 했다.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按廉使 姜華山은 같은 시기에 풍기와 예천을 순회하였다.<sup>36)</sup> 이런 모습은 1894년 여름에 교단과 대접주 차원에서 包接의 동학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상황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같은 교단의 간여나 지도가 교주 최시형의 지침과 거리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최시형은 남접농민군이 전라도 일대에서 폭력을 행사하며 俗人을 능멸하고 非法을 저지르는 행위를 걱정하였다. 그런 상태는 점차 충청도와 경상도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일어났다. 동학 조직에 대거 들어온 新入道人들과 말단 접주들이 휩쓸려 다니면서 양반과 지주들에게 보복행위를 하는 소식이 교단에 속속 전해졌다. 官습은 위세가 떨어졌고 세금은 거들 길이 없었다. 향리들은 읍내를 떠나 面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을 두려워 했다. 包에 따라서는 強包가 弱包를 위협하는 일도 생겼다. 무장활동을 앞세우는 남접계통의 조직이 교단의 지침을 따르는 조직에 적대하는 행위였다.

충청도 정산에서는 동학 조직에 힘이 있는 것을 이용해서 수십 명이 무장을 한 채 떼를 지어 십수 년 전의 빚을 받아 내는 일이 있었고,<sup>37)</sup> 경상도 김산에서는 명당을 빼앗은 지주가의 무덤을 파헤치고 관을 끌어낸 뒤 錢財를 탈취해 가는 일도 있었다.<sup>38)</sup> 이런 일은 전국에서 무수히 일어났다. 최시형은 여러 차례 불법을 저지르는 동학교도들을 만나서 깨우치고 또 편지를 보내서 경계하였지만 아무런 효과도 없었다. 따라서 8월에 들어와 이를 금지하는 강력한 내용의 통유문을 각지에 보내고 11條의 지침을 정해서 ‘金石之典’으로 삼도록 했다.<sup>39)</sup>

이 지침은 다음 몇 갈래로 정리된다. 첫째는 신입도인의 증가로 혼탁해진

35) 《甲午斥邪錄》，8月 20日.

36) 《渚上日月》，8月 14日.

37) 《錦藩集略》(《총서》2, 260~261쪽), 甲午 7월 7일, 定山縣監 牒呈.

38) 《歲藏年錄》(《甲午以後日記》).

39) 《侍天教宗釋史》(《총서》29), 109~112쪽.

동학조직의 계통과 위계질서를 바로잡는 내용이다. ‘각 包의 사무는 한 가지로 당해 主司와 別任의 知委에 좃을 事’와 ‘각 포 교도가 法所와 布德所의 文憑을 가지지 않고 마음대로 聚黨하는 사람은 즉시 제명할 事’, 그리고 ‘각 포 사무는 대소를 막론하고 法所와 布德所의 指諭에 따라 삼가 봉행할 事’는 모두 조직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조항이다.

둘째는 교도로서 건실한 생활을 강조한 것이다. ‘修身行事는 반드시 忠孝로서 根本을 삼고 居家執事는 耕讀에 힘쓸 事’와 ‘주정, 도박, 騙財는 결코 도인의 행위가 아니니 일깨워도 좃지 않는 사람은 영구히 제명할 事’가 이 범주에 들어간다.

셋째는 包接 간과 교도들 사이에 서로 다투지 말도록 하는 내용이다. ‘무리한 일로 서로 詰難하며 毆打하는 사람은 同門 交友로서 대할 수 없으니 鳴告하여 각 포에 回示할 事’로 표현했지만 여기에는 坐包와 起包의 다툼을 금지하는 뜻이 있다. 더 강력한 항목은 ‘他包의 교도가 侵勒의 폐가 있으면 指名해서 法所에 즉각 알릴 事’이다. 이것은 일찍이 무장을 하고 包勢를 키운 남접의 교도들이 교주의 지시에 따라 무장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북접 계통의 교도들을 위협해 온 행동을 금지시킨 항목인 것이다.

넷째는 사회관행상 불법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킨 일이다. ‘남의 무덤을 강제로 파헤치고 錢財를 강탈하는 사람은 실정에 따라 관에 알려져서 罪를 科할 事’와 ‘각 포 교도가 黨勢를 믿고 마땅히 갚아야 할 재물을 갚지 않고 도리어 부당한 재물을 취하는 사람은 엄히 징벌할 事’ 그리고 ‘누구든지 오래되었던 근래의 것이건 빚 문제에 절대 간여하지 말 事’는 동학교도들이 주로 양반과 지주 또는 향리들에게 취했던 공세를 사안별로 나열한 것이다. 그 중 극심하다고 본 勒掘人塚이나 錢財奪取 등 화적과 같은 행위를 하면 관아에 알려져서 죄값을 치루도록 하였다.

다섯째는 官衙와의 관계를 설정한 것이다. ‘官衙에 복종하고 세금을 제때에 내도록 힘쓰며 營屯에 죄를 짓지 말 事’란 항목은 수 많은 군현에서 관아의 농민통제력이 상실된 당시의 실정을 생각하면 오히려 놀랄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시형은 국왕이 임명한 지방관의 권위를 인정하고 동학교도들에게 관령에 복종하기를 요구하였다. 농민들에게 무겁게 조세를 부과하고 그

위에 중간 수탈이 가중되어 온 것을 고려하면 公稅를 제때에 납부하도록 정한 지침도 보복이나 한풀이를 인정하지 않는 최시형의 지도방향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갑오년 8월은 교단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에서도 동학교도들이 동학농민군으로 그 성격을 전환해 가던 시기였다.<sup>40)</sup> 대일전쟁을 준비하던 동학농민군은 지방관이나 민보군과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었으며 일본군과도 충돌하고 있었다. 8월 2일에는 동학농민군 수천 명이 무장한 채 깃발을 앞세우고 감영이 있는 공주 부내로 들어와서 시위를 하였다. 12일에는 천안에서 동학교도들이 일본인 6명을 살해한 일이 일어났다.<sup>41)</sup> 19일에는 수천 명이 금강 근처에 모여 공주로 들어간다고 해서 감영의 군졸과 각 동민을 동원해서 밤새 防守하는 일이 있었다. 노성현에서는 무기를 탈취당해서 현감이 罷黜되었다.<sup>42)</sup> ‘金石之典’이 동학 조직에서 준수되기에는 어려운 시기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관동포의 예하 조직인 경상도 예천에서 이 지침을 따른 실례가 확인된다. 8월 11일 首接主 崔孟淳이 유천접주 趙成吉을, 읍내에 東徒 10여 명을 보내 지주 李裕泰에게 보복 구타한 사실을 기록한 罪案과 함께 읍내에 압송한 것이다. 동학농민군과 읍내의 민보군이 극단의 대치상태에 있었던 때의 일이었다. 교주 최시형의 지침은 교단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하부 조직에서 이처럼 존중되었다.

9월에 들어서도 최시형의 우려는 그치지 않았다. 남접 各包는 아직 제봉기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擧義를 내세워서 민간을 侵掠하는 일이 두드러졌고, 동조하지 않는 북접 교도들을 戕害하는 등 용납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일어났기 때문이었다. 만약 잘못되면 동학교도들이 玉石의 구분없이 모두 다칠 위험도 있었다. 그래서 또다시 이를 금지하고 전국의 敎友들이 오로지 각 포

40) 동학농민전쟁 연구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은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동학교도와 동학농민군은 구별해야 한다. 말 그대로 동학농민군은 동학교도들과 농민들이 군사편제를 하고 武裝을 갖춘 뒤 군사활동에 나섰을 때 쓸 수 있는 용어이다. 갑오년의 사정을 서술하는 글에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동학에 입도한 사람들을 모두 동학농민군으로 표현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41) 《駐韓日本公使館記錄》1, 118쪽.

42) 《錦藩集略》(《충서》4), 43~44쪽.

두령의 지시와 단속에 따르도록 하라는 통유문을 발하게 된다.

이러한 통유문에는 일본군의 침략과 관계된 언급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sup>43)</sup> 반면에 최시형이 결정하지 않았으면 진행되기 어려운 대일전쟁의 준비 사업은 교단의 내부에서 오랜동안 추진되어 왔다. 대접주들이 나서서 동학농민군의 확대와 무기 및 군량 확보를 위한 노력에 힘을 기울였던 것이다.

淸義大接主 孫天民은 근거지인 청주 松山에서 기포 준비를 하였다. 가을 찬바람이 난 이후 본격화되면서 화승총을 구하여 사격 연습을 하고 화약을 몰래 제조하였다. 칼은 대장간에서 버려서 가져오고 전라도에서 운반해 온 대나무로 날을 세운 죽창도 만들었다. 예하 접조직에는 돈과 무기를 보내서 각기 봉기에 대비하도록 하였다.<sup>44)</sup>

예천은 關東大接主 李元八이 주재해서 강원도와 충청도 그리고 경상도의 13접주가 모여 회합을 가졌던 곳이었다. 동학농민군과 읍내의 민보군은 서로 대치하는 속에서도 斥倭와 通文을 전하는 방식을 둘러싸고 상반된 의견을 나누었다. 동학농민군 수천 명이 읍내를 공격하기 전에 민보군에게 같이 합세해서 일본과 싸우기를 원했지만 민보군은 “斥倭는 朝家와 관계된 일”이라서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고 거부하였다.<sup>45)</sup>

교단의 지침을 충실히 따르는 包接에서도 9월에 들어 오면 남접지역과 같은 상황으로 변하고 있었던 것이다. 경상도에서는 눈앞에 공격할 대상이 보였다. 일본군 병참부나 전신선로였다. 동학농민군은 전신주를 뽑아내고 전선을 절단하는 행동을 서슴치 않았고, 근거지에 집결해서 병참부를 기습하려고 시도하였다. 일본군은 즉각 대응해서 인근 병참부의 주둔병 등을 보복을 위한 증원군으로 파견하였다.

성주에서는 읍내에 접소를 설치하고 활동하던 10여 명의 동학교도들을 향리들이 체포한 뒤 처형하였다. 영남 북서부에 세력을 편 영동포·상공포·선

43) 1915년 간행된 《侍天教宗繹史》는 처음 저술된 동학사 기록이기 때문에 뒤에 나온 교단사 저술에 큰 영향을 주지만 무단지배가 핵심했던 일제강점기라는 간행 시기와 侍天教側의 기록이란 점에서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일본과 관련된 자료는 세심한 사료비판이 요구된다.

44) 《다시피는 녹두꽃》, 321~332쪽.

45) 《甲午斥邪錄》, 8월 28일.

산포·충경포는 연합해서 보복할 것을 결의하고, 9월 초 수천의 동학농민군을 동원해서 읍내를 점거하고 인가에 방화하였다.<sup>46)</sup> 이로 인해 읍내가 전소하고 인근의 지배층은 전전공공하였다. 이처럼 시국은 동학조직을 지키려는 최시형이 감내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전봉준의 남접농민군이 재봉기해서 삼례에 대규모로 집결하고 있다는 소식은 교단의 영향 아래 있던 조직들도 자극시켰다. 예천 읍내를 공격한 동학농민군은 민보군에게 패배하였다. 예천의 민보군은 동학농민군이 집결했던 마을과 동학교도들에게 호되게 보복하였다. 그에 뒤이어 일본군과 남영군도 경상도 북서부 일대를 순회하면서 동학농민군 가담자들을 체포하는대로 처형하였다.

강원도에서도 9월 4일, 영월·평창·정선과 충청도 제천 등지에서 온 수천 명의 동학농민군이 강릉 읍내를 점거하였다. 삼정 폐막의 개혁과 보국안민한다는 계시문을 내어 걸고 읍내에 머물던 동학농민군은 양반과 향리들이 민보군을 만들어 야밤에 기습해 온 것을 막지 못하고 다시 대관령을 넘어 후퇴하였다.<sup>47)</sup> 이와 같은 상황과 함께 각지에서 동학교도들이 慘殺된다는 보고가 최시형에게 잇달았다.

한편, 남접농민군이 봉기하면서 북접 교단조직과의 사이에 갈등이 심각해졌다. 최시형의 지시를 따르는 포접 조직은 전라도에도 적지 않았다. 이들 조직은 최시형의 기포령이 내려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삼례 집결지에 합류하지 않았다. 그로 말미암아 서로간에 언쟁과 육박전을 벌이다가 殺傷을 하는데 이르기까지 충돌하게 되었다.<sup>48)</sup> 충청도에서도 충주와 진천 일대에서 남접 계통의 徐璋玉·許文叔과 북접 계통의 辛在蓮이 벌이는 갈등은 정도를 넘어섰다.<sup>49)</sup>

최시형은 각 포의 대접주들을 청산에 불러 모아 대책을 논의하였다. 남북 접 지도부를 오가며 조정에 노력했던 오지영도 호남의 정세를 보고하고 남

46) 《星山誌》, 《歲藏年錄》, 《討匪大略》.

47) 〈東匪討論〉(《총서》 12), 123쪽.

〈臨瀛討匪小錄〉(《총서》 12), 246~251쪽.

48) 吳知泳, 《東學史(草稿本)》(《총서》 1, 483~485쪽).

49) 《兩湖右先鋒日記》, 갑오 9월.

북접 조화책을 제시하였다. 마침내 9월 18일 최시형은 기포령을 내렸다. “先師의 宿冤을 쾌히 펴고 宗國의 急難에 같이 나아가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 기포령은 무장활동을 승인한 것인데, 무기 확보를 위한 읍내 관아의 점거와 북접농민군을 대도시가 있는 보은으로 집결시키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 것처럼 보인다.

기포령이 전달되자 일본과의 전쟁을 준비해 왔던 전국의 동학조직은 즉각 봉기에 나섰다. 북접농민군은 일제히 읍내 점거를 시도하였다. 경상도의 대읍인 상주와 선산이 9월 22일경 각각 수천의 농민군에 의해 점거되었다. 상주에서는 함창·예천·상주의 동학 조직이 동원되었고, 선산에서는 김산·선산 등지의 조직이 합세하였다. 대접주가 지휘를 해서 예하 포접 조직을 모두 동원하거나 몇 개의 포조직이 연합해서 점거에 나선 것이다.<sup>50)</sup>

청주는 9월 24일경 수 천의 동학농민군이 읍성을 포위해서 공격하였다. 이 공격에는 손천민의 포조직은 물론 서장옥 계열의 동학농민군도 합세하였다. 병영이 있는 청주목의 공격은 난관에 봉착했다. 병사 李長會가 지휘하는 진남영은 우수한 무기를 지니고 반격에 나섰던 것이다.<sup>51)</sup> 읍성에서 시작된 전투는 무심천을 사이에 두고 여러 날 동안 지속되었다. 청주 목사와 병사는 인근 군현과 감영 그리고 조정에 구원병 파견을 청하는 급보를 계속 보냈다. 정부는 경군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이미 경기도와 충청도에 파견된 장위영과 경리청 병대를 시급히 청주로 가도록 했다.<sup>52)</sup>

충주에서는 기포령이 내린 후에도 辛在蓮包와 許文叔包의 대립이 9월말까지 계속되었다. 신재련은 광혜원에 진을 치고 허문숙은 충주 용수포에 집결시켜서 동학농민군이 양측으로 나뉘어 접전을 하려는 기세였다. 신재련의 주장은 최시형과 같았다. 호남과 호서의 남접이 倡義라 칭하고 무리를 이끌어 취당해서 말과 병기를 거두고 평민을 侵掠하고 道員을 살해한다는 것이다. 新入道儒는 道의 大體를 모르면서 빛을 받아 내고, 남의 무덤을 파고, 옛 원

50) 《召募日記》, 《討匪大略》, 《甲午斥邪錄》, 《歲藏年錄》.

51) 경군 각 병영은 6월 말 일본군이 무장을 해제했지만 진남영병은 홍계훈이 병사로 있을 때 갖춘 신식무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52) 〈兩湖右先鋒日記〉(《충서》 15), 16쪽, 《先鋒陣日記》.

한을 갚는 일만 한다고 하였다.<sup>53)</sup> 동학의 주요 근거지인 충주 외서촌을 둘러싼 남북접 간의 갈등이 치열한 전투까지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충주 일대에 있던 허문숙 조직은 일본군과 충돌하였다. 충주는 일본군의 병참선을 연결하는 요지였다. 일본에서 부산을 거쳐 오는 군대와 물자는 충청도의 안보와 가흥을 통해 서울 방면으로 올라갔다. 허문숙의 동학농민군은 가흥의 일본군 병참부를 공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이를 정탐한 일본군이 선제 기습해 왔다. 동학농민군은 일본군의 우월한 무기를 당해내지 못하고 9월 16일에서 17일 밤에 이르는 동안 30명이나 살해당한 채 패산하고 말았다. 9월 25일에는 청안의 동학농민군이 일본군 정탐병을 찾아내서 처형하였다.

괴산 읍내는 동학농민군이 10월 6일에 읍내를 점거하였다. 괴산 읍민들이 접주를 격살한 뒷탈로 인해 민가가 放火되어 읍내가 전소하는 혹심한 피해를 입었다. 진천 읍내는 9월 29일 안성과 이천에서 온 동학농민군이 읍내를 포위, 현감과 공형을 결박하고 軍庫를 부순 뒤 무기를 하나도 남김없이 가져갔다. 보은으로 진군하는 길목에 있는 군현이 점거되었던 것이다.

북접농민군은 기포와 동시에 관군과 민보군 그리고 일본군의 공격을 받게 되었다. 조정에서는 9월 22일 동학농민군 진압기구인 兩湖都巡撫營을 설치하였다.<sup>54)</sup> 그리고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막지 못한 경기도와 충청도 군현의 지방관에 경군 지휘관을 임명하였다. 경기도의 죽산부사에는 장위영 영관 李斗璜, 안성군수에는 경리청 부영관 洪運燮, 충청도의 서산군수에는 경리청 영관 咸夏永을 겸임시켜서 병대를 이끌고 가도록 한 것이다.

일본군은 각지의 병참부에 주둔한 병력을 인근 지역의 사태에 즉각 개입시켰다. 낙동병참부는 상주 읍성을 기습해서 동학농민군을 퇴각시켰고, 해평병참부는 선산 읍성을 공격해서 관치질서를 회복시켰다. 가흥병참부는 충주 일대의 집결지를 공격하였다.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새로 증파되어 온 후비보병 제19대대 병력도 북접농민군을 1차 공격목표로 삼아 三路로 나누어 내려 왔다. 대대본부가 포함된 中路軍은 청주를 목표로 내려 왔다.<sup>55)</sup> 西

53) 《兩湖右先鋒日記》(《총서》 15), 10~12쪽.

54) 《日省錄》, 고종 31년 9월 22일.

55) 《駐韓日本公使館記錄》 6, 64쪽.

路軍은 직산·천안을 거쳐 공주로 직행하였고, 東路軍은 이천·충주를 거쳐 강원도로 들어갔다. 공주 우금치로 간 일본군은 1개중대 병력이었고, 그 중 支隊는 홍주에 있었다. 즉 우금치전투가 끝날 때까지 증파된 일본군과 맞서 싸운 동학농민군은 주로 북접농민군이었던 것이다.

민보군은 여러 군현에서 결성되었다. 경상도의 거창과 안의는 지방관이 중심이 되어 경내 민정을 동원해서 결성하였고,<sup>56)</sup> 경기도 지평은 前監役 孟永在가 결성하였다. 상주와 선산에서는 일본군이 읍성의 동학농민군을 내몬 뒤에 향리들이 민보군을 조직하였는데, 그 선례가 된 것이 예천의 민보군이였다.<sup>57)</sup> 경군과 일본군이 지나간 군현에서는 儒會所 등이 조직되었다. 조정에서는 전국 각지에 召募使·討捕使 등을 임명해서 민보군을 결성하도록 軍權을 부여하였다.<sup>58)</sup>

강원도의 동학농민군은 두 계통으로 연합해서 활동하였다. 하나는 흥천대 접주 차기석이 이끄는 계통으로 흥천 일대에서 근거를 가진 세력이였다. 다른 하나는 평창·정선·원주·영월을 기반으로 활약한 세력으로 관동대접주 이원팔이 중심이였다. 이들은 강원도에서만 활약한 것이 아니라 경상도 북부와 충청도의 단양·충주지역 그리고 경기도까지 활동범위를 넓혔다. 동학농민군에는 평창과 강릉의 양반도 참여하였고, 집강과 같은 유력자도 들어왔다.

강원도의 주요 활동 지역은 평창·정선·영월·원주·횡성·인제·강릉·삼척·양양·간성·기린·춘천·김화·금성 등지이다. 그 중 두드러진 군사 활동을 편 지역이 평창·정선·영월·흥천·강릉·삼척이였다. 10월 하순에는 영월·평창과 제천·청풍의 조직이 합세해서 정선 읍내를 점거하였다. 이때부터 11월 초 사이 정선읍에 3천 여명, 평창과 후평에는 1천 여명이 집결해 있었다.

이 시기 전열을 정비한 민보군과 관군이 진압에 나섰다. 전승지 李會源이

56) 《甲午以後日記》(필사본).

57) 〈甲午斥邪錄〉(《총서》 11), 95~96쪽.

〈召募日記〉(《총서》 11), 149쪽.

58) 《日省錄》, 고종 31년 9월 25·26일.

강릉부사로서 관동소모사를 겸임하였고, 원주 감영의 영군도 뒤늦게 출동하였다. 孟英在가 이끄는 경기도 지평의 민보군은 강원도의 동학농민군이 경기도를 거쳐 보은으로 남하하는 길목을 막았다.

일본군 후비보병 제19대대의 동로군은 인천·장호원·가흥·충주를 거쳐 강원도로 들어왔다. 이 일본군이 강원도로 직행한 것은 무엇보다 삼남 일대의 동학농민군이 험준한 산골에 들어와서 장기전을 펴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이유 때문이었다. 동로군은 인천 주재 일본군사령관이 직접 통제해서 10월 25일부터 11월 17일까지 22일간 강원도 여러 군현을 순회하였다. 일본 공사 井上馨은 인천병참사령부에게 강원·함경도방면으로 올라가는 길목을 막도록 다시 1개중대 병력의 증파를 요청하였다.<sup>59)</sup>

10월 중순부터 동학농민군은 진압군의 우세한 무기를 막지 못해 거듭 참패하게 된다. 경기도와 강원도의 도계 양쪽 지역에 걸쳐 있던 대접주 차기석 예하의 조직은 교단의 지시에 따라 경기도를 거쳐 보은으로 남하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지평의 맹영재 민보군에게 반격당하여 저지되었다. 대접주 차기석과 접주 박종백의 농민군은 10월 11일 홍천의 내촌면 東倉을 점거해서 곡식을 탈취하였다. 맹영재와 횡성 현감이 지휘하는 민보군과 관군은 차기석부대가 주둔한 장야촌과 서석면으로 몰려와 공격을 가했다. 맹영재는 다음과 같은 전투 기록을 남겼다. “10월 21일 행군해서 홍천 장야촌에 이르러 비류 30여 명을 포살했다. 다음날 서석면에 가니 비류 수천 명이 흰 기를 세우고 진을 쳐 모여 있었다. 총을 쏘며 접진을 벌였는데 탄환에 맞아 죽은 자의 수를 헤아릴 수 없었다.”<sup>60)</sup>

서석전투에서 패배한 동학농민군은 봉평 내면으로 근거지를 옮겼다. 대접주 차기석은 강릉·양양·원주·횡성·홍천 5읍의 동학조직을 지휘해서 진압군의 공격에 대비하였으나 다시 포위공격을 받게 된다.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추위 속에 벌어진 협공을 막아내지 못하고 대접주 차기석과 주요 간부들이 체포되었다.

평창의 동학농민군은 11월 5일 서울에서 증파된 병력과 합류한 일본군 동

59)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65쪽.

60) 《甲午實記》, 11월 초2일.

로군 및 원주 소모관 鄭俊時가 인솔한 관군을 맞아 격전을 벌였다. 일본군은 “평창에 집결한 약 3천 명의 동학당을 공격했다. 동도가 사격으로 저항하여 격전 2시간에 점차 퇴각의 기세를 나타내서 오후 1시에 평창을 완전히 점령하였다. 동도의 사상과 포로는 즉사 70명, 부상 미상, 포로는 뒤에 저항하므로 10여 명을 총살했다”고 보고했다.<sup>61)</sup> 이시모리(石森)대위가 이끄는 일본군의 화력이 동학농민군이 지닌 화승총과 창칼을 압도한 까닭에 일방적으로 패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험한 지세를 이용한 강원도의 동학농민군은 완강하게 저항하였다. 전투상황을 비교하면 전라도와 충청도의 동학농민군들이 여러 지역에서 소수의 일본군이 진격해 들어오는 것만 보고도 흩어졌던 사례와는 다른 양상으로서 마지막까지 굳건히 대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충청도·경상도·강원도·경기도에서 보은으로 속속 집결한 북접농민군은 영동과 황간으로 분산해서 주둔하였다. 장내리는 많은 군대가 모여 훈련을 하거나 오랜 기간 주둔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았다. 개활지에 인접하여 외부에 노출되기 쉬웠고, 잡자리와 물도 부족했다. 따라서 깊은 산골로 집결지를 옮겨서 出陣에 대비하였다.

영동과 황간에 머문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북접농민군 대군은 軍需錢과 軍需米를 구하기에 전력을 다했다.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물자를 직접 확보하는 일은 매우 어려웠다.<sup>62)</sup> 충청도 동남부 군현은 물론 추풍령을 넘어서 김산과 상주까지 사람을 파견해서 錢財를 강제로 헌납받아 왔다. 그러는 과정에서 무리도 뒤따랐다. 타지에서 원정은 온 동학농민군은 넉넉한 집들을 지정해서 곡식과 돈을 내도록 하였는데 헌납을 못하면 후환을 꺼리지 않고 폭력을 가했다.<sup>63)</sup> 이런 소문이 떠돌면서 영동과 황간의 북접농민군은 인근 군현의 양반지주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기포령은 일본과의 전쟁이 목적이었지만 동학농민군이 봉기한 뒤에는 전

61) 韓祐勳, <東學農民軍의 蜂起와 戰鬪>(《韓國史論》4, 1978), 373쪽.

62) 《召募日記》, 10월 22日字에는 다음과 같은 전문들을 기록하였다. “此時騷訛不可一一取信 而得以黃永問 匪徒之結陣者 不知幾萬名 府吏鄉人 轉相興訛 有妨軍政” “永同匪徒 不過千餘名 而自相蹂亂 全無統率 食盡路窮 方嗷嗷思逃云”

63) 《甲午以後日記》(필사본).

쟁 준비과정에서 양반 향리에 대한 신분투쟁과 지주 부농에 대한 경제투쟁이 병행되었다. 斥倭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양반지주층이 민보군 결성에 앞장서고 동학농민군 토벌에 잔혹했던 것은 그 때문이었다.

최시형은 북접농민군을 총지휘하는 統領으로 손병희를 지명하였다. 그리고 鄭璟洙包와 金奎錫包를 각각 선봉군과 후군으로 삼고, 李鍾勳包와 李容九包를 각각 좌우익으로 정했다. 당시 북접농민군의 주요 지휘자는 孫天民(청주) · 李觀永(상주) · 李元八(원주) · 任奎鎬(보은) · 李鍾勳(廣州) · 鄭璟洙(안성) · 朴容九(음죽) · 高在堂(양지) · 洪秉箕(여주) · 金奎錫(이천) · 吳一相(문의) · 趙在璧(옥천) · 姜建會(옥천) · 辛在蓮(충주) · 李容九(충주) 등이었다. 충청도 서해안 지역과 강원도 지역의 동학농민군은 여러 포 조직이 현지에서 읍내를 공격하거나 경군과 일본군에 맞서느라고 합류하지 못했다.

북접농민군은 대군<sup>64</sup>)을 二隊로 나누어 一隊는 손병희가 이끌고 남접농민군과 만나기로 약정한 논산으로 10월 중순<sup>65</sup>)에 출발하였다. 또 一隊는 오일상 · 강건회가 이끌고 회덕으로 가도록 하였다. 경군과 일본군이 충청도 청주 · 옥천 방향으로 남하하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였다.<sup>66</sup>) 손병희의 북접농민군과 전봉준의 남접농민군이 논산에서 만남으로써 남북접 연합군이 이루어졌다.

〈申榮祐〉

64) 북접농민군의 수는 《天道敎創建史》에서 약 6만 명으로 추산했고, 《東學史》는 약 10만 명이라고 했다. 이 수가 다 짐작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愼鏞廈 교수는 《東學과 甲午農民戰爭》, 312쪽에서 손병희의 직할부대를 약 1만 명으로 추정하였다.

65) 북접농민군은 일시에 出陣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나누어서 행군한 것으로 보인다. 충청도의 사정 파악에 힘을 기울인 상주 소모사에게 다음과 같은 정담 사실이 전해졌다(〈召募日記〉)(《총서》 11), 161쪽. “各處探吏回告內 黃永諸賊 自二十三日 始踰沃川 將向公州”.

66) 이 시도는 결과적으로 성공하였다. 후비보병 제19대대의 중로군을 공주로 가지 못하게 길목을 막는 임무를 다했기 때문이다. 또 金子先에게도 10월 17일 일부 북접농민군을 이끌고 청주를 공격하도록 했는데 초정리 부근의 가는다리(細橋)에서 일본군을 만나서 패산하기도 하였다(〈討匪大略〉)(《총서》 11), 461쪽).

## 2. 반일투쟁의 전개

### 1) 반일투쟁의 발발

농민군이 1894년 9월에 들어 다시 일어난 일차적인 목적은 일본의 침략행위를 물리치고 輔國安民하려는 데 있었다.<sup>1)</sup> 농민군은 제1차 농민전쟁에서도 ‘斥倭洋’ 구호를 제기하였지만, 그들의 행동이나 요구내용을 볼 때 일차적인 목적은 어디까지나 民에게 해악을 끼치는 폐정을 개혁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농민전쟁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에 출병하는 뜻밖의 심각한 상황이 초래되었다. 6월 이후에는 일본의 경복궁 강점과 청일전쟁 개전, 내정간섭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태 속에서 일본의 침략의도가 점차 노골화하였다. 이에 따라 농민군 지도부, 특히 全琫準의 관심은 폐정개혁으로부터 반외세문제, 곧 ‘斥倭’ 쪽으로 급격히 선화하였다.<sup>2)</sup> 일본의 침략을 막아내지 못하여 국가가 멸망한다면, 폐정개혁은 고사하고 生民이 하루도 편히 살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sup>3)</sup>

이미 일본군에 의해 경복궁 강점과 청일전쟁이 발발한 직후부터 전라도 일대에서는 반일투쟁의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경복궁강점 직후인 6월 23일경부터 일주일 안에 고부·부안·무장·김제 등지에서 농민군이 다시 봉기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이들의 巨魁들은 6월 8, 9일경에 모의하여 6월 16일 김제에서 대회를 가지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며, 일본이 大兵을 일으켜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 하므로 나라를 생각하는 자라면 모두 무기를 들고 일어나 막아야 한다며 사방의 士夫도 동참할 것을 촉구하였다고 한다.<sup>4)</sup>

6월 29일 장성에서는 “倭兵이 장차 이를 것이므로 일이 매우 급박하다”면

- 
- 1) <全琫準供草>(《東學思想資料集》 壹, 亞細亞文化社, 1979), 318~319쪽 및 340, 362쪽.
  - 2) 襄亢燮, <執綱所 時期 東學農民軍의 활동양상에 대한 一考察>(《歷史學報》 153, 1997) 참조.
  - 3) <東京朝日新聞>, 명치 28년 3월 5일(《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22), 367쪽.
  - 4) <東京日日新聞>, 명치 27년 8월 5일(《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22), 509쪽.

서 500~600명의 농민군이 관아에 쳐들어와 무기를 탈취하여 갔다.<sup>5)</sup> 6월 22, 23일 무렵부터는 군산과 전라도에 인접한 강경지역에서도 농민군들이 청국 병과 함세하여 일본군과 싸운다고 하며 총, 말 등 전쟁에 사용할 물품들을 민가에서 거두어 들였다.<sup>6)</sup> 7월 9일에는 전라도 부안의 농민군이 서천군으로 들어와 방포하며 “전라도 연해에 정박해 있는 일본선박이 몇백 척이나 되어 전라도 전체가 놀라고 있다. 계엄하지 않을 수 없으나, 부족한 것이 마필과 군기이다”라고 하며 총과 화약, 馬匹 등을 빼앗아 갔다.<sup>7)</sup> 8월 25일에는 전봉준보다 오히려 더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金開南이 남원에서 대규모 대회를 열고 기포를 결의하였다. 8월 19일 경부터 농민군이 남원으로 모여 들었으며, 9월 1일에는 김개남과 기맥이 통하던 금구출신의 대주주 金仁培가 광양·순천의 농민군을 이끌고 경상도 하동을 공격하면서 사실상 재기포를 시작하였다.<sup>8)</sup>

전봉준도 이미 일본군의 경북궁 강점사건 발발 전인 6월 중순 경에 추수를 한 후 다시 일어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sup>9)</sup> 또 일본군의 경북궁 강점 소식을 늦어도 7월에는 접하였지만,<sup>10)</sup> 8월 말까지도 재기포를 미루고 있었다. 여기에 대해 전봉준은 자신에게 병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농민군들을 한꺼번에 불러 일으키기가 수월치 않았으며, 군량에 필요한 곡식의 수확을 기다리느라고 기포가 늦어졌다고 하였다.<sup>11)</sup> 그러나 재기포를 연기한 요인으로 지적되어야 할 것은 전봉준으로서는 중앙정국의 동향과 청일전쟁의 추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없었고, 명확한 판단도 내릴 수 없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집강소시기 전봉준의 정세인식과 행동방침을 통해 엿볼 수 있다.

5) 《古文書》 2, 서울대 도서관, 412쪽.

6) 《駐韓日本公使館記錄》 3(國史編纂委員會, 1986), 236~240쪽.

7) 《錦藩集略》 別啓, 7월 7일조(《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4), 34~35쪽. 위 기사의 내용은 7월 9일에 일어난 일이지만, 7월 7일조에 잘못 실려 있다.

8) 《梧下記聞》 2筆(《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1), 209~210, 217~218쪽; 《駐韓日本公使館記錄》 2, 71~72쪽; 《嶺上日記》 8월 19일(《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2), 286~287쪽.

9) 海浦篤彌, 《東學黨視察日記》(《日本人》 18호, 1895년 2월), 130~136쪽.

10) 《全琿準供草》, 372쪽.

11) 《全琿準供草》, 364쪽.

이미 1893년 3월의 보은집회 무렵부터 권력장악을 위해 농민군을 이용하고자 하였던 대원군세력은 일본군의 경북궁 강점 직후 섭정을 시작하면서 농민군을 이용하여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채우려는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갔다.<sup>12)</sup> 섭정을 시작한 대원군은 6월 말에서 7월 초에 걸쳐 徐璋玉·徐丙學·張斗在 등 주요한 동학접주들을 석방하였다.<sup>13)</sup> 이 가운데 장두재는 7월 초 무렵에 대원군을 만나서 청군과 합세하여 일본군을 물리치기로 합의한 후 7월 9일에는 金德明·金開南 및 孫化中 앞으로 기포를 촉구하는 편지를 보냈다.<sup>14)</sup> 전봉준에게도 대원군의 밀사들이 수 차례 왕래하였을 뿐만 아니라,<sup>15)</sup> 8월 10일에는 전봉준의 처족 7촌이자 全羅左右道 都執綱을 맡고 있던 宋熹玉이 善工主事로 임명된 바 있다.<sup>16)</sup> 이는 대원군측이 자신들의 정변 계획에 전봉준을 끌어들이기 위해 집요하게 노력하였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전봉준측과 대원군측 사이에는 기맥이 일정하게 통하고 있었으며, 장두재의 편지 내용이나 대원군측의 의도도 전봉준에게 전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봉준의 생각과 행동은 대원군측의 의도와는 달랐다. 대원군과 밀의한 장두재가 농민군의 재기포를 촉구하는 편지를 김덕명, 김개남, 손화중에게 보낸 지 일주일 정도 후인 7월 17일 전봉준은 무주집강소에 다음과 같은 통문을 보냈다.

방금 外寇가 범궐하였다. 국왕이 옥을 당했으나, 우리들은 마땅히 달려가 목숨을 걸고 의로써 싸워야 하나 저 도적들이 바야흐로 청나라와 전쟁 중이어서

12) 대원군과 농민전쟁의 관계에 대해서는 李相栢, 〈東學黨과 大院君〉(《歷史學報》 27·28합집, 1962); 柳永益, 〈全琿準 義學論〉(《李基白先生古稀紀念韓國史學論叢》 下, 1994); 김양식, 〈대원군일파의 정변계획과 농민군과의 관계〉(《근대한국 사회변동과 농민전쟁》, 신서원, 1996); 張泳敏, 〈大院君의 東學農民軍·保守兩班 動員企圖에 관한 一考察〉(《重山鄭德基博士華甲紀念韓國史學論叢》, 1996); 양상현, 〈대원군과의 농민전쟁 인식과 동향〉(《1894년 농민전쟁연구 5》, 역사비평사, 1997); 배항섭, 〈전봉준과 대원군의 ‘밀약설’ 고찰〉(《역사비평》, 1997년 겨울호) 참조.

13) 《駐韓日本公使館記錄》 8, 54쪽.

14) 《駐韓日本公使館記錄》 8, 54~55쪽.

15) 〈全琿準供草〉, 347쪽.

16) 《舊韓國官報》 1, 8월 초10일, 166쪽.

그 예봉이 매우 날카로우므로 갑자기 맞서 싸웠다가는 그 화가 宗社에 미칠지도 모른다. 물러나 은둔하여 시세를 관망한 연후에 기세를 올려 계책을 취하는 것이 萬全之策이다. 바라건대 반드시 경내의 각 접주에게 통문을 돌려 서로 상의하여 각자 安業하고 경내에서 胥動하는 무리를 일절 금단하여 마을에서 횡행하며 소동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기를 切望한다.<sup>17)</sup>

‘마땅히 달려가 싸워야 할 것’이라는 표현에서 이 통문이 재기포를 촉구하는 장두재의 편지로 인하여 자칫 중요할지도 모를 접주들을 자제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약 한 달 후인 8월 11일에도 전봉준은 일본군에 의해 민씨정권이 축출되었고, 대원군이 집정하면서 폐정을 개혁하고 政法을 바로잡아 자신들이 원하던 바가 많이 달성되었으나, “일본이 하고자 하는 바와 대원군이 하고자 하는 바를 우리들은 아직 상세히 알 수 없어 마음을 놓을 수 없다. 때문에 나는 힘써 동지들의 분격을 가라앉힘과 동시에 우리 정부의 동태를 알려고 한다.”고 하였다.<sup>18)</sup> 이러한 전봉준의 입장은 8월 25일 무렵 김개남이 남원에서 재기포하는 데 반대할 때까지도 이어졌다.<sup>19)</sup>

그것은 무엇보다 중앙정국이나 일본의 동향, 대원군의 의도 등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봉준은 대원군측이나 일부 농민군 지도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섯불리 움직이기보다는 중앙정국이나 일본측의 동태를 좀더 신중하게 관찰하고자 하였다. 또 청일간의 전쟁이 끝나면 어느 나라든 농민군 진압에 개입할 것이지만, 현실적인 농민군의 역량으로는 그에 맞서기 어려우며, 그럴 경우 자신들이 소망했던 바를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8월 말까지도 전봉준은 官과의 물리적 충돌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관민상화’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농민군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보존·강화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나아가 일단 중앙정국과 청일전쟁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필연적으로 도래할 반외세투쟁에 대비하여 土族이나 재산이 있

17) 〈隨錄〉, 茂朱執綱所, 甲午 7月 17日(《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5), 278~279쪽.

18) 〈時事新報〉, 명치 27년 10월 5일(《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22), 331~332쪽; 《日清交戰錄》12, 명치 27년 10월 16일, 43쪽.

19) 〈梧下記聞〉2筆(《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1), 210~211쪽.

는 계층까지 포괄하는 연합을 추진해 나가려는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sup>20)</sup>

이러한 정세 인식에 입각하여 제기포를 유보하던 전봉준이 제기포를 결심하는 것은 대원군측의 밀사와 접촉한 직후인 9월 10일 무렵이었다. 전봉준이 제2차 기포, 곧 반일투쟁을 결심하기 직전인 9월 2일 대원군측 밀사인 朴東鎭과 鄭寅德 등이 진주로 내려왔다. 이들은 기포하여 상경할 것을 촉구하는 대원군의 密敎를 가져와 9월 7, 8일경 전봉준에게 전달하였다.<sup>21)</sup> 이들은 먼저 전봉준의 처주 7촌이자 全羅左右道 都執綱을 맡고 있던 宋熹玉과 접촉하였다. 송희옥은 대원군측의 밀사를 만난 다음날 휘하의 농민군들을 거느리고 전주성을 빠져 나갔으며,<sup>22)</sup> 9월 6일 전봉준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띄웠다.

앞으로 더 일을 계획하고자 삼가 묻고자 합니다.

(중략) 과연 어제 저녁 또 두 사람이 비밀리에 내려왔기에 상세히 그 전말을 알아본즉 과연 이는 開化邊에 압도되어 먼저 효유문을 발하고 뒤이어 秘計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온 두 사람을 곧 가두어 두고 이들을 엄중히 지키도록 하여 서로 말을 통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 두었으니, 밤을 아랑곳하지 말고 올라오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湖中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 벌써 발각되어 잡혀 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대체로 속히 행하면 萬全策이 되고 늦으면 기밀이 발각되는 것이므로 이를 양찰하시고 대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천번 만번 빕니다. 호서지방에서는 초 10일에 대회를 갖고 한 쪽에서 올라가도록 명령하였다 하므로 계속하여 뒤쫓아 간 다음에야 일이 완전하게 합치될 수 있습니다. 들뜨지 마시고 제대로 하시기 바라며 나머지는 아직 갖추어 올리지 못합니다.

甲午 9月 初6日

接弟 宋熹玉 再拜<sup>23)</sup>

송희옥의 편지를 받은 전봉준은 삼례로 가서 박동진과 정인덕을 만났고,<sup>24)</sup> 9월 8일 이전 李建英이 남원의 김개남을 찾아가서 국태공의 명령이라

20) 이 시기 전봉준의 정세판단과 행동방안에 대해서는 裴尙燮, 〈執綱所 時期 東學農民軍의 活動양상에 대한 一考察〉(《歷史學報》153, 1997) 참조.

21) 〈隨錄〉(《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5), 296쪽; 《駐韓日本公使館記錄》8(國史編纂委員會, 1993), 55쪽, 361쪽; 〈全捧準供草〉, 341쪽, 358~359쪽.

22) 〈隨錄〉(《東學農民戰爭史料大系》5, 驪江出版社, 1994), 296쪽.

23) 《駐韓日本公使館記錄》8(國史編纂委員會, 1993)(이하 생략), 55·361쪽.

며 ‘起兵赴京’할 것을 密諭하였다.<sup>25)</sup> 같은 무렵 전봉준도 삼례에서 이견영을 만나 다음과 같은 국왕의 밀지를 받았다.<sup>26)</sup>

너희들은 선대 왕조로부터 교화하여 내려 온 백성들로서 선왕의 은덕을 잊지 않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이다. 조정에 있는 자는 모두 저들에 아부하고 있어 서로 은밀히 의논할 자가 한 사람도 없으니, 외롭고 의지할 데가 없어 하늘을 향하여 통곡할 따름이다. 방금 왜구들이 침범하여 화가 국가에 미치었은 바 운명이 조석에 달렸다. 사태가 이에 이르렀으니 만약 너희들이 오지 않으면 박두하는 화와 근심을 어떻게 하라. 이로써 교시하노라.<sup>27)</sup>

“국가의 운명이 조석에 달렸다”는 국왕의 밀지를 받은 전봉준은 국왕의 밀지가 도착한 사실과 그에 대한 비밀을 당부하는 회람을 義龍·月波·和中等으로 명기한 동지들에게 돌렸다.<sup>28)</sup>

이러한 몇 가지 자료들은 재기포 직전인 9월 초순 전봉준 등 농민군 지도부와 대원군측 사이에는 긴밀한 접촉이 있었음을 보여 준다. 전봉준이 재기포를 결심한 것은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우선 전봉준이 아직까지 勤王主義的 의식을 엄연히 가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sup>29)</sup> 起兵하여 상경해 줄 것을 절박하게 요청하는 밀지를 국왕이 직접 보냈다는 사실 자체가 ‘輔國安民’을 위한 기병을 결심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대원군 밀사와의 접촉을 통해 8월 16일에 있었던 청일간의 평양전투에서 일본군이 승리한 사실, 일본이 명백한 침략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농민군 진압에 본격적으로 투입될 것이라는 사실, 대원군은 집정은 하고 있으나 일본이 내세운 개화파에 포위되어 사실상 자신의 뜻을 펼 수

24) <全琿準供草>, 341쪽.

25) <甲午略歷>(《東學亂記錄》上, 國史編纂委員會, 1959), 67~68쪽.  
 <梧下記聞> 3筆, 247쪽.

26) <全琿準供草>, 341쪽.

27) 《駐韓日本公使館記錄》8, 54·360쪽.

<東學文書>(《東學農民戰爭史料大系》5), 99쪽.

28) 《駐韓日本公使館記錄》8, 54쪽, 361쪽. <東學文書>에는 자신이 밀지를 보낸 사실이 누설될 경우 자신에게 화가 미칠 것이므로 철저히 비밀로 하라는 8월 14일자로 된 국왕의 밀지가 실려 있다(《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5, 112쪽).

29) 鄭昌烈, 《甲午農民戰爭研究》(延世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1), 255쪽.

없게 되었다는 점 등 청일전쟁과 중앙정국의 추이, 일본군의 침략의도와 농민군 진압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았을 것이라는 점이다.<sup>30)</sup> 이에 따라 전봉준은 위에서 언급한 바 반일투쟁의 개시를 연기한 이유들 가운데 아직 수확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특히 농민군의 역량이 취약하다는 점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진왜란의 참화를 연상하며 “국가가 멸망하면 생민이 어찌 하루라도 편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에서 “국가와 멸망을 함께”하기 위해 재기포를 결심하였던 것이다.<sup>31)</sup>

재기포를 결심한 전봉준은 9월 10일경 삼례에 大都所를 설치하고 기병준비에 착수하였다. 삼례는 백여 호도 안되는 작은 고을이었지만, 도로가 사방으로 통하는 요충이었고 다수의 농민군이 임시거처로 사용할 수 있는 邸幕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때 삼례에서 모여 전봉준과 함께 모의한 인물은 진안의 접주 文季八·金永東·李宗泰, 금구의 접주 趙駿九, 전주의 접주 崔大奉·宋日斗, 정읍의 접주 孫如玉, 부안의 접주 金錫允·金汝中·崔卿宣·宋熹玉 등이었다. 전봉준은 삼례에 대도소를 설치하고 5, 6일 후에는 직접 손화중과 최경선이 있던 광주와 나주로 갔으며, 김개남에게도 연락하였다. 전봉준은 각지의 “忠義之士”에게 함께 일어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이번 거사에 호응하지 않는 자는 不忠無道한 자”라는 통문을 돌렸다.<sup>32)</sup>

전봉준은 각지의 官衙에도 재기병을 알리는 통문을 보내 군수품 조달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였다. 9월 10일 태인현에는 거사를 위해 公穀과 公錢을 이용해야겠으니, 軍需米 300석과 동전 2,000냥을 금구·원평의 대도소로 수송하기 바란다는 전봉준의 통보가 전달되었다. 17일에는 백미 300석, 동전 2,000냥, 白木 15同을 여산으로 보내라는 농민군 大都所의 傳通이 고산 관아에 도착하였다. 이외에도 9월 10일부터 20일 사이에 김제, 능주, 광주, 군산, 전주 등 각지의 관아에 화약·탄환 등의 무기와 쌀·白木 등 군수물자를 농

30) 《駐韓日本公使館記錄》8, 55~76쪽.

〈全珠準供草〉, 3차문목·5차문목 참조.

31) 〈東京朝日新聞〉, 명치 28년 3월 5일(《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22), 367쪽.

32) 〈全珠準供草〉, 321~322쪽, 373~375쪽, 378쪽, 381~382쪽.

〈判決宣告書〉(《東學關聯判決文集》, 總務處 政府記錄保存所, 1994), 30쪽.

〈梧下記聞〉3筆(《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1), 253쪽.

민군 도소로 보내라는 통문이 날아들었다.<sup>33)</sup> 9월 18일경에는 장차 서울로 쳐 들어가려 하니 군량을 준비해 두라는 통문이 충청도 각읍에도 전달되었다.<sup>34)</sup>

이와 함께 인근 지역의 官衙를 공격하여 무기를 탈취하기도 하였다. 9월 9일에는 전라도 금구의 농민군이 고산 관아를 공격하고, 다음 날에는 무기를 탈취하여 전주쪽으로 향하였다. 10일 밤에는 삼례에 집결하였던 농민군이 여산을 공격하였고, 13일 밤에는 무기를 탈취하여 돌아갔다. 14일에는 삼례에 모여 있던 농민군 8백여 명이 전주성으로 쳐들어가 화포 74문, 탄환 9,773발, 탄자 41,234개, 환도 300자루 등 무기를 탈취해 갔고, 16일에는 백여 명의 농민군이 威鳳山城을 공격하여 무기를 빼앗아 갔다. 또 8월 말부터 남원에서 재기포를 준비한 金開南도 이 무렵 인근읍으로부터 무기와 군수물자를 적극적으로 끌어 모았고,<sup>35)</sup> 9월 26일에는 孫化中도 통문을 돌려 인근 농민군을 광주에 결집시켜 전봉준에 호응하였다.<sup>36)</sup> 농민군의 재기병 준비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 2) 남·북접 연합과 봉기의 확산

전봉준의 재기포 결정이 북접과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지만,<sup>37)</sup> 전봉준은 北接과의 연합을 이끌어 내기 위해 북접에 함께 기포할 것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동학교단층의 영향을 강하게 받던 충청도 지역에서도 이미 1894년 3월 20일의 茂長起包를 전후한 시기부터 동학교도들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된 바 있다. 5월, 6월에 들어 민보군의 활동과 관군의 반격, 교단지도부의 기포 금지지시 등으로 소강상태를 맞았으나, 7월 초부터는 사실상 기포단계에 들어갈 만큼 다시금 활발해졌고, 곳곳에서 교단층의 태도에

33) 《駐韓日本公使館記錄》1(國史編纂委員會, 1986), 129~130쪽.

《駐韓日本公使館記錄》8, 51쪽.

34) 金允植, 《續陰晴史》上, 9월 18日(國史編纂委員會, 1960), 340쪽.

35) 《駐韓日本公使館記錄》1, 129~130쪽.

《駐韓日本公使館記錄》8, 51쪽.

36) 朴冀鉉, 〈日史〉, 甲午 9월 23日(《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7, 1996), 485~486쪽.

37) 〈全珠準供草〉, 343쪽.

반발하는 지도자들이 나타났다. 7월부터 다시 농민군의 활동이 활발해진 데는 충청도가 조선 왕조정부의 요청을 받고 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출병한 청나라 군대가 상륙한 곳으로 청일전쟁의 최초의 전장이었다는 사실과 깊은 관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충청도 농민군은 각지에서 양반가를 공격하는 등 雪憤行爲를 하거나 일부지역에서는 농민군집강소를 설치하고 개혁활동을 시도하는 한편 ‘斥化學義’를 주장하는 등 반일구호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7월 이후 전개된 충청지역 농민군의 활동은 중앙정국과 청일전쟁의 동향을 살피며 기본적으로는 관민상화의 질서 속에서 개혁활동을 추진하고자 하였던 전라도 지역 농민군의 활동양상과는 대조되는 것이다. 조정에서는 7월 9일 鄭敬源을 湖西宣撫使에 임명하여 호서지역을 순행하며 농민군을 귀화시키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 동학교단은 충청각지의 접주급 인물을 집강으로 임명하여 교도들의 기포와 설분행위를 급단하는 등 조정의 대책에 호응하였다.<sup>38)</sup>

7, 8월에 걸쳐 교도들에게 官습에 복종하고 교도 가운데 侵勒하거나 掘塚, 錢財 강탈 등을 자행하는 자가 있으면 교단에 알리거나 관에 고발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通諭文을 잇따라 내렸다.<sup>39)</sup>

교단측이 농민군의 봉기를 급압한 것은 관군으로부터 무차별적인 탄압을 받아야 했던 교도들이나 기포를 주장하는 접주들로부터 반발을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충청지역의 농민군이 남접에 호응하여 전면적으로 기포하는 데 커다란 제약요인이 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전봉준과 서장옥은 재기포를 결심한 뒤 북접에도 함께 기포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북접의 통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북접은 9월에도 전봉준과 徐璋玉이 “倡義를 빙자하여 평민을 침학하고 도인을 죽이는 것이 끝이 없다”고 비난하며, 남접을 토벌하라는 통유문을 돌린 바 있다.<sup>40)</sup> 또 같은 9월에 관청과

38) 배항섭, <충청지역 동학농민군의 동향과 동학교단-《洪陽紀事》와 《錦藩集略》을 중심으로-〉(《百濟文化》23, 1994); <충청도지역 東學農民戰爭과 農民軍指導部の 성격〉(《동학농민전쟁과 농민군 지도부의 성격》, 서경출판사, 1997), 44~50쪽 참조.

39) <天道敎會史草稿〉(《東學思想資料集》壹), 458~460쪽.

40) <天道敎會史草稿〉(《東學思想資料集》壹), 461쪽.

일본군병참소에까지 전봉준과 서장옥이 “북적을 끼고 때를 틈타 함께 일어나려 했지만, 북적은 스승의 훈계를 각별히 따라 굳게 거절하고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며 북적을 남적과 차별화하고자 하는 글을 보냈다.<sup>41)</sup>

전봉준 등의 기포 동참요청에 대해 북적에서는 “남적을 토벌하라”는 극언까지 불사하며 반대하였으나, 이미 7월, 8월에 걸쳐 충청도와 경상도 등지에서는 교단의 지시를 무시하고 기포하는 동학교도가 점증하였고, 사실상 기포 상태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농민군의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북적 산하의 접주들이나 농민군들이 이미 교단의 통제 밖에 있었음을 보여 준다. 또 측근들마저 동학교도들이 무고하게 살상당하는 참상을 보고하자, 드디어 9월 18일 崔時亨은 각포의 접주들을 청산에 불러 모으고 “교도들을 동원하여 전봉준과 협력하여”<sup>42)</sup> “先師의 宿冤을 快伸하고 宗國의 急難에 同赴” 할 것을 지시하였다.<sup>43)</sup> 함께 기포하자는 전봉준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북적에서도 法所와 都所를 倡義所로 개칭하였으며, “우리 접주들은 힘을 합하여 倭賊을 쳐야겠다”는 통문을 돌리고 반일항쟁에 동참하게 된다.<sup>44)</sup> 북적은 산하 각 지역에 기포령을 내렸으며, 이 무렵부터 각지에서 농민군들이 본격적인 기포를 시작하였다.

영동지역에서는 일본군이 대구에 들어오고, 성환전투에서 청나라가 일본에 패하였다는 소문이 난 다음인 7월 12일 무렵부터 활동하고 있던 농민군이 9월 26일 정식으로 기포하였다.<sup>45)</sup> 홍주·예산·서산·태안 등지에서도 이미 7월 초순부터 농민군들이 사방에서 일어나 활동하고 있었으며,<sup>46)</sup> 홍주목사 이승우의 농민군 진압에 대응하여 대대적인 기포준비를 하고 있다가 9월 30일 북적으로부터 기포령이 떨어진 이후에 정식으로 기포하였다.<sup>47)</sup>

충청도와 마찬가지로 북적 영향하에 있던 경상도 지역에서도 지역에 따라

41) <侍天教歷史>(《東學思想資料集》參), 625쪽.

42) <天道教創建史>(《東學思想資料集》貳), 155쪽.

43) <天道教會史草稿>, 461쪽.

44) 《駐韓日本公使館記錄》1, 173쪽.

45) <記聞錄>(《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11), 554~564쪽.

46) <洪陽紀事>(《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9), 96쪽.

47) <昌山后人 曹錫憲歷史>(《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10), 130~132쪽.

서는 이미 3월 말부터 동학교도들의 활동이 활발해졌으며, 일본군의 경복궁 강점이 알려진 6월 말부터 활동이 격화되었다. 이어 8월에는 성주·예천 등지에서 농민군이 읍내를 공격하는 사실상의 기포가 이루어졌으며, 일본을 적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병참대의 일본군과 전투가 벌어지기도 했다.<sup>48)</sup> 김산지역 역시 3월 말부터 지주양반층은 농민군들로부터 시달림을 받고 있었으며 농민군은 8월 초부터는 곳곳에 모여 반관·반부민투쟁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었으나, 9월 25일 교단으로부터 기포하라는 통문이 도착하자 정식으로 기포하였다.<sup>49)</sup>

이에 따라 9월 하순이 되면 義兵이라 칭하며 국왕의 명에 항거하는 농민군의 봉기가 전라도와 충청도, 경상도 뿐만 아니라 강원도와 경기도, 황해도 등으로 확산되었고 평안도에서도 반일투쟁 양상이 전개되었다.<sup>50)</sup>

### 3) 관군 및 일본군의 남하

이미 9월 초부터 농민군이 서울로 쳐들어 온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경기도 죽산과 안성에서도 동학농민군의 봉기가 일어나자 조정에서는 이들에 대한 본격적인 진압대책을 마련하였다. 9월 10일에는 壯衛營 領官 李斗璜과 經理廳 領官 成夏泳 등 무관들을 죽산부사와 안성군수에 임명하였고, 9월 21일에는 兩湖巡撫營을 설치하고 申正熙를 都巡撫使로 삼았다. 이어 이두황을 순무영 右先鋒, 별군관 이규태를 左先鋒으로 임명하였다.<sup>51)</sup> 또 전국 각지에 召募使와 討捕使 등을 임명하거나 파견하였다.<sup>52)</sup> 충청감영으로부터 농민군 수만 명이 병영을 공격하여 감영이나 병영의 병력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다는 급보가 날아들자 9월 28일 순무영에 증원군을 파견하도록 명령

48) 中榮祐, 《甲午農民戰爭과 嶺南保守勢力의 對應》(延世大 博士學位論文, 1991), 59~91쪽 및 이 글의 주 57)참조.

49) 《歲藏年錄》(《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2), 256~260쪽.

50) 《日省錄》, 고종 31년 9월 24일~26일; 〈甲午實記〉, 《東學亂記錄》上, 35쪽. 각 지역별 농민군의 활동에 대한 최근의 연구로는 한국역사연구회, 《1894년 농민전쟁연구》4, 1995 참조.

51) 《東學亂記錄》上, 220쪽.

52) 《日省錄》, 고종 31년 9월 25일~29일.

하였다.<sup>53)</sup> 9월 29일에는 더 이상 선무만으로는 농민군의 봉기를 진정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여 양호선무사 직함을 없앴으로써 오로지 무력진압정책을 펴기로 결정했다.<sup>54)</sup>

순무우선봉 이두황은 장위영 병대 4개 소대를 이끌고 9월 20일<sup>55)</sup> 서울을 출발, 용인을 거쳐(21일) 죽산에 도착하여(22일) 용인·죽산·이천·진천 등지의 농민군을 진압하다가 10월 9일 죽산을 출발하여 남하하였다. 음죽(9일)－음성(10일)－청안(11일)－청주 쌍교동(12일)을 거쳐 10월 13일 청주성에 입성한 이두황은 성하영의 경리청군 및 일본군 白木誠太郎 중위, 宮本竹太郎 소위와 합류하여 일본군의 지휘를 받게 되었다. 13일부터 15일까지 경리청군, 진남영병과 함께 보은 장내리 등을 수색하던 이두황은 16일 회인에 도착하였다. 이두황은 17일 아침 충청감영으로부터 전라도 지역의 농민군이 북상하여 노성·논산 등지에 진을 치고 있으니 급히 공주로 오라는 전령을 받고 공주를 향해 떠났다. 공주 접경인 부강점(17일)－연기 봉암(18일)을 거쳐 19일 유성에 도착한 이두황은 10월 20일 청주병영으로부터 목천 세성산에 농민군이 진을 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목천으로 향하였다. 천안－廣(松)亭(20일)을 거쳐 21일 세성산에 도착한 이두황은 그 곳에 진을 치고 있던 농민군과 접전하였다.

세성산성은 감영과 병영이 있던 공주와 청주 사이에 위치한 요충지로 서울로 통하는 길목이었을 뿐만 아니라 남하하는 관군의 배후를 위협할 수도 있는 지점이었다. 그러나 이두황은 세성산이 가지는 이러한 지리적 중요성 뿐만 아니라 세성산의 농민군을 격파함으로써 선봉진 병사들의 사기를 올리고, 농민군의 기세를 꺾음으로써 장차 전개될 농민군과의 전투에서 승기를 다져보자는 의도에서 공주로 급히 올라오라는 통보에도 불구하고 세성산 공격을 감행한 것이다. 전투는 10월 21일 벌어졌다. 3,000여 명의 농민군은 삼면이 깎아지른 듯한 험준한 산세를 이용하여 관군의 공격에 맞섰으나 결국 농민군은 대장 김복용이 체포되어 참수되는 등 17명의 전사자를 내고

53) 《日省錄》, 고종 31년 9월 28일.

54) 《啓草存案》, 고종 31년 9월 29일.

55) 《舊韓國官報》1(亞細亞文化社, 1973), 開國 503년 9월 19일, 520쪽.

패하여 달아났다. 세성산 인근의 농민군을 추적하여 진압하던 이두황은 10월 26일 세성산을 출발, 봉암을 거쳐(26일) 10월 27일 공주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공주에 도착한 직후 예산·서산·태안·해미 등지의 위급함을 보고 받고 10월 29일 장위영병을 이끌고 예산지역으로 출발하여, 광정(29일~11월 2일)-온양(3일)-신창(4일)-예산(5일)-해미(6일-8일)를 거쳐 11월 9일 홍주에 도착하였다.<sup>56)</sup>

이규태는 교도중대와 통위영 2개 중대를 이끌고 10월 10일 서울을 출발하였다. 교도중대는 경성에 있던 일본군 후비18대대의 히라키(白木) 중위와 미야모토(宮本) 소위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sup>57)</sup> 이들은 과천(11일)을 거쳐 수원에 도착한 뒤(12일~17일) 17일 양지에서 일본군 서로분진대와 합류하여 진위로 갔다. 18일 진위에서 일본군은 2개의 枝隊로 나누어 하나는 안성 쪽으로 가고, 다른 하나는 일본병 87명과 대관군 43명을 거느리고 평택~아산 등지로 향발하였고, 이규태는 성환(18일)을 거쳐 천안으로 곧장 남하하여 19일 천안에서 일본군과 합류하였다. 22일까지 천안에 체류한 뒤 廣亭(23일)을 거쳐 10월 24일 공주에 도착하였다.<sup>58)</sup>

이밖에 성하영은 9월 24일 안성군수로 부임,<sup>59)</sup> 그곳의 농민군을 진압한 후 경리청 영관 구상조와 함께 경리청병 3개 소대를 이끌고 청안을 거쳐 10월 10일 청주로 가서 주둔하다가, 12일 이두황군과 합류한 뒤 회인·毛老院을 거쳐 19일 공주에 도착하였다.<sup>60)</sup> 안성군수 홍운섭이 이끄는 경리청군 1개 소대는 10월 16일 안성을 출발 천안을 거쳐 19일 공주에 도착하였다.<sup>61)</sup> 10월 27일 현재 공주에 주둔중인 경군은 장위영 850명(領官 이하 병정 692명, 書記

56) <兩湖右先鋒日記>·<巡撫先鋒陣營錄>(《東學亂記錄》上); 《東學亂記錄》下, 14~20쪽 등에서 정리.

57) 《駐韓日本公使館記錄》1, 152쪽.  
《駐韓日本公使館記錄》3, 378쪽.

58) <先鋒陣日記>, <巡撫先鋒陣營錄>(《東學亂記錄》上); <先鋒陣呈報牒>(《東學亂記錄》下)에서 정리.

59) 안성군수는 9월 30일 홍운섭으로 교체되었고, 성하영은 10월 11일 서산군수로 임명되었다.

60) 《東學亂記錄》上, 262·270·384·421·427쪽.  
《駐韓日本公使館記錄》3, 302쪽.

61) 《東學亂記錄》上, 419쪽.

이하 군무요원 158명), 경리청 560명, 통위영 250명 등 1,660여 명이였다. 이 가운데 장위영 병대는 예산·덕산·홍주·해미 등지의 농민군이 창궐하므로 내포지역으로 이동하여 일본군과 함께 그 지역의 농민군을 초토하라는 지시를 받고 10월 29일 공주를 출발하여 홍주로 향하였다.<sup>62)</sup>

한편 8월 16일 벌어진 평양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청일전쟁의 승기를 잡은 일본은 본격적인 내정간섭을 시작하였으며,<sup>63)</sup> 농민군 진압에 일본군을 직접 투입하기 시작하였다. 7월 초순부터 전선과피 등 조선인들의 반일투쟁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sup>64)</sup> 8월 24일 무렵에는 전라도·충청도·경상도에서 농민군이 봉기하여 서울로 침입한다는 풍설이 나돌았다. 또 8월 25일·26일에는 태봉·용궁 등에서 일본군이 공격을 당하여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은 이미 8월 24일 이전부터 조선정부는 힘이 없어 이들을 진압할 수 없으며, 이들 지역으로부터 조세를 징수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이익에 방해가 되므로 일본군 1개 소대와 순사 30명을 조선정부에 빌려주어 농민군을 진압할 필요가 절실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어 8월 28일 외무대신 무츠(陸奥宗光)는 부산항에 주둔중이던 일본군 1개 소대를 태봉·문경 지역으로 파견하도록 하였고, 9월 4일 이전에 부산에 주둔중이던 2개 중대가 두 차례로 나누어 파견되었다.<sup>65)</sup>

그러나 농민군의 봉기가 각처에서 이어지자 9월 9일 일본공사 오오토리(大鳥圭介)는 외무대신 무츠에게 일본군을 동원하여 본격적으로 농민군 진압 태세를 취하는 것이 좋겠다고 상신하였다. 또 늦어도 9월 15일 이전에 조선정부는 농민군 진압을 위해 일본군대를 파견해 줄 것을 일본에 공식 요청하였으며,<sup>66)</sup> 9월 18일 일본은 일본군 약간을 파병하여 조선군을 도와 농민군을 진압하고 싶다고 하여 승낙의 뜻을 전하였다. 조선정부가 9월 18일에 있었던 일본측의 제의를 공식 수락한 것은 9월 21일이였다. 이어 9월 27일 새로 부

62) 《東學亂記錄》上, 298쪽; 《駐韓日本公使館記錄》1, 246~247쪽.

63) 《駐韓日本公使館記錄》2, 232~233쪽.

64) 《駐韓日本公使館記錄》3, 333·335쪽.

65) 《駐韓日本公使館記錄》3, 272~279쪽; 〈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 所藏文書〉(《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19), 342~349쪽, 412·419쪽.

66) 《駐韓日本公使館記錄》3, 353쪽.

임한 일본공사 이노우에(井上馨)는 9월 28일 대본영에 농민군 진압을 위한 1개대대 병력의 파견을 요청하였다. 9월 21일 본격적인 농민군 진압계획을 세운 대본영은 10월 2일 대대장 미나미(南小四郎)의 인솔하에 일본 후비보병 독립 제19대대를 출발시켰다.<sup>67)</sup>

그러나 일본은 이보다 앞선 9월 17일 농민군 진압을 위해 일본군을 남하시키기로 결정하였고, 19일에는 2개 소대를 남하시켰다. 1개 소대는 原田 소위가 이끌고 용인·죽산을 거쳐 충주 지방으로, 1개 소대는 鈴木 特務曹長이 이끌고 수원·진위·천안을 거쳐 공주로 가도록 하고, 후자는 다시 두 개의 대로 나누어 하나는 아산·평택·홍주로 향하게 할 예정이었다.<sup>68)</sup> 이에 따라 9월 27일 인천수비대 소속 1개 소대(49명) 병력을 原田常入 소위 인솔하에 남하시켰다.<sup>69)</sup> 이들은 인천-수원을 거쳐 10월 5일 충주에 도착하였다. 10월 6일 原田常入 소위가 2개 분대를 이끌고 괴산지역을 정찰하던 중 농민군 200여 명과 조우하여 전투를 벌인 결과 原田 소위 이하 4명이 부상하고 1명이 즉사하자,<sup>70)</sup> 용산수비대 대대장 飯森이 1개 소대, 인천수비대 소속의山村대위가 2개 분대를 이끌고 각기 10월 7일과 10월 9일 충주로 증파되었다.<sup>71)</sup> 이들은 합류하여 10월 14일부터 충주·괴산·청산·보은 등을 수색한 후 山村은 10월 말 용산과 인천으로 복귀하였다.<sup>72)</sup>

한편 10월 2일 일본에서 출발한 일본군 후비보병 독립 제19대대의 본부 및 제1, 2중대는 10월 9일, 제3중대는 13일 인천에 도착하였다.<sup>73)</sup> 이들은 14일 용산에 집결하였고, 10월 15일에서 17일 사이에 농민군 진압을 위해 남하하였다.<sup>74)</sup> 10월 19일에는 용산수비대 1개 중대가 뒤따라 출발하여 동로분진대와 합류하였다.<sup>75)</sup>

67) 鄭昌烈, 《甲午農民戰爭研究》(延世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1), 244~247쪽 참조.

68) 《駐韓日本公使館記錄》 3, 284~289쪽·355~356쪽; 5, 64쪽.

69)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43~145쪽.

70) 《駐韓日本公使館記錄》 3, 297쪽; 6, 91쪽.

71) 《駐韓日本公使館記錄》 3, 297쪽; 1, 217쪽.

72)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218~220쪽.

73) 《駐韓日本公使館記錄》 3, 249쪽, 369~373쪽.

74) 《駐韓日本公使館記錄》 6, 60쪽; 3, 249쪽.

75) 《駐韓日本公使館記錄》 3, 300~301쪽.

일본공사 이노우에는 미나미가 인솔한 제19대대가 인천에 도착한 10월 9일에 조선의 외무대신 金允植에게 서한을 보내 앞으로 농민군 진압에 임하는 조선군과 각 지방관에게 일본군 장교의 지휘를 따르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sup>76)</sup> 또 10월 13일 인천병참사령관 육군포병중좌 이토오(伊藤祐義)는 후비보병 독립 제19대대가 남하하기에 앞서 일본공사 이노우에에게 농민군 진압계획을 보고하였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충청·전라 각지 東學黨의 근거지를 剷節하라.
2. 조선정부의 요청에 의해 후비보병 제19대대는 다음과 같은 세 개의 길로 分進하여 조선군과 협력, 沿道에 있는 동학당을 격파하고 그 화근을 剷滅함으로써 동학당이 다시 흥기하는 후환을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두머리로 인정되는 자는 체포하여 경성 공사관으로 보내고, 동학당 거물급 간의 왕복 문서, 혹은 정부내부의 관리나 지방관, 또는 유력한 측과 동학당 간에 왕복한 문서는 힘을 다해 수집하여 함께 공사관으로 보내라. 이번 동학당을 집압하기 위해 파견된 조선군 각 부대의 진퇴와 調達은 모두 일본군 士官의 명령에 따르게 하고, 일본군법을 지키게 하며 만일 군법을 위배하는 자가 있으면 군율에 따라 처리하기로 조선정부로부터 조선군 각 부대장에게 이미 하달되었다.
3. 보병 1개 중대는 西路, 즉 수원·천안 및 공주를 경유, 전주부 街道를 전진하여 그 진로 좌우의 驛邑을 정찰하라. 보병 1개 중대는 中路, 즉 용인·죽산·청주를 경유, 성주 가도로 전진하여 그 진로 좌의 역읍을 정찰하라. 보병 1개 중대는 東路(일본병참선로), 즉 가흥·충주·문경 및 낙동을 경유, 대구부 가도로 전진하여 그 진로 좌우의 역읍을 정찰하라. 본부 중대는 중로 분진대와 함께 행진하라.
4. 동로 分進中隊를 조금 먼저 가게 해서 匪徒를 동북쪽에서 서남쪽으로, 즉 전라도방면으로 내몰도록 힘써야 한다. 만일 비도들을 강원도와 함경도 쪽, 즉 러시아 국경에 가까운 곳으로 도피케 하면 적지 않게 후환이 남을 것이므로 엄밀히 이를 예방해야 한다.<sup>77)</sup>

이노우에 공사가 직접 나서서 진두 지휘한 일본군의 농민군 진압 계획의 요체는 농민군을 서남방 전라도 해안쪽으로 몰아넣은 다음 함세하여 초멸하는 데 있었다. 이를 위해 서·중·동 세 갈래로 나누어 남하하되 동로분진대

76)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50쪽.

77)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53~156쪽 ; 5, 67~68쪽.

에 1개 중대를 증원하고 증로, 서로분진대보다 빨리 남하하도록 하여 강원도와 경상도의 농민군을 전라도쪽으로 내몰도록 한 것이다.<sup>78)</sup>

농민군진압에 투입된 일본군의 규모는 ①미나미少佐가 이끄는 3개 중대로 이루어진 후비보병 독립 제19대대 ②충주 방면의 원군으로 서울에서 내려온 후비 제18대대 제1중대 ③홍주 방면의 원군으로 용산, 인천에서 온 후비 제6연대 제6중대 ④전라도 남부지방의 원군으로 부산에서 온 후비 제10연대 제4중대 등이 있고 ⑤황해도 방면에도 평양으로부터 후비 제6연대 제4중대 ⑥용산으로부터 파견된 후비 제6연대 제7중대(일부) ⑦황주에서 파견된 후비 제6연대 제8중대(일부) 등 모두 9개 중대였다. 청일전쟁 시기에 1개 중대는 221명 내지 198명으로 구성되었고, 또 일부는 결원이 있음을 감안할 때, 농민군 진압에 투입된 일본군은 약 1,900여 명에 이르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sup>79)</sup>

이 가운데 西路, 즉 수원·천안을 거쳐 공주로 진격하게 되어 있던 서로분진대(중대장, 森尾 대위)는 과천(17일)을 거쳐 18일 진위에서 예산지역의 농민군세력이 거세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2개대로 나누어 본대(2개 소대와 2개 분대, 약 125명)는 공주로 남하하고, 枝隊는 예산으로 향하였다. 공주로 남하한 본대는 양성(18일)－직산(19일)－천안(20~22일)－덕평(23일)을 거쳐 10월 24일 공주에 도착하였다.<sup>80)</sup> 9월 말에 1개 소대를 이끌고 서울서 출발한 스즈키(鈴木) 特務曹長은 수원·진위·천안을 거쳐 10월 8일 이전에 이미 공주감영에 도착하여 그 곳의 조선군병들을 훈련시키며 주둔하고 있었다. 스즈키는 10월 9일 이토오(伊藤) 兵站監을 통해 보은·괴산지역의 농민군을 정찰하고, 곧 파견할 군대가 도착할 때까지 임기응변하며 청주로 가서 주둔하라는 이노우에 공사의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전봉준이 충청감사에게 글을 보내면서 공주지역의 정세가 긴급해진 직후인 10월 18일 공주에 남아서 방어하겠다고 요청하여 10월 28일 승낙받았다.<sup>81)</sup>

78)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301~302쪽 ; 5, 65~66쪽.

79) 趙景達, 《異端の民衆反亂 : 東學と甲午農民戰爭》(岩波書店, 東京, 1998), 305쪽 참조.

80) 《駐韓日本公使館記錄》 6, 60~68쪽.

81)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69·174쪽 ; 3, 367·382쪽.

남하 도중 진위에서 서로분진대와 갈라져 해미지역으로 간 枝隊는 아카마쓰(赤松國封) 소위가 인솔하였으며 인원은 1개 소대와 2개 분대, 그리고 조선 관군 34명이었다. 이 지대는 평택-아산(19일)-신창(21일)-예산(22일)-면천(23일)을 거쳐 24일 해미에 도착하였으며, 농민군 1만 5,000여 명과 승전곡에서 접전한 후 덕산으로 들어갔다.<sup>82)</sup> 이어 25일에는 홍주로 퇴각하였으며, 농민군의 세력이 예상외로 크자 10월 27일 홍주에서 인천 병참부로 지원군을 요청하였다. 28일에는 내포지역 최대의 전투였던 홍주성전투가 28일 오후부터 29일까지 계속되었다. 이 전투에 가담한 관군 및 일본군은 2,000여 명이였다. 이때 농민군은 3만여 명이나 되었으나 크게 패하여 해미쪽으로 퇴각하였다. 이후 농민군은 해미 등지에서 일본군 및 관군, 민보군과 수 차례 접전하였으나 패배하여 많은 사상자를 남긴 채 각지로 흩어지고 말았다.

후원병인 인천 항구수비대 1개 소대와 용산주재 2개 소대는 후비보병 제6연대 제6중대장인 야마무라(山村) 대위의 인솔하에 11월 3일 오후 7시 인천을 출발하여 11월 5일 새벽 아산현에 상륙하였으며, 신창·신례원을 경유하여 11월 7일 오후 홍주에 도착하였다. 홍주 지역의 농민군의 세력이 약해지자, 11월 8일 후원병력만 홍주에 남고 아카마쓰 소위는 자신이 인솔하던 일본군 1개 소대와 2개 분대, 조선관군 34명을 이끌고 공주로 출발하였다.<sup>83)</sup>

후원병은 사이토(齋藤) 소위에게 1개 소대와 민보군 300명을 내주어 해미·서산·태안을 수색하게 하고, 11월 12일 해미를 거쳐 인천으로 귀환 예정이었다. 그러나 11월 11일 홍주목사 李承宇로부터 한산 남포 지역에 농민군 수천 명이 활동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인천 귀환을 연기하고 한산으로 척후를 파견하고, 사이토 소위에게는 홍주로 복귀할 것을 지시하였다. 정탐 결과 한산 남포 등지 농민군 세력이 과장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한 야마무라대위는 11월 13일 홍주로 복귀한 사이토와 함께 11월 14일 홍주를 출발, 태안(15일)·서산(16일)·덕산(17일)의 농민군 잔여세력을 진압하면서 수원을 거쳐 11월 23일 인천으로 복귀하였다.<sup>84)</sup>

82)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206~208쪽 ; 6, 63~64쪽.

83)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206~208쪽, 211쪽, 222~233쪽 ; 3, 311·317쪽.

84)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233~239쪽.

이상으로 볼 때 공주전투가 벌어질 당시 공주감영에는 서로분진대 가운데 홍주 방면으로 빠져 나간 1개 소대와 2개 분대를 제외한 제2중대 병력과 스즈키(鈴木) 소위가 이끌고 와 있던 1개 소대 등 3개 소대와 2개 분대 병력(약 175명)이 주둔해 있었다.<sup>85)</sup>

#### 4) 농민군의 복상과 공주전투

삼례에 대도소를 설치하고 재기병을 준비하던 전봉준은 1개월이 지나도록 삼례에 머물러 있었다. 그것은 전봉준에게 병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9월 초에 재기포를 결심할 때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남겨져 있던 두 가지 문제, 즉 추수가 끝나지 않아 군량과 농민군을 동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점, 농민군의 현실적인 역량이 취약하였다는 점과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봉준은 추수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한편, 각지에 통문을 띄워 함께 기포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 전라 각지 邑鎭의 무기고를 탈취하여 무장력을 강화한 농민군은<sup>86)</sup> 추수가 거의 끝날 무렵인 10월 12일 경 복상을 개시하였다.<sup>87)</sup> 이때는 이미 관군과 일본군의 무력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다음이었다.

복상에 앞서 전봉준은 농민군의 군수품 조달을 위해 충청 각 고을에도 장차 서울로 갈 계획이므로 군량을 준비해 둘 것을 요청하는 통문을 보낸 바 있다.<sup>88)</sup> 복상 당시 농민군은 약 4,000명이었고 이들은 주로 전라우도의 농민군이였다. 순화중과 최경선도 원래는 공주로 함께 복상하려 하였으나 일본군

85) 《駐韓日本公使館記錄》1, 246~247쪽. 서로분진대에 앞서 공주에 도착하여 주둔하고 있던 스즈키(鈴木)는 서로분진대가 10월 24일 공주에 도착하자 곧바로 공주를 떠난 것으로 기록된 자료도 있으나(《公山剿匪》)(《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2, 421쪽), 스즈키는 우금치 전투에 참여한 것이 확실하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1, 247쪽).

86) 9월 중순무렵 전라 각지 邑鎭 가운데 농민군에게 무기를 탈취 당한 곳은 29개 지역이었다(《啓草存案》, 고종 31년 9월 17일).

87) 전봉준은 삼례에서 재기한 날짜가 10월 12일이라고 진술하였고(《全捧準供草》, 368쪽), 삼례를 출발하여 논산에 도착한 날은 12일이었다(《東學亂記錄》下, 382쪽).

88) 주) 34와 같음.

이 바다를 통해 내려 온다는 정보를 접하자 이에 대비하기 위해 광주로 내려가 주둔하기로 했다. 전봉준은 김개남에게도 함께 출전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김개남은 49일을 채워야 한다는 참위설을 내세우며 남원에 머물렀다.<sup>89)</sup>

한편 9월 18일을 기해 기포를 결정한 북접 동학교단은 산하의 각지 접주들에게 동원령을 전달하는 한편, 10월 2일에는 청산에서 대규모 대회를 개최하여 전열을 정비하였다.<sup>90)</sup> 북접에서는 청산대회의 소식을 늦어도 10월 11일에는 전봉준에게 통보하였으며,<sup>91)</sup> 대회를 마친 다음 남접세력과 합세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sup>92)</sup> 재기포를 결심하고서도 한 달여 동안 삼례에 머물며 무장을 강화하고 있던 전봉준이 10월 2일 무렵에 복상을 개시한 것은 이 무렵 북접으로부터 청산대회에 대한 통보를 받았다는 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전봉준이 이끄는 농민군이 복상을 시작하여 논산에 도착한 것은 10월 12일이었다.<sup>93)</sup> 여기서 전봉준은 다시 농민군을 초모하였다. 삼례에서 복상하는 과정에서 농민군의 수는 불어났으며, 10월 12일부터 16일 사이에는 손병희가 이끌고 온 북접의 농민군과 논산에서 합세함으로써 논산에서 공주로 진격할 때에는 1만여 명으로 불어나 있었다.<sup>94)</sup>

복상하는 농민군의 일차 공격목표는 충청감영이 있는 공주였다. 공주는 서울로 통하는 길목이자 삼면이 산으로 둘러쳐 있고, 북쪽으로는 금강이 흐르는 천혜의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일본군 소위 스즈키(鈴木)도 후비 19대대장 미나미에게 “공주를 동학도에게 넘겨주게 되면 사방의 동학도가 금방 봉기해서 견잡을 수 없는 사태가 될 것”이다라고 하여 공주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였다.<sup>95)</sup> 이 때문에 전봉준은 공주성을 점령하여 지키면 일본

89) 《全琿準供草》, 325~326쪽, 375쪽; 〈梧下記聞〉, 253쪽.

90) 《東學亂記錄》上, 276·279·407쪽.

91) 《東學亂記錄》下, 382쪽.

92) 10월 16일 일본군은 보은에서 체포한 농민군으로부터 “최시형은 14일 청산으로 갔으며, 그곳에서 15, 16일에 걸쳐 2만여 명의 농민군을 규합한 후 황간·영동을 경유하여 진주로 가서 전봉준과 합세할 계획이라”는 진술을 받아냈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1, 219쪽).

93) 《東學亂記錄》下, 382쪽.

94) 《全琿準供草》, 324·377쪽; 〈判決宣告書原本〉(《東學關聯判決文集》, 政府記錄保存所, 1994), 30쪽; 《駐韓日本公使館記錄》8, 51쪽.

95) 《駐韓日本公使館記錄》1, 174쪽.

군이 쉽게 공격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공주성을 점령한 후 일본군과 담판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sup>96)</sup>

공주공격을 앞둔 전봉준은 남북접 농민군이 합세한 직후인 10월 16일 兩湖倡義軍領袖의 자격으로 골육상쟁을 피하고 항일전선을 강화하기 위해 관군의 동참을 촉구하는 글을 충청감사 박제순에게 보냈다.

〈全琫準上書〉

兩湖倡義軍의領袖 全琫準이 삼가 湖西巡相 閣下에게 글을 올립니다.

(중략)일본 오랑캐(日寇)가 분란을 야기하고 군대를 출동하여 우리 국왕을 꺾박하고 우리 백성들을 뒤흔들어 놓았으니 어찌 차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 임진왜란 때 오랑캐가 왕릉을 능멸하고 궁궐을 불태웠으며, 국왕과 우리 부모들을 능욕하고 백성들을 살륙하여 臣民들의 公憤을 샀으니 千古에 있지 못할 원한입니다. (중략)지금 朝廷의 大臣들은 망령되어 자신의 몸만 보전하고자 위로는 국왕을 협박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속이며 東夷와 내통하여 남쪽 백성들의 원망을 사자 親兵을 妄動하여 先王의 赤子들을 해치고자 하니 실로 무슨 뜻이며, 마침내 무슨 일을 저지르려는 것입니까. 금일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바는 실로 그것이 지극히 어렵다는 사실을 알지만, 一片丹心은 죽음과도 바꿀 수 없으며, 人臣으로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掃除하여 先王朝가 五百年 동안 遺育해준 은혜에 보답코자 하니, 엎드려 원컨대 閣下도 깊이 반성하여 죽음으로써 義를 함께 한다면 千萬 다행일 것임.

갑오 10월 16일  
在論山謹呈<sup>97)</sup>

전봉준은 논산에서 10여일 이상 체류하였다. 박제순에게 동참을 촉구하는 글을 띄우고서도 1주일 이상을 더 머물렀다. 이것은 농민군의 역량을 최대화하려는 의도였으며, 아직 농민군의 역량이 취약하였음을 말한다. 그러나 손병희가 이끄는 북접의 농민군과 합류한 이후부터 전봉준은 공주공격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다. 10월 19일 무렵에는 은진·노성 사이에 농민군의 활동이 분주하였고, 노성의 창고미를 경천으로 옮기는 것이 관군에게 발견되었다.<sup>98)</sup>

96) 〈全琫準供草〉(《東學思想資料集》壹), 319~320쪽.

97) 《東學亂記錄》下, 383~384쪽.

98) 《東學亂記錄》上, 79·222·406쪽.

논산에서 북상하기에 앞서 공주전투에 필요한 군량을 미리 확보해 두려는 의도였다. 드디어 23일 밤 논산의 농민군은 공주에서 남쪽으로 30리 지점에 위치한 경천을 점령하였다. 이 무렵 북쪽에서 온 옥천포 농민군은 공주 동쪽으로 30리 떨어진 大橋에 진을 치고 있었다. 남북접이 연합한 농민군은 남쪽과 동쪽에서 공주를 협공하려는 것이었다.<sup>99)</sup> 이때부터 약 20여 일에 걸쳐 농민군과 관군 및 일본군 사이에는 공주감영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게 되며, 이 전투는 농민전쟁의 성패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sup>100)</sup>

한편 충청감사 박제순은 전봉준이 논산에서 글을 보내는 등 공주를 압박해 오자 순무영과 일본군측에 급히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관군과 일본군은 공주로 속속 이동하였으며, 농민군의 공주성 공격이 개시된 10월 24일 경에는 관군 810명, 일본군 2개 소대와 2개 분대, 약 120여 명이 공주로 집결하였다. 이외에도 감영병과 민보군이 있었을 것이나 자세한 병력수는 알 수 없다. 여기에 맞서는 농민군의 수는 많게는 4만여 명에 달하였다.<sup>101)</sup> 청주방면으로 남하하였던 교도중대와 일본군 미나미의 대대본부, 그리고 중로분진대의 일부도 공주의 위급함을 듣고 공주로 향하여 공주 동쪽으로 50여 리 떨어진 부강까지 왔다가 회덕·문의 지역의 농민군이 크게 위세를 떨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회군하여 돌아갔다.<sup>102)</sup>

99) 《東學亂記錄》上, 419·426쪽; 《東學亂日記》下, 10쪽.

100) 공주전투에 대한 최근의 연구로는 이이화, 〈전봉준, 반제의 봉화 높이들다〉(《역사비평》1990년 여름호); 韓祐勗, 《東學과 農民蜂起》(전정관, 1992; 鄭昌烈, 앞의 글, 1991; 우윤, 〈공주대회전과 최후의 항진〉(《전봉준과 갑오농민전쟁》, 1993); 愼鋪廈, 〈甲午農民戰爭의 第2次農民戰爭〉(《東學과 甲午農民戰爭》, 1993); 서영희, 〈농민전쟁의 2차봉기〉(《1894년 농민전쟁 연구》4, 1995); 양진석, 〈1894년 충청도지역의 농민전쟁〉(《1894년 농민전쟁 연구》4, 1995) 등이 있다.

101) 전봉준은 공초에서 1만여 명이었다고 진술하였으며(〈全瑤準供草〉), 10월 23일 경천으로 들어올 당시의 농민군 규모에 대해 관군측에서는 4만여 명으로(《東學亂記錄》下, 10쪽), 일본군측에서는 우금치전투 당시 농민군 규모를 2만여 명으로 각기 추산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1, 247쪽). 대교방면에 집결해 있던 농민군의 수에 대해 관군측에서는 수만 명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민간기록에는 3, 4천명으로 되어 있다[(〈若史〉)(《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2), 227쪽].

102) 《東學亂記錄》上, 456쪽.

《駐韓日本公使館記錄》1, 304쪽; 3, 310·387쪽; 6, 29쪽.

공주성을 둘러싼 최초의 전투는 10월 23일 이인에서 벌어졌다. 경천에 주둔한 전봉준은 부대를 둘로 나누어 북접계 농민군을 이인쪽으로 보내고 자신은 효포로 향하였다. 이인역에 진을 치고 있던 농민군은 10월 23일 스즈키 소위가 인솔하는 일본군 50여 명,<sup>103)</sup> 성하영의 경리청 1개 소대 병력, 구완희가 이끄는 감영병력 4개 분대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이 전투에서 농민군은 취병산까지 후퇴하였다가 다음날 이인에서 물러났으며, 관군도 감영으로 후퇴하였다. 10월 24일에는 대교까지 진격하여 진을 치고 있던 북접 옥천포의 농민군이 경리청 副領官 洪運燮의 공격을 받고 20여 명의 전사자와 6명의 생포자를 남긴 채 40, 50리 이상 퇴각함으로써 이들은 농민군본대의 공주성 공략에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2개 소대 병력을 이끌고 효포에 주둔하며 지키고 있던 홍운섭은 23일 밤 논산으로부터 경천을 향해 4만여 명의 농민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자 자신들의 형세가 위태로워질 것으로 여겨 24일 새벽에 효포의 병력을 철수하여 대교의 농민군을 공격한 것이다.

같은 날 전봉준은 효포 건너편의 산쪽에 주력부대를 배치하고 있다가 홍운섭이 이끄는 경리청군이 大橋의 농민군을 공격하려 간 사이에 효포를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성하영·백낙완이 이끄는 관군이 이들을 공격하였으며, 24일 저녁에는 공주에 막 도착한 森尾대위 인솔하의 일본군 100여 명과 이규태가 이끄는 관군이 가세하였다. 陵峙를 중심으로 농민군은 관군에 대항하며 일대 접전을 벌였다. 농민군은 일본장교가 보기에 도 방법을 아는 자가 있다 할 만큼 민첩하게 대응하며 항전하였으나, 50~70명의 전사자를 내고 건너편 時也山으로 후퇴하여 진을 치고 있다가 밤에는 경천으로 후퇴하였다. 효포에서 후퇴한 전봉준은 농민군의 전열을 가다듬기 위해 다시 노성·논산 방면으로 후퇴하였다. 논산으로 물러난 전봉준은 흩어진 병사들을 불러 모으는 한편, 각지에 원병을 요청하며 농민군을 다시 결집시켰다. 전봉준은 김개남에게도 구원을 요청하였으나,<sup>104)</sup> 김개남은 이때 청주일대를

103) 관군측 기록에 따르면 이때 공주감영에는 100명의 일본군이 있었다고 하였으나 [《東學亂記錄》上, 439쪽; <公山剿匪記>(《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2, 420쪽)], 아직 서로본진대가 도착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鈴木이 거느리는 1개소대 병력 뿐이었다.

104) <公山剿匪記>(《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2), 429쪽; <東學亂記錄》下, 309쪽.

공격하는 중이었으며 공주전투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전봉준이 삼례에서 북상할 때 함께 출전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위설을 빙자하여 남원에서 49일을 머문 김개남은 10월 14일 남원을 출발하여 북상을 시작하였다. 이때 농민군의 수는 8,000여 명이었으며, 16일 전주에 도착하였다. 22일 직전에는 삼례를 출발하여 22일 선봉대가 고산을 거쳐 금산을 점령하였다. 이후 금산은 11월 9일까지 농민군 수중에 떨어져 참혹한 보복을 당했다.<sup>105)</sup> 일본군에 밀린 김개남 부대는 5,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11월 10일 오후 2시경 鎭山 등지에서 鎭岑으로 진격하였다. 이들은 관청을 부수고 문서를 모두 불태웠으며, 창고를 털어 환곡을 탈취하는 한편, 읍내 민가를 침탈하여 재산을 빼앗았다. 이어 留鄉 및 公兄들과 邑屬들을 옥에 가두고 때려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였다. 11일 정오 무렵에는 청주로 가기 위해 懷德 新灘津을 향해 출발하였다. 13일 오전 8시경 신탄진 방향에서 진격해 간 농민군은 청주성을 공격하였으나, 淸州에 들어와 있던 일본군 및 청주병영의 관군의 공격을 받아 20여 명의 전사자를 내고 크게 패하였다. 이들은 진잠방면으로 후퇴하여 13일 밤 다시 진잠을 공격하였으나 관군에 밀려 연산방면으로 도주하였다. 14일에는 청주에서 패하여 도주한 일군의 농민군이 신탄진에 모여 있는 것이 발견되기도 했다.<sup>106)</sup>

한편 전봉준은 논산일대에서 다시 결집한 농민군이 2만여 명에 이르자 노성과 경천으로 다시 진출하여 군량을 나르고 포대를 설치하며 전투를 준비하였다. 감영에서는 일본군과 관군이 3개의 부대로 나누어, 두 부대는 판치와 이인으로 나가 주둔하고 하나는 감영에 남아 있는 방식으로 서로 순환하며 농민군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었다. 전투는 11월 8일 오후 3시쯤 시작되었다. 농민군은 두 갈래로 나누어 하나는 논산에서 곧장 고개를 넘어 오실산 옆길을 따라 이인을 향하여 공격해 왔고, 다른 부대는 노성현 뒷산과 경천쪽에서 판치와 효포를 공격하였다. 敬川에서 板峙로 진격한 농민군은 판치를

105) 鄭昌烈, 앞의 책, 259쪽; 李眞榮, 〈金開南과 동학농민전쟁〉(《한국근현대사연구》 제2집, 1995년); 김양식, 《근대 한국의 사회변동과 농민전쟁》, 1996, 347~350쪽.

106) 《東學亂記錄》上, 499쪽, 504~507쪽.  
《駐韓日本公使館記錄》1, 249~250쪽.

지키고 있던 구상조의 경리청병을 공주쪽 산 위로 밀어붙이고 효포 능치 일대의 산 위로 올라가 깃발을 꽂고 진세를 과시하며 관군과 대치하였다. 이인으로 진격한 농민군은 이인에 주둔하고 있던 성하영의 경리청군을 牛禁峙까지 후퇴시키며 공세를 펼쳤다. 이에 森尾대위가 일본군을 이끌고 와서 지원하며 맞섰으며, 성하영과 함께 이인에 나가 진을 치고 있던 백낙완은 농민군에 포위되었다가 저녁늦게야 포위망을 뚫고 감영으로 돌아왔다.

우금치가 위급해지자 11월 8일밤 森尾 대위는 우금치 옆의 가장 높은 봉우리로 올라가 진을 쳤다. 우금치 전투가 벌어진 11월 9일 아침 농민군은 동쪽으로 板峙 뒷산으로부터 서쪽으로는 鳳凰山 뒷기슭에까지 3, 40리에 걸쳐 마치 병풍을 펴놓은 듯한 진세를 펼치며 세력을 과시하고 있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관군은 金鶴洞에 통위영 대관 吳昌成과 教長 朴尙吉을, 陵峙에는 경리청 영관 洪運燮·具相祖, 대관 曹秉完·李相德 등을, 孝浦 烽燧臺에는 통위영 영관 張容鎭, 대관 申昌熙 등을, 우금치에는 성하영, 우금치 건준봉에는 백낙완을, 주봉에는 영장 이기동 등을 배치하였다. 농민군은 11월 9일 오전 10시쯤 이인에서 우금치방향과 오실 뒷산방향으로 나누어 공격하였다. 오후 8시경까지 양측은 치열한 공방전을 4, 50차례나 펼쳤다. 결과는 농민군의 패배였다. 농민군은 많은 손실을 입고 퇴각하였으며, 11일·12일 경에는 능치 등 공주 부근 산봉우리에 남아있던 농민군마저 관군에 쫓겨 계룡산 등지로 후퇴함으로써 20여 일에 걸친 공주공방전은 농민군의 패배로 끝나고 말았다.<sup>107)</sup>

### 5) 항일연합전선의 추진

우금치전투에서 패배한 농민군들은 노성에 머물면서 다시 진영을 수습하려 하였다. 농민군은 東徒倡義所의 이름으로 11월 12일 京軍과 營兵, 吏校 및 市民에게 알리는 순환글로 된 고시문을 내걸어 斥倭와 斥化를 위해 동심협력할 것을 호소하였다.

107) 공주전투의 구체적인 전개과정에 대해서는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209~210쪽, 246~248쪽; 《東學亂記錄》 上, 228~238쪽·426쪽·440~444쪽; 下, 10~22쪽·28~32쪽; 《公山剿匪記》(《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2)에서 정리.

고시경군여영병이교시민

“무타(無他)라 일본과 도선이 기국(開國) 이후로 비록 인방(隣邦)이느 누더(累代) 적국(敵國)이더니 성상(聖上)의 인후(仁厚)함을 힘입어 삼항(三港)을 허기(許開)하사 통상(通商)이후(通商以後) 감신십월의 사흉(四凶)이 협적(俠敵)하야 군부(君父)의 위타(危殆)하미 도석(朝夕)의 잇더니 종사(宗社)의 홍복(鴻福)으로 간당(奸黨)을 소멸(消滅)하고 금년늑월의<sup>108)</sup> 기화간당(開化奸黨)이 왜국(倭國)을 처결(締結)하여 승야입경(乘夜入京)하야 군부(君父)를 핍박(逼迫)하고 국권(國權)을 천즈(擅恣)하며 우황 방벽수령(方伯守令)이 다 기화중 쇼속으로 인민을 무휼(撫恤)하지 안이코 살륙(殺戮)을 조하하며 싱녕(生靈)을 도탄(塗炭)하미 이제 우리 동도가 의병을 드러 왜적을 소멸하고 기화를 제어하며 도정(朝廷)을 청평(淸平)하고 스직(社稷)을 안보홀시 미양 의병 이르는 곳의 병정과 군교(軍校)가 의리를 생각지 아니하고 나와 접전(接戰)하미 비록 승패(勝敗)는 업스느 인명이 피츠의 상하니 엇지 불상치 아니 하리요 기실은 도선기리 상전(相戰)하야 하느 비 아니여늘 여시(如是) 골육상전(骨肉相戰)하니 엇지 이답지 아니리요 또한 공주한밭(公州大田) 일로 논지하여도 비록 춘간의 보원(報怨)한 것시라하느 일이 촉혹하며 후회 막급이며 방금 더군이 압경(壓京)의 팔방이 흉흉한디 핍박도이 상전만 하면 가위 골육상전이라 일변 생각컨디 도선스람 기리야 도(道) 혹은 다르느 척왜(斥倭)와 척화(斥化)는<sup>109)</sup> 기의(其義)가 일반이라 두어즈 글로 의혹을 푸러 알게호노니 각기 돌려 보고 충군(忠君) 우국지심(憂國之心)이 잇거든 곳 의리로 도라오면 상의하야 갖치 척왜척화(斥倭斥化)하야 도선으로 왜국이 되지 안이케 하고 동심합덕하야 디스를 이루게 호올시라

갑오 십일월 십이일  
동도창의소(東徒倡義所)<sup>110)</sup>

108) 그 동안 학계에서는 ‘금년늑월’이라는 구절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개화간당이 왜국을 체결하여 승야입경하여 군부를 핍박하고 국권을 천자한” 사건은 문맥상 1894년 6월 21일 새벽에 일어난 일본군의 경복궁강점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펴낸 《東學亂記錄》에는 ‘금년십월’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창렬 교수가 국사편찬위원회에 보관되어 있는 원본 사진과 대조해 본 결과 ‘금년십월’은 ‘금년늑월’의 오키임이 밝혀졌다. 그외에도 몇 군데 자구상의 오류가 있는 부분은 밑줄로 표기해 두었다. 이 자리를 빌어 자료를 보내주신 정창렬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109) 원래 이 고시문은 순한글로 쓰여진 것이나,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활자화하면서 임의로 한문을 병기하였다. 이 과정에서 ‘척화’를 ‘斥華’로 기입하였으나, ‘斥化’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鄭昌烈, 앞의 글, 1991, 253~254쪽 참조.

110) 《東學亂記錄》下, 379~380쪽. 같은 날 농민군은 이와 비슷한 내용의 한문으로

같은 날 倡義所 명의를 한문으로 된 고시문(示京軍營兵)도 제시되었다. 그 요체는 양차에 걸친 공주전투에 대해 후회막급임을 밝히는 동시에 앞으로는 절대로 서로 싸우거나 죽이지 말고 힘을 합하여 보국안민하자는 것이었다.<sup>111)</sup>

제2차 농민전쟁, 곧 반일투쟁에서 보이는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위의 고시문에서 보이듯이 다양한 세력을 포괄하는 항일연합전선의 구축을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는 점이다. 우선 10월 16일 전봉준이 충청감사 박제순에게 올린 글이나 위의 고시문에서 강조하는 관료 및 경군·영병에 대한 합세촉구는 제1차 농민전쟁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았던 주장이다. 제1차 농민전쟁에서 농민군은 吏胥層을 끌어 들이려는 노력은 보였지만, 관료들에게는 자신들의 행동이 반역이 아니며, 어쩔 수 없이 봉기한 것이라는 점을 호소하는 정도였지, 이들을 끌어 들이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sup>112)</sup> 또 농민군은 초기단계에서는 경군과는 적대행위를 삼가는 모습을 보여 주었지만, 영병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공격하였고, 4월 23일의 장성전투 이후에는 경군과도 거리낌없이 적대하였다.<sup>113)</sup>

전봉준을 비롯한 농민군지도부는 농민전쟁에 임하기 이전부터 ‘반봉건’과 ‘반외세’의 과제를 동시에 포착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특히 전봉준은 손화중·김개남·최경선·김덕명 등 변혁지향적인 인물들 뿐만 아니라, 儒林을 비롯하여 裸負商·기름장수·鑿器장수·엿장수·술장수를 포괄하는 다양한 세력과의 연합전선을 構想하였다.<sup>114)</sup> 5월 초 청·일 양국군이 조선에 출병한 이후 일본군이 내정개혁을 강요하는 데서 나아가 경복궁을 강점하고 청일전쟁을 일으키자 ‘반외세’, 특히 反倭문제는 전봉준의 초미의 관심으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전봉준의 연합구상은 더욱 강화되어 갔다. 전봉준은 전라감사 金鶴鎭이 7월 6일 ‘共守全州 同赴國難’ 하자고 제의하자 고심 끝에 전주로 가서 전라감사 김학진과 ‘官民相和’를 맺고 함께 협력하여 국난을 극복하

된 격문 〈示京軍營兵〉을 동시에 내놓았다(《東學亂記錄》下, 185~186쪽).

111) 《東學亂記錄》下, 185~186쪽.

112) 襄尙燮, 《東學農民戰爭研究》(高麗大 博士學位論文, 1996), 104~108쪽 참조.

113) 鄭昌烈, 앞의 글, 156쪽.

114) 吳知泳, 〈東學史〉(《東學思想資料集》2, 1979), 517~519쪽; 〈東學史〉(草稿本)(《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1), 455쪽.

기로 약속하였으며, 士族이나 지주층까지도 포괄하는 ‘반외세’를 위한 ‘민족적 대연합’을 통해 광범위한 연합전선을 구축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주체적으로 연합전선을 추구하였다는 사실은 농민군의 역량이 그만큼 성장해 있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연합의 성격과 대상 면에서 제1차 농민전쟁과 제2차 농민전쟁은 중요한 차이가 있었다. 농민군의 궁극적 목표는 ‘輔國安民’으로 집약할 수 있지만, 제1차 농민전쟁 시기에는 ‘安民’을 우선과제로 삼았기 때문에 반봉건 개혁을 위한 ‘계급중심의 연합’이었다. 이에 비해 제2차 농민전쟁 시기에는 ‘輔國’을 우선과제로 삼았기 때문에 斥倭斥化 투쟁을 위한 ‘반외세 연합’으로 그 성격이 변화하였다. 이렇게 볼 때 제1차 농민전쟁에서는 기본역량을 “양반과 부호 앞에 고통받는 民衆과 方伯守令 아래서 굴욕을 받는 小吏”에서 구하였지만<sup>115)</sup> ‘반봉건’ 개혁 특히, 민씨정권의 축출이라는 면에서 농민군과 개화파와의 연합가능성이 열려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제2차 농민전쟁에서는 개화파세력이 일본과 함께 가장 주요한 타도대상이 되었다. 반면에 “조상의 뼈다귀를 우려 행악을 하여 백성의 고향을 빨아먹는” 양반·보수유생층은 제1차 농민전쟁에서는 중요한 공격대상이었지만, 斥倭斥化를 1차적 과제로 한 제2차 농민전쟁에서는 보수유생층이 중요한 연합대상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sup>116)</sup>

객관적으로도 일본군의 침략행위가 명백해진 다음이었기 때문에 1차 기포에 비해 척사적 유생층들과의 연합 가능성은 그 만큼 넓혀져 있었다. 실제로 일부 유생들 사이에서는 ‘反倭倡義’ 움직임이 일어나기도 했다. 예컨대 공주의 유생 徐相轍은 7월 2일에 안동에서 향청 명륜당에 모이라는 반외창의문을 돌렸고, 8월 초에는 집결한 의병이 2,000여 명에 달하자 태봉명참부를 공격한 다음, 청풍(9월 18일)·경기 광주 곤지암(20일) 등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치르고 곤지암쪽으로 피신하였다.<sup>117)</sup> 서상철은 위로는 縉紳으로부터 아래로는 匹夫에 이르기까지 임진왜란 때 참화를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음을 상

115) 〈東學史〉(《東學思想資料集》貳), 467~468쪽.

116) 裴克燮, 《東學農民戰爭研究》(高麗大博士學位論文, 1996), 204~213쪽 참조.

117) 金祥起, 〈朝鮮末 甲午義兵戰爭의 展開와 性格〉(《한국민족운동사연구》3, 1989), 46~53쪽; 朴宗根 著·朴英宰 譯, 《清日戰爭과 朝鮮》, 201~208쪽.

기하면서 일본이 경복궁을 강점하여 국왕과 관료들을 협박하고 군대를 쫓아낸 일은 임진왜란 때보다 더 심하다고 하였다. 또 일본은 우리 나라의 백세의 원수이며, 우리 나라 일은 우리가 자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有義君子들은 모두 무기를 들고 모이라고 촉구하였다.<sup>118)</sup>

9월 11일 전후 충청도 공주일대에서 湖州大義所 명의로 “조정에서 密敎가 있었으며, 청나라도 우리 나라를 위해 진력하고 있으니” 輔國安民을 위해 창의할 것을 촉구하는 격문이 충청 각지에 발포되었다.<sup>119)</sup> 또 정확한 시점은 모르나 8월 말에서 9월 초로 추정되는 시기에 호남지역의 창의를 촉구하는 恩津義兵所 명의의 통문이 나돌았다. 조정에서는 매국자들이 원수의 군대를 불러 국왕을 협박하고 있으며, 大國에 저항하는 것은 의리상 잘못된 것이니 호남 53현에서 모두 창의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였다. 뒤에 첨부된 〈의병소조약〉에는 통문을 먼저 고산향교에 보내니 한 부를 베껴 놓고 다시 전주로 보내면 전주에서 여러 장을 만들어 각 읍으로 보낼 것을 요구하였다.<sup>120)</sup> 이외에도 8월 28일 경상도 예천 花枝 都會에서 보수집강소로 보내는 통문에는 “오백년의 왕정에 倭僞가 득세하여 억조창생이 덕화를 입지 못하였다. 千里 邦畿 어느 지역도 도탄에 빠졌으니 생명을 어찌 보존하겠는가. 바야흐로 지금 道中の 본의는 척왜다. (중략)도인은 곧 의병이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sup>121)</sup> 또 이미 9월 초에 倭賊을 섬멸하고 그들의 잔당을 토멸하자는 대회를 가진 바 있는 진주지역의 ‘東學黨’은 1894년 9월 10일 忠慶大都所의 명의로 다음과 같은 掛書を 내걸었다.

우리 나라는 옛날부터 소증화라 칭해 왔으며, 삼천리는 예의의 나라이고 풍부한 강토이다. 그러나 지금은 국운이 否塞하고 人道가 頽廢하므로 간신들이 화를 불러 들여 왜적들이 우리 국경을 침범하기에 이르렀다. (중략) 아! 東土의 의사들이여 어찌 피를 뿌리며 분개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가?<sup>122)</sup>

118) 〈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 所藏文書〉(《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19), 428~432쪽.

119) 〈黃海道東學黨征討略記〉, 公州湖西九接中(《韓國民衆運動史資料大系》1, 驪江出版社, 1986), 539쪽; 〈大阪朝日新聞〉, 명치 27년 12월 1일자(《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23, 1996), 126쪽.

120) 〈隨錄〉, 285~290쪽.

121) 《甲午斥邪錄》, 8월 28일조.

예천의 화지 도회를 제외하고 湖州大義所·恩津義兵所·忠慶大都所의 실체나 반일통문이 나온 배경은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지만 그 내용이나 정황으로 볼 때 적어도 유생층이 개입했거나 유생층을 반일투쟁에 적극적으로 끌어 들이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임이 분명하다.

농민군측에서도 이들을 끌어 들이기 위해 격문이나 구호에서 보수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전봉준에 앞서 10월 15일 농민군측에서는 公州倡義所義將 李裕尙 명의를 글을 박제순에게 올렸다. 이 글에서 이유상은 “감히 문건대 청나라를 막자는 것인가 일본을 막자는 것인가 의병을 막자는 것인가. 청나라를 막자는 것은 大義를 멸시하는 것이고, 義兵을 막자는 것은 그 계책이 잘못되었다. 일본을 막자는 것은 壬辰倭亂 이후 누군들 이러한 마음이 없었겠는가”<sup>123)</sup>라고 하여 역시 임진왜란 이래의 대일 적대감을 강하게 드러내는 동시에 청에 대한 적대는 大義를 어그러뜨리는 것이라 하고 있어서 ‘反日親清的’ 태도와 함께 斥邪的, 華夷論의 분위기를 보여 주고 있다.

전봉준도 10월 16일 박제순에게 보낸 글에서 ‘日寇’의 침략행위로 말미암아 국왕이 옥을 당하는 일, 조정대신(개화파-필자)들이 東夷와 連腸하여 국왕을 헐박하고 백성들의 원한을 산 일 등을 임진왜란 당시 국왕이 옥을 당한 치욕·통분 등과 연결하여 강조하고 있다. 또 선왕의 적자로서 二心을 품은 자(개화파-필자)들을 공격하여 선왕조 오백년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일어섰음을 강조하며 박제순에게도 斥倭斥化투쟁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였던 것이다. 전봉준의 글은 물론 ‘민족적 대연합’을 추진하기 위한 전술적 고려가 전제된 것이지만, 일본의 침략이라는 민족적 위기를 당하여 전봉준의 의식 속에 온존되어 있던 근왕주의적 의식이 강하게 표출되어 있다.<sup>124)</sup> 또 11월 13일의 고시문에서는 척왜척화를 위한 연합전선에 대한 강조와 동시에 반왜

122)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40~141쪽. 병사 閔俊鎬가 1년도 안되어 이입하고 倭의 세력을 업은 신병사가 부임하는 데 대한 부당함을 강황하게 역설하고 있다. 또 이들은 관군과 대적하여 싸우지도 않을 뿐 아니라 민준호도 이들을 탄압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기세를 도와준다고 하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70쪽).

123) 《東學亂記錄》 下, 381~382쪽.

124) 주 97)과 같음.

의식의 강렬함이 왜와 조약을 체결한 개화간당에 대한 소멸, 나아가 개화 자체에 대한 제어로까지 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실제로 일부 유림에서는 농민전쟁이 일어나자 그 원인을 제공한 집권층의 부패를 비판하기도 하였고, 특히 斥倭와 관련하여서는 동정 내지 공감을 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일부 관리들과 유학자들은 농민군에 직접 가담하기도 하였다.<sup>125)</sup> 그러나 보수유생층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내지는 못하였다. 관리나 유생 가운데는 농민군에 동조하거나 가담하는 인물도 있었지만,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연합으로까지 나아가지는 못하였다. 대부분의 관리들이나 유생층은 민보군을 조직하여 반농민군활동을 벌이거나 일본과 연합한 민보군의 농민군 탄압에 침묵할 따름이었다.

연합을 이끌어내지 못한 가장 큰 요인은 보수층의 계급적 속성이나 이념적 한계 때문이지만, 여기에는 농민군의 역량이 항일연합전선을 구축해 낼 만큼 성장해 있지 못했다는 측면도 작용하였다. 집강소 시기 이래 곳곳에서 분출된 농민군 대중의 사적인 보복이나 약탈적 행동은 항일연합전선의 기반을 축소할 수 밖에 없었다. 충청도 예산 일대에서 기포한 접주 朴熙寅은 재기포 당시 “많은 道衆이 招募되었으나, 군율이 있을 수 없고 법적 규제가 지켜질 수 없는 이 烏合之衆으로는 日軍까지 합세한 관군과의 싸움은 아무리 해도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 견해를 보이고 있었다.<sup>126)</sup> 이 점에서 전봉준이나 손화중 역시 다를 바 없었다. 8월말 무렵 전봉준은 농민군에 대해 “우리가 비록 많으나 烏合之衆이어서 쉽게 무너져 소망하였던 것을 끝내 이루지 못할 것이다”고 평가하였으며, 손화중은 농민군이 “어리석고 천하여禍를 즐기거나 빼앗고 흠치는 일을 즐겨하는 무리들”이어서 일이 성사되기 어렵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sup>127)</sup>

농민군 대중의 이러한 행동은 2차전쟁 시기에 들어 열세에 몰리게 되자 대중들을 강제로 동원하는 과정에서 더욱 심하게 노정되었다. “광양·순천

125) 裴亢燮, <1894년 東學農民軍의 反日抗爭과 ‘民族的 大聯合’ 推進>(《軍史》 35, 1997), 121~124쪽 참조.

126) <昌山后人 曹錫憲歷史>(《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10), 137쪽.

127) <梧下記聞> 2筆, 210~211쪽.

지방의 적은 거리낌없이 평민들을 협박하여 날마다 억지로 동학에 가입시켰으므로 백성들이 명령을 감당할 수가 없었으며,<sup>128)</sup> “최근에 들리는 소문에는 비적들이 강제로 양민을 몰아서 모두 저들의 무리에 끌어 넣어 집을 버리고 생업을 잃어버린 채 울부짖게 만든다고 하는데 추종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열이면 아홉이나 된다”고 하였다.<sup>129)</sup> 10월, 11월에 들면서 강제로 농민군에 끌어 들이는 행동은 더욱 심화되었다. 일부 농민군 지도자가 선량한 양민을 전투시에 앞에 세우거나 돈을 받고 강제 징집을 면제해 준다거나,<sup>130)</sup> 일부 지역에서는 민인들을 강제로 동원하는 과정에서 돈을 받고 제외시켜 주는 사례가 나오기도 하였다.<sup>131)</sup> 이 점은 충청도나 경상도에서도 마찬가지였으며,<sup>132)</sup> 지도부에서 추구한 보수유생과의 항일연합전선을 구축하는데도 적지 않은 방해요인이 되었다.<sup>133)</sup>

## 6) 농민군의 후퇴와 농민전쟁의 좌절

우금치에서 패배한 후 논산쪽으로 후퇴한 전봉준은 11월 14일 밤 강경·논산 어름에서 김개남 부대와 합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김개남은 11월 13일 청주전투에서 패배한 후 진잠을 거쳐 14일 연산에서 다시 집결하여 일본군 및 관군과 접전하였으나, 오후 5시쯤 노성·은진방면으로 퇴각하였던 것이다.<sup>134)</sup> 전봉준과 김개남 부대가 합세한 농민군은 15일 魯城 烽火山·논산 大村의 圓峯과 小土山·은진 黃華臺 등에서 추격하는 관군과 일본군 공격을 받고 오후 4시경에는 남쪽으로 후퇴하여 전라도로 들어갔다.<sup>135)</sup> 김개남부대

128) 〈梧下記聞〉 3筆, 256쪽.

129) 〈梧下記聞〉 3筆, 291쪽.

130) 〈梧下記聞〉, 279~289쪽.

131) 〈嶺上日記〉(《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2), 289쪽.

132) 裴亢燮, 앞의 글(《歷史學報》 153), 101쪽 참조.

133) 이 점과 관련하여 집강소시기 “전라도 作亂의 일은 잘못된 것”이었다는 오지영의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東學史〉, 529쪽).

134)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252쪽; 〈梧下記聞〉 3筆(《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1), 268쪽; 《東學亂記錄》 下, 463쪽.

135) 《東學亂記錄》 上, 245~248·317~319·523~530쪽; 下, 39~43·187~189쪽.

가 합류하기 전인 14일 오후 노성 봉화대에 주둔해 있을 당시 농민군의 수는 공주전투시의 1만~4만여 명에서 2,500명 정도로 줄어 있었다. 김개남이 합류한 이후인 15일에는 3,000여 명이였다.<sup>136)</sup> 남원에서 북상할 당시 8,000여 명에 달하던 김개남 휘하의 농민군은 500여 명에 불과할 정도로 위축되어 있었던 것이다.

1,000여 명의 농민군을 이끌고 전라도로 후퇴한 전봉준은<sup>137)</sup> 11월 19일 전주로 들어갔으며, 23일에는 금구쪽으로 이동하였다.<sup>138)</sup> 전주까지 전봉준과 김개남은 함께 행동하였으며, 자신들의 본거지인 이곳에서 흠어진 농민군을 다시 모아 최후의 항전을 준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23일 전주를 떠났으며, 이때 두 개의 부대로 나누어 전봉준은 고부·태인 방향으로, 김개남은 남원방향으로 간 것 같으며, 전봉준이 이끄는 부대는 적어도 6,000~7,000명 정도는 되었다.<sup>139)</sup> 전봉준이 이끄는 농민군은 25일 원평에 도착하여 진을 치고 일본군 및 관군과 접전하였다. 오전 9시경에 시작된 전투는 오후 4시경에 끝났다. 이 전투에서 농민군은 37명의 전사자를 내었으며, 관군과 일본군은 回龍銃 10정·조총 60정·鉛丸 7石·화약 5櫃·子砲 10坐·刀鎗 200자루·米 500石·錢 3,000냥·木 10同·소 2마리·말 11필·牛皮 10장·虎皮 1수·文書 2籠 등을 노획하였다.<sup>140)</sup>

원평에서 물러나 태인으로 간 농민군은 11월 27일 태인의 주산인 성황산·한가산·도리산 등 3개 산 9개 봉우리에 진을 쳤다. 태인까지 추격해 온 관군과 농민군 사이에 전투가 시작되었다. 오전 10시부터 약 12시간에 걸쳐 농민군은 치열한 접전을 벌였으나 4, 50명이 생포되고 3, 40명이 전사하였으

136) 《駐韓日本公使館記錄》1, 253쪽. 관군측에서는 이때 농민군의 수를 만여 명이라 하였다(《東學亂記錄》下, 39쪽).

137) 전라도 쪽으로 후퇴할 당시 농민군의 수는 1,000명 정도였다(《東學亂記錄》上, 318쪽, 528쪽; 《東學亂記錄》下, 43쪽).

138) 〈札移電存案〉, 甲午 11月 30日(《各司謄錄 63 : 啓草存案 外》, 國史編纂委員會, 1992), 288쪽.

139) 《駐韓日本公使館記錄》6, 45쪽. 관군측에서는 23일 금구 원평으로 간 농민군이 數三千명, 25일 원평에 집결해 있는 농민군의 수가 1만여 명 이상인 것으로 보고하였다(《東學亂記錄》上, 553쪽; 下, 199쪽).

140) 《東學亂記錄》上, 553쪽.

며 회룡포 15정, 조총 200여 정과 다수의 탄약·죽창·말 6필 등을 노획당하는 참패를 당하고 고부와 남원 방면으로 퇴각하였다. 이때 전봉준·金文行·劉公萬 등이 이끄는 농민군의 수는 8,000여 명이었으며, 경군은 230명, 일본군은 40명이었다.<sup>141)</sup> 전봉준은 태인전투에서 패한 후 농민군을 다시 결집하였으나 이미 더 이상 전투에 임할 대오조차 갖출 수 없었다. 전봉준은 여기서 농민군을 해산할 수 밖에 없었다.<sup>142)</sup>

사실 재기포를 시작할 당시 농민군의 역량은 일본군에 맞서 싸우기에는 취약하였다. 농민전쟁이 실패로 끝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제2차 봉기에 직접적으로 진압에 가담한 일본군에 비해 농민군의 군사력이 턱없이 취약하였다는 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농민군은 관군측으로부터 노획한 회룡포(에피르)·回旋砲(카트링)·極老砲(크르프)·레밍턴총이나 스나이더총과 같은 근대적 화기로 무장하기도 하였지만<sup>143)</sup> 대부분은 鳥銃으로 무장하였고, 그것도 없을 경우 창이나 죽창으로 무장하였다. 따라서 농민군측에서도 일본군과 1대 1로 맞설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농민군측에서도 농민군 100명 정도가 일본군 1명을 당해낼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었다.<sup>144)</sup> 또 일본군에 비해 조총은 사거리가 짧았기 때문에 전투에서 극히 불리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따른 전투상황을 황현은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우리 나라 총의 사거리는 100보 정도에 불과하지만, 일본총의 사거리는 400~500보도 더 되었으며, 불이 총대안에서 저절로 일어나 불을 붙이는 번거로움이 없었다. 따라서 비록 눈이나 비가 내린다고 하여도 계속 쏠 수 있었다. 적과 수백 보 떨어진 거리에서 적의 총탄이 미치지 못할 것을 헤아린 다음 비로소 총을 쏘았으므로 적은 뻘히 쳐다보면서 감히 한 발 쏘지 못하였다.<sup>145)</sup>

141) 《東學亂記錄》上, 326~327쪽·565~566쪽. 일본군은 태인전투시에 농민군의 수가 대단히 많아 수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6, 44~45쪽). 관군측에서는 8,000명, 혹은 5,000~6,000으로 추산하기도 했다(《東學亂記錄》上, 565·327쪽; 下, 85쪽).

142) 《全捧準供草》, 320쪽.

143) 《駐韓日本公使館記錄》1, 161쪽; 《駐韓日本公使館記錄》6, 28쪽.

144) 《駐韓日本公使館記錄》1, 217쪽.

145) 《梧下記聞》3筆, 254~255쪽.

이에 따라 일본군 1인이 농민군 수천 명을 당해낼 수 있고, 관군 1인은 수십 명을 상대할 수 있다는 극단적인 전력평가가 나오기도 하였다.<sup>146)</sup> 농민군 지도부에서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진봉준은 “동학당의 軍, 그 무리들은 훈련받지 못하였고 무기는 玩具와 같다. 사람, 무기 모두 정예한 일본군에 비길 수 있다고는 본디 믿지 않았다”고 하였고,<sup>147)</sup> 10월 16일 충청감사 박제순에게 보내는 〈上書〉에서도 자신들의 “하고자 하는 바가 극히 어려움을 실로 잘 알고 있다”고 하였다.<sup>148)</sup>

그러나 농민전쟁이 실패로 돌아간 또 하나 이유로 지적해야 할 점은 조직적 결합도나 의식 등 농민군 내부의 문제점이다. 농민군의 역량에 대한 위와 같은 부정적 평가도 농민군 내부의 문제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이것은 의식을 성장시키고 조직적 결합도를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였던 집강소시기에 농민군이 전개한 개혁활동이 왜곡 내지 저지되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여기에는 외세의 개입이라는 정세변화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진봉준은 5월초 청·일군대의 조선진출이라는 예기치 않은 사태를 맞아 관심의 초점을 폐정개혁이라는 내부적 문제로부터 반외세 문제로 전환시켜 갔다. 이에 따라 진봉준은 5월 8일 전주성에서 철수한 이후 청·일군이 계속 주둔할 수 있는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농민군들의 私的인 雪憤행동을 엄금하고자 하였다. 이어 경북공 강점이 일어나면서 반외세문제가 더욱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자 7월 6일 전라감사 金鶴鎭과 ‘官民相和’를 맺고 함께 협력하여 국난을 극복하기로 약속하였으며 士族이나 지주층까지도 포괄하는 ‘반외세’를 위한 ‘민족적 대연합’을 통해 광범위한 항일전선을 구축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반외세, 곧 반일투쟁이 당면과제로 제기되면서 연합의 내용과 대상이 바뀔에 따라 진봉준은 제1차 농민전쟁시기에 제기하였던 폐정개혁요구의 수위나 내용을 일정하게 양보 내지 유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官民相和’의

146) 《東學亂記錄》上, 91쪽.

147) 〈東京朝日新聞〉, 명치 28년 3월 5일(《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22), 366쪽.

148) 《東學亂記錄》下, 382쪽.

한 주체인 김학진의 입장과 크게 상치되거나 반외세투쟁을 위한 연합세력으로 인식하고 있던 보수유생층과 재산이 있는 자들을 자극할 경우 압도적 힘의 우위를 가진 외세의 침략행위를 목전에 두고 敵前分裂을 자초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전봉준은 급격한 폐정개혁활동을 자제하면서 ‘官民相和’에 입각한 체계적인 폐정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농민군의 私的인 雪憤행위를 제지시켰다.

그러나 전봉준의 이러한 생각과 행동은 농민군의 그것과는 달랐다. 각지에서 치안의 공백을 틈타 등장하였던 ‘무뢰배’들은<sup>149)</sup> 논외로 치더라도, 집강소 시기 농민군의 주력층을 이루던 것은 신분적으로는 상천민, 계급적으로는 소빈농이었다. 집강소 시기에는 천민층이 집중적으로 입도하였고,<sup>150)</sup> 농민군의 활동도 대체로 향촌사회에 着根하지 못한 유랑적 부류에 의해 이루어졌다.<sup>151)</sup> 이러한 농민군 대중과 일부의 지도자들은 ‘민족적 모순’보다 ‘계급적 모순’에 더 관심이 많았다. 이들은 ‘경제적 균산주의’와 ‘사회적 평등주의’에 입각한 민중적 이상사회의 실현을 추구하였으며, 그들이 평소에 품어 왔던 양반과 지주에 대한 원초적 반감이나 저항의식이 폭력을 수반하며 집단적으로 표출되었다.<sup>152)</sup>

이에 따라 전봉준과 농민군 대중 간에는 갈등과 균열상이 노정되었고, 지도부 간에도 내분의 조짐이 일어났으며,<sup>153)</sup> 그렇지 않아도 느슨하던 농민군 내부의 결함도는 더욱 취약해졌다. 이러한 사정에 대해 농민군 진압에 투입되었던 후비보병 독립 19대대장 南小四郎은 농민군 조직에 대해 6월 이전에는 농민군에게 일정한 지휘계통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각 지방에는 각각 巨魁라고 하는 자가 있어서 配下를 통솔하지만, 거괴들을 통솔하는 대거괴는 없다 …… 각 거괴는 각자의 의견에 따라 각 지방에서 기포하여 자기 의사를 결행하려고 한 것 같다”<sup>154)</sup>고 할 정도로 조직적 결함은 느슨하였다.

149) 〈梧下記聞〉首筆, 108·110쪽.

150) 〈梧下記聞〉수필, 109쪽.

151) 〈兩湖電記〉(《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6), 148쪽.

152) 裴尙燮, 앞의 글(1996), 154·159쪽 참조.

153) 〈梧下記聞〉首筆, 110쪽.

154) 《駐韓日本公使館記錄》6, 25~26쪽.

초기에 보여준 농민군들의 엄격한 기율도 약화되면서 제2차 기포 초기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김개남은 자기 휘하의 중간 지도자인 남응삼에게 10월 旬頃 기병할테니 무리를 이끌고 올 것을 요청했으나 불응하였다. 이때 남응삼의 書記는 김개남을 ‘烏合之卒鼠竊之將’이라 하며 출전하자마자 패배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sup>155)</sup> 9월 16일 청풍에서도 내분이 일어나 동학도들이 접주를 무기로 위협하면서 “너는 왜 우리를 간교한 말로 동학에 끌어 들였느냐. 이제는 하루 속히 사죄하고 우리 모두가 화를 입지 않도록 하라” 하고 상주부에 그를 송치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sup>156)</sup> 논산에서 공주로 북상하는 과정에서도 농민군 내부의 결속도가 저하되고 있었다. 매일 點考할 때마다 闕額이 수백 명에 달하였고, 추위와 배고픔을 못이겨 도망하는 자가 많았으며, 서로 선봉에 서기를 꺼려 내분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에 따라 충청감사 박제순은 이때 농민군을 공격하면 쉽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빨리 지원병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sup>157)</sup>

전봉준은 우금치전투에서 “두 차례 접진 후 1만여 명의 군병을 點考하니 남은 자는 3천여 명을 넘지 않았으며, 그후 또 두 차례 접진한 후 점고하니 5백여 명에 불과했다”고 하였으며, “금구에 이르러 다시 초모하였을 때 농민군의 수는 증가되었으나, 기율이 없어 다시 개전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하였다.<sup>158)</sup> 이러한 사정은 농민군 내부의 결속도가 그만큼 취약하였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거기에는 ‘민족적 모순’을 중시하는 전봉준 등 지도부와 ‘사회적 평등주의’와 ‘경제적 균산주의’에 입각하여 ‘계급적 모순’을 중시하던 일부 지도자와 빈농·천민으로 구성된 농민군 대중 사이에 가로 놓여 있던 이념 내지 지향에서의 차이가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전봉준이 적극적으로 추진한 ‘민족적 대연합’에 의한 항일전선의 구축이 실패하고 농민군 내부의 결속도마저 취약해진 상태에서 우세한

155) <甲午略歷>, 74~76쪽.

156) 박성수 주해, 《渚上日月》, 갑오년 9월 16일조, 217쪽. 상주에서도 교도들이 접주를 잡아 笞杖을 치며 “너 때문에 우리들이 이 지경이 되었다”고 하며 해산한 일이 있었다(위와 같음, 9월 19일조, 217쪽).

157) 《東學亂記錄》上, 222·399·406쪽; 下, 79쪽.

158) <全珠準供草>(《東學思想資料集》壹), 320쪽.

화력으로 압박해 오는 일본군 및 관군의 연합세력을 상대하기는 극히 어려운 일이었다. 공주전투를 고비로 농민군은 퇴각의 길을 걷게 되었고, 농민군 지도자들이 체포됨으로써 농민전쟁은 좌절하고 만다.

전봉준은 11월 29일 입암산성을 거쳐<sup>159)</sup> 김개남과 만나기 위해 순창 피리로 잠입하였다가 12월 2일 밤 주민 한신현 등이 끌고 온 주민들에게 체포되었다. 전봉준 스스로는 상경하여 서울의 정국을 상세히 탐지하기 위해 상경하려다가 체포되었다고 하였다.<sup>160)</sup> 전봉준은 순창관아에 수감되어 있다가 12월 7일 일본군에 인계되어 초토영이 설치되어 있던 나주로 이송되었으며, 최경선과 함께 임시로 설치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서울로 압송되었다가<sup>161)</sup> 3월 29일 처형되었다.<sup>162)</sup>

손병희가 이끄는 북접 농민군은 공주전투에서 패배한 뒤 논산·전주를 거쳐 원평·태인전투까지 전봉준과 행동을 함께 하였다. 태인전투 이후에는 순창을 거쳐 최시형이 머물고 있는 임실로 가서 합류하였다. 이후 북접 농민군은 장수를 거쳐 금산·茂朱 등지를 거치는 동안 전투를 치르며 북상하여, 12월 9일에는 黃澗을 공격한 후 12월 10일경에는 永同 龍山에 주둔하고 있었다. 그러나 12월 12일 관군 및 보부상, 민보군의 공격을 받고 報恩·청주로 퇴각하였다.<sup>163)</sup> 이후 靑山을 거쳐 報恩 鐘谷에 진을 치고 있던 북접 농민군은 12월 17일 밤부터 12월 18일 일본군과 尙州 민보군의 공격을 받아 300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화양동을 거쳐 충주 외서촌으로 갔으나, 다시 관군의 공격을 받았다. 12월 24일에는 忠州 無極장터에서 관군의 공격을 받아 농민군은 사방으로 흩어지고 말았다. 최시형·손병희 등 북접의 지도자들은 이때 잠적하여 체포되지는 않았다.<sup>164)</sup>

159) 《東學亂記錄》下, 287·300쪽.

160) 《東學亂記錄》上, 253·574·580쪽; 下, 208쪽; 〈全臻準供草〉, 320쪽.

161) 《東學亂記錄》上, 61~62·611쪽; 下, 221쪽.

《駐韓日本公使館記錄》6, 52쪽; 〈梧下記聞〉3筆, 309쪽.

162) 〈二六新報〉, 명치 28년 4월 26일(《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22), 272쪽.

163) 〈天道教會史草稿〉(《東學思想資料集》壹), 468~469쪽; 〈天道教創建史〉(《東學思想資料集》貳), 156~157쪽; 《駐韓日本公使館記錄》3, 250쪽; 《駐韓日本公使館記錄》6, 68~70쪽; 《東學亂記錄》上, 619쪽; 《東學亂記錄》下, 73쪽.

164) 《駐韓日本公使館記錄》6, 68~70쪽; 〈天道教會史草稿〉(《東學思想資料集》壹),

김개남은 11월 23일 전주에서 남원 방면으로 퇴각하였다가, 12월 1일 태인 종송리에서 강화영병에게 체포되었다.<sup>165)</sup> 심영의 중군 황헌주가 김개남을 포박하여 12월 2일 전주로 이송하였다. 이도재는 전주 인근에 아직 농민군들이 다수 둔취해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로 이송도중에 탈취당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12월 3일 오후에 참수하고, 수급만 서울로 보냈다.<sup>166)</sup>

광주에서 활동하던 손화중과 최경선은 11월 27일 광주를 점령하였다. 그러나 전봉준부대가 태인에서 패하고 전봉준이 입암산성으로 들어간 직후인 12월 1일 손화중은 부하들을 해산하고 광주를 떠나 고창으로 잠입하였으며, 12월 11일 고창에서 주민들에게 체포되어 고창현에 갇혀 있다가 일본군에게 넘겨졌다.<sup>167)</sup> 최경선 역시 12월 1일 귀화한다는 방문을 남기고 광주를 떠나 잠입하였다가 12월 3일 화순 동북에서 체포되어 일본군에게 인도되었다. 손화중과 최경선은 전봉준과 같이 나주에 수감되었다가 서울로 압송되었다.<sup>168)</sup>

〈表亢變〉

470쪽; 申榮祐, 《甲午農民戰爭과 嶺南 保守勢力의 對應》(延世大 博士學位論文, 1991), 265~266쪽.

165) 《東學亂記錄》上, 579쪽.

《東學亂記錄》下, 60쪽, 218쪽.

《駐韓日本公使館記錄》1, 197쪽.

166) 《駐韓日本公使館記錄》1, 197쪽; 6, 2~4쪽, 8쪽.

황헌은 감사 이도재의 심문에 대해 김개남이 “우리들이 한 일은 모두 대원군의 은밀한 지시에 의한 것이다. 지금 일이 실패한 것은 또한 하늘의 뜻일 뿐인데 어찌 국문한다고 야단이나”고 하였기 때문에 김개남을 살려 두었다가는 혹여 난을 불러올까 두려워 서울로 이송하지 않고 전주에서 목을 베어 죽였다고 하였다(〈梧下記聞〉3筆, 302~303쪽; 〈嶺上日記〉(《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2), 294쪽).

167) 《東學亂記錄》上, 572쪽; 《東學亂記錄》下, 206쪽, 709쪽; 《舊韓國官報》1, 867~878쪽.

168) 《東學亂記錄》上, 572쪽; 《東學亂記錄》下, 206, 288, 707쪽; 〈梧下記聞〉3筆, 309쪽.

### 3. 동학농민전쟁의 역사적 의의

#### 1) 결합의 유대

1894년의 농민전쟁에서는 사람들이 전쟁에 참가하는 결합방식이 다양하고 다원적이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으로는 농민들의 결합·유대 형성에 동학교문의 조직이 크게 기여하였다는 사실이다. 동학교문의 接主가 그대로 농민군의 지도자인 경우가 많았다. 1895년 2월 11일의 제2차 법정신문에서 전봉준은 “이른바 접주는 모두 동학이었고 그 이외의 구성원은 충의의 자원자(忠義之士)가 많았다”<sup>1)</sup>고 하였고 1895년 2월 9일의 제1차 법정신문에서는 “고부민란 때에는 冤民과 동학이 합세하였지만 동학은 적었고 원민이 많았다”<sup>2)</sup>고 하였다. 동학의 조직도 더러는 농민전쟁의 진전에 따라 창출되기도 하였으니 전봉준은 “접주·접사는 기왕에 본래 있었으나 혹은 기포시에 창설되기도 하였다”<sup>3)</sup>고 말하고 있다.

동학교문의 조직이 농민군의 결성에 하나의 결합원리로 될 수 있었던 것은 동학의 교리가 일정하게 백성의 希願을 반영하고 있기도 하였지만 공주·삼례·광화문·보은 등지에서의 교조신원운동을 통하여 특히 호남지역의 동학교문이 혁명적인 방향으로 크게 기울었기 때문이었다. 동학교문의 조직이 농민군의 결합원리로 됨으로써 농민운동이, 종래 고을의 차원으로 폐쇄되어 있었던 지역국지성에서 벗어나 한 道를 포괄하는 지방의 차원으로 확대될 수 있었다.

농민군의 결성에 또 하나의 결합원리로 등장한 것은 고을공동체에 있어서의 鄉權에 이미 상당하게 진출하였던 새로운 향임층으로서의 농민적 향권세력이었다고 보여진다. 고을공동체의 기본단위인 촌락공동체의 향임에서 上尊

1) <全捧準供草>, 을미 2월 11일, 再招問目(《東學亂記錄》下, 국사편찬위원회, 1971), 535쪽.

2) 위와 같음, 을미 2월 9일, 招招問目, 위의 책, 525쪽.

3) 위와 같음, 을미 2월 11일, 再招問目, 위의 책, 535쪽.

位는 양반이 담당하고 閑丁填代·還上 등의 실무는 평민에서 차출되는 副尊位의 담당이었다. 조선후기, 시대가 내려올수록 촌락공동체=리의 향직인 존위·里正·집강 등은 평민이 담당하는 것이 더욱 일반화되어 갔던 바, 1889년 전라도의 어느 고을에서는 평민이 座首가 되기도 하였으며, 따라서 향권의 주도권을 두고 土族과 평민층간에 대립과 각축전이 전개되었다.<sup>4)</sup>

1862년 3월 16일에 발생한 咸陽민란에서는 ‘향권을 장악하려는 목적’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으며,<sup>5)</sup> 그 해의 다른 민란들에서도, 향임·향리에 대한 철저한 응징이 공통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향권쟁취의 의식이 있었다고 짐작된다.<sup>6)</sup>

농민전쟁의 5~9월의 단계에서 시행된 집강소는 형식에 있어서 종래의 향소의 집강제도를 계승한 것이며<sup>7)</sup> 1893년 11월의 金溝院坪 전봉준 세력집단의 ‘사발통문’에서도 통문의 수신자가 각리 里執綱으로 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농민전쟁에서 농민의 결합원리의 하나가 농민적 향권세력을 중심으로 한 사회관계였다고 생각된다.

또 하나의 결합원리는 각 고을의 지역적 반란을 하나의 유기적인 지방반란으로 통합한다는 원리였다. 1894년 1월 11일에 발생한 고부민란은 농민전쟁의 단서를 이룬 것이었으며, 민란 이후 전봉준이 3월 20일의 본격적 농민전쟁 때까지 대세를 관망하면서 기다렸던 것은 고부민란의 각 고을에로의 확산을 기다린 것이었다. 안핵사 이용태의 만행에 격분하고 있는 전라도의 고을들에 통문을 발하여 전면적으로 봉기할 것을 제기하였고 무장·고창·홍덕·태인·정읍·김제·금구 등에서 농민군 8천여명이 이에 호응하여 백산에 집결하였다.

이렇게 집결한 농민군은 대장에 전봉준, 총관령에 손화중·김개남, 총참모

4) 金仁杰, <朝鮮後期 鄉權의 추이와 지배층 동향>(《韓國文化》2, 1981), 178~182쪽.

5) <右兵營狀啓 6月 25日>(《壬戌錄》, 국사편찬위원회, 1958), 45쪽.

6) 鄭昌烈, <백성의식·평민의식·민중의식>(《역사와 인간》 변형윤·송건호 편, 두레, 1982), 20쪽.

7) 瀨古邦子, <甲午農民戰爭期에 있어서 執綱所에 대하여>(《朝鮮史研究會論文集》16, 1979), 127쪽.

에 김덕명·오시영, 영술장에 최경선, 비서에 송희옥·정백현으로 하여 연합체로서의 체제를 갖추었다.<sup>8)</sup> 그러나 이것은 “내가 일체를 지휘하였다”<sup>9)</sup>는 유기적 통일체로서의 연합체라는 전봉준의 범정진술과는 달리 형식상의 체제에 불과하였다. 각 농민군 부대는 각기 독자적으로 활동하였다. 5월 이후의 집강소 단계에서도 “전봉준은 수천의 무리를 거느리고 금구원평에 근거하여 전라우도를 장악·지휘하였고 김개남은 수만의 무리를 거느리고 남원에 근거하여 전라좌도를 장악·지휘하였으며 그밖에 김덕명·손화중·최경선 등도 각기 한 지방을 근거하였”<sup>10)</sup>듯이 전라일대를 각 농민군 부대장이 분할·장악하였으며, 5월 중순 이후 전봉준은 금구·김제·태인·순창·남원·운봉·옥과·담양·장성·창평·순천 등 전라좌도 일대를 순회하면서, 손화중은 전라우도 일대를 순회하면서 정부와의 협조에 의한 집강소 개혁의 실시를 각 농민군 부대에 권유하였던 것이다.<sup>11)</sup> 그러나 김개남은 정부와의 협조하에 집강소에 의한 개혁정치의 실시를 권유하는 전봉준의 제의를 끝내 거절하였기 때문에 이후 김개남과 전봉준은 서로 상의하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sup>12)</sup>

그러나 전라도 일대 고을마다의 집강소가 전혀 독립적이지는 않았다. 집강소의 총본부를 전주에다가 두고 이를 大都所라고 하였으며 “전봉준은 귀화하였다고 일컫고 단신으로 감영에 들어와 감사의 일을 맡아 하였다. 감영의 關文·甘結은 반드시 전봉준의 결재가 있는 연후에야 열읍에서 거행하였다”<sup>13)</sup>라고 하듯이 형식상으로는 전봉준 대도소가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농민전쟁의 결합원리는 지역적 반란을 하나의 유기적인 지방반란으로 통합해 나아가려는 것이었다.

또 하나의 결합원리는 貪虐 증오의 共感에 의한 心情的 紐帶였다. 黃玹은 제1차 농민전쟁의 茂長에서의 발발에 대하여 “동학은 代天理物하고 輔國安

8) 吳知泳, 《東學史》(永昌書館, 1940), 111~112쪽.

9) <全琫準供草>, 을미 2월 11일, 再招問目(《東學亂記錄》下), 537쪽.

10) 鄭碩謨, <甲午略歷>(《東學亂記錄》上), 65쪽.

11) <全琫準供草>, 을미 3월 7일, 四次問目, 위의 책, 551쪽.

12) 위의 책, 558쪽.

13) 李容珪, 《若史》2.

민하며 죽이거나 약탈하지 않으며 오직 탐관오리만은 용서하지 않는다고  
 倡言함에 愚民이 響應하고 右沿 일대 10여읍이 일시에 봉기하니 열흘 남짓  
 사이에 수만명에 이르렀다. 동학이 난민과 합함이 이에서 시작되었다”<sup>14)</sup>라고  
 하고 또한 호남에서는 財物이 풍부하여 수령과 아전의 탐학이 가장 심하였  
 고, 따라서 서울의 속담에서는 “아들을 낳아서 호남에서 벼슬살이 시키는 것  
 이 소원이다”라고 하였으며, 그러므로 호남에서는 민과 吏가 서로 미워하고  
 이를 갈며 복수를 다짐함이 ‘백대에 걸친 원수 갚기’와 방불한 바가 있다고  
 하였다.<sup>15)</sup>

이러한 상황에 겹쳐서 趙弼永이 전운어사로 와서 교묘하게 名目を 늘리고  
 稅 위에다가 稅를 첨가하여 호남 전체가 병들고, 金昌錫이 均田御使로 내려  
 와서는 白地徵稅하고 國結을 宮庄으로 돌림으로써 湖南右道가 더욱 병들고,  
 게다가 金圭弘·金文鉉의 탐학이 겹쳐서 千金의 부자는 밤에도 잠을 못잘  
 만큼 불안하였고, 小民은 假貸할 데가 없어서 숨을 헐떡이고 있다고 黃玹은  
 지적하였는데,<sup>16)</sup> 요컨대 庶民富豪와 小民이 모두 감사·관리·수령·아전에  
 게 수탈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姦民思亂者가 庶民富豪와 小民을 선동함  
 에 이에 그들이 東學黨에 저자에 물러가듯이 물려드니, 호남우도에서 호남좌  
 도의 골짜기까지 동학당이 없는 곳이 없었다”<sup>17)</sup>라고 하였다.

전라도의 사정 특히 전라우도의 사정이 이러하였기 때문에 “창의문이 한  
 번 세상에 떨어지자 백성들의 수선거리는 소리는 참 굉장하였다. 옳다 인제  
 는 잘 되었다. 天理가 어찌 무심하랴. 이놈의 세상은 얼른 망해야 한다. 망할  
 것은 얼른 망해버리고 새 세상이 나와야 한다”<sup>18)</sup>는 반응이 일어났던 것이다.  
 따라서 3월 말에는 “3월 20일 이후 (중략) 수령은 모두 도망하고 아전 군교  
 도 따라서 사망으로 흩어졌다. 賊이 오기도 전에 邑內가 먼저 텅텅 비어버린  
 다. 또 여러 고을이 본래 성곽이 없고 (중략) 설사 금성당지라 한들 民이 평  
 소에 수령과 아전을 원망하는데, 누구와 더불어 지킬 것인가. 이로 말미암아

14) 黃 玹, 《梧下記聞》 1, 47쪽.

15) 위의 책, 41쪽.

16) 위의 책, 42쪽.

17) 위와 같음.

18) 吳知泳, 앞의 책, 109~110쪽.

누구하나 衆民에 호소하여 城을 지키려는 자가 없었다. 城이 떨어졌다는 소식은 날마다 들리지만 실인즉 賊은 일찍이 하나의 城도 포위공격한 일이 없었다”<sup>19)</sup>는 것처럼 농민전쟁에의 민의 호응이 있게 되었다.

이러한 탐학증오의 심정적 공감대를 탐학증오라는 소극적 레벨에 정지시키지 않고 적극적 代案으로, 추상적으로 높은 차원에까지 레벨올시킨 것이 民惟邦本이념이었다. 즉 이러한 심정적 공감대가 민유방본이념의 기반으로 되었던 것이다.

국가에는 누적된 빚이 있으나 갚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교만과 사치와 음란한 일만을 거리낌없이 일삼으니, 八路는 魚肉이 되고 만인은 도탄에 허덕이도다.

守宰가 貪虐하니 백성이 어찌 곤궁치 아니하라. 백성은 국가의 근본이라, 근본이 쇠잔하면 나라는 반드시 망하는도다.<sup>20)</sup>

탐학행위와 민유방본은 항상 대극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었다. 포고문에서 위아 바로 이어서 “輔國安民의 방책을 생각지 아니하고 밖으로 鄉第를 설치하여 오로지 제 몸만을 위하고 부질없이 國祿만을 도적질하는 것이 그 어찌 옳은 일이라 하겠는가! 우리는 비록 초야의 유민일지라도 나라에 몸붙여 사는 자라, 국가의 危亡을 앓아서 보겠는가! 八域이 마음을 합하고 수많은 인민이 뜻을 모아 이에 義旗를 들어 보국안민으로써 死生の 맹세를 하노니, (하략)”<sup>21)</sup>라고 하여, 민유방본이념을 조금 현실화하여 輔國安民이념을 내세우고 있다. 보국안민이념을 더욱 level down시켜서 현실화하고 구체화한 것이 농민군의 폐정개혁안 27개조였다.

19) 《梧下記聞》 1, 50쪽.

20) 吳知詒, 〈倡義文〉(《東學史》), 108~109쪽.

〈東匪討錄〉(《한국학보》 3, 1976 여름호, 일지사), 235쪽.

黃 玆, 《梧下記聞》 1, 48~50쪽.

‘茂長東學輩布告文’ 〈聚語〉(《東學亂記錄》 上), 142~143쪽. 이 布告文은 전봉준이 쓴 것이라고 생각된다. 茂長봉기를 전봉준이 주도하였고, “전봉준 자신의 집필이었다고 전하는 만큼”(이선근, 《한국사 현대편》, 을유문화사, 1963, 58쪽)이라는 점에서 그렇게 추정된다.

21) 위와 같음.

東徒가 격문을 전하여 그 취지를 명백하게 한 때에 이르러서는 公州監營의 高官(監司 아래 3번째 되는 重職人과 면회할 때 친히 同官의 말을 들었다 함)과 같은 사람도 東徒가 열거하는 時弊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東徒가 일을 일으킨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니라고 공언할 정도이다. 일반의 감정이 이와 같은 이상 지방의 弊政을 근저까지 革除하지 않는 이상 東徒는 가령 일시 해산한다 해도 다른 날에 기회를 기다려 재연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저들은 한통의 請願書를 남기고 全州를 떠나 長城地方으로 갔으나, 그 후 그 請願이 관철되지 않으면 그 지방의 東徒들이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이 떠들석하였다.<sup>22)</sup>

위의 상황은 5월 10~15일의 것이지만, ‘동도가 열거하는 時弊’는 농민군의 폐정개혁안 27개조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이렇게 폐정개혁 27개조가 농민들에게 현실적합적인 것으로 인식된 것은, 기본적으로는 탐학증오의 심정적 유대에 의하여 농민들이 결합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또 다른 결합의 원리는 공동의 힘으로 侵漁를 막아내는 것이었다.

各地道人이 解歸以後에 各地官吏들의 東學黨 逮捕侵漁이 前日과 조금도 다름없이 安居의 望이 없는지라 道人들은 할 수 없이 官屬과 對抗策을 講究할 밖에는 다른 道理가 없음을 알고 各包各接이 서로 團結을 지어 어느 地方에서 일이 생기든지 하면 그 卽時로 보발을 띄워 그 附近으로부터 술발을 흔들고 일어서서 잡혀가는 사람을 빼앗아 놓기로 하였다. 그렇게 團結이 되었기 때문에 제 굴서 잡으러 온 將校使승이라든지 鎭營이나 監營이나 서울에서 내려온 捕校라 할지라도 東學黨을 잡아갈 때에는 東學黨이 四面으로 쏟아져서 捕校들을 둘러싸고 잡힌 사람을 빼앗아간 일이 많았다. 이러한 일은 忠淸道나 慶尙道보다도 全羅道에서 먼저 생겼으며 全羅道에서도 井邑 大接主 孫和中包에서 먼저 始作이 되었다.<sup>23)</sup>

이것은 1893년 보은취회 해산 후의 상황이지만 주로 전라도 지역, 그 중에서도 孫和中包의 경우에 많았던 경우로서 무리의 힘으로 侵漁를 막아내는 것이었는데, 包에로의 결집에 현실적인 유대로 기능하였다. 1894년 5월 20일 李儉은 상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sup>24)</sup>

22) 《주한일본공사관기록》 3, 215쪽.

23) 《東學史》, 86~87쪽.

臣은 오랫동안 시골에 살면서 요즈음 方伯守令들의 행위를 보면, 報國의 마음은 없이 肥己의 욕심만 있어서, 혹 부지런히 힘써 농사짓거나 장사하여 밥술이나 먹는 백성이 있으면 어거지로 匪類로 몰거나 무거운 죄목을 씌워서 옥에 가두고 차고 채워 닥달한다. (중략) 이 때 東學徒가 피어서 말하기를 ‘자네가 우리 당에 들어오면 侵漁를 면할 수 있고 이런 고생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민이 이에 줄지어 동학당에 들어갔다. (중략) 이것이 東徒와 亂民이 합하여 하나로 되는 까닭이다.

공동의 힘으로 侵漁를 방어하는 결합의 원리는 특히 ‘勤力農商 可繼朝夕’인 中農이나 商人이 농민군에 합류하는 데에 큰 誘因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4월 하순의 시점에서 富豪豪農이 농민군에 돈과 곡식을 제공하여 농민군은 군량에 차질이 없었고,<sup>25)</sup> 나아가서는 豪農紳商이 적지 않게 동학당에 참여하였는데<sup>26)</sup> 참여의 이유는 앞에서와 같은 수탈에서 벗어나고 富 축적의 안정을 원하기 때문이었다고 한다.<sup>27)</sup> 예컨대 順天의 李士維, 麗水의 金成五는 富民으로서 농민전쟁 때의 接主·巨魁였다.<sup>28)</sup>

## 2) 경제적 지향

1894년의 농민전쟁은 3월의 제1차 농민전쟁, 6월의 집강소, 9월의 제2차 농민전쟁이라는 세 단계로 발전하였고 그 과정에 따라 농민군의 사회경제적 지향도 성장·발전하였으므로 편의상 세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한다.

3월 20일에서 5월 8일까지의 제1차 농민전쟁의 단계에서 농민군은 전라도 일대를 순회하면서 각지에서 그들의 정치적 요구와 지향을 나타내는 4개名義,<sup>29)</sup> 檄文,<sup>30)</sup> 通文,<sup>31)</sup> 布告文,<sup>32)</sup> 榜文,<sup>33)</sup> 訴志<sup>34)</sup> 등을 발표하였고, 그들의 사

24) 《梧下記聞》 1, 90쪽.

25) 《萬朝報》, 명치 27년 6월 8·9일.

26) 《二六新報》, 명치 27년 6월 10일.

27) 《萬朝報》, 명치 27년 6월 10일.

28) 《廉記》, 경자 10월(洪性讚, <1894년 집강소기 設包下의 향촌사정>(《東方學志》 39, 1983), 106쪽에서 재인용).

29) 鄭 喬, 《大韓季年史》 上 권 2, 고종 31년 갑오 3월, 74쪽.

30) 吳知泳, 《東學史》, 112쪽.

31) 《東匪討錄》, <4月 初4日 東徒通文法聖吏鄉>(《韓國學報》 3, 1976), 244쪽.

회경제적 요구 즉 폐정개혁의 요구는 1894년 4월 4일의 격문,<sup>35)</sup> 4월 20일 무렵 초토사에게 보낸 호남유생원정서,<sup>36)</sup> 5월초 순변사 李元會에게 제출한 전라도유생원정서<sup>37)</sup>와 湖南會生等上書<sup>38)</sup> 등으로 나타나 있으며 1894년 5월 8일의 전주화약 때에 이들을 27개 조목으로 종합·정리하여 초토사 홍계훈에게 제시하고,<sup>39)</sup> 초토사가 그 조목들을 왕에게 보고하고 실시되도록 노력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화약에 호응하였다.<sup>40)</sup>

폐정개혁안 27개조를 몇 묶음으로 정리하면 田結부담의 경감을 요구하는 것이 4개 조목, 洞布·환곡·연호잡역 등 농민부담의 경감을 요구하는 것이 5개 조목, 전운소의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 1개 조목, 보를 쌓아서 수세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1개 조목, 均田의 폐지요구가 1개 조목, 권력을 배경으로 한 고리대 징수의 금지요구가 1개 조목, 개항장의 미곡상이 내지시장 밖에서 미곡매입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1개 조목, 농촌소상인을 억압하는 상품유통관계 시정의 요구가 5개 조목, 백성의 묘지를 지방관이 빼앗는 것을 금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1개 조목, 탐관오리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2개 조목, 아전을 임명할 때 사례조로 받는 任債의 폐지요구가 1개 조목, 전보국의 폐지요구가 1개 조목, 민비 척족세력의 제거와 대원군의 옹립을 요구하는 것이 1개 조목, 동학인의 복권을 요구하는 것이 1개 조목이었다. 그 중에서 전운소 폐지요구는 4월 4일의 격문에서부터

《朝鮮交涉資料》中, 〈東學黨彙報〉, 332쪽.

32) 〈聚語〉, 갑오 4월 11일, 〈茂長東學輩布告文〉(《東學亂記錄》上), 142~143쪽.

33) 鄭 喬, 《大韓季年史》上 권 2, 고종 31년 4월, 75쪽.

34) 《兩湖招討曆錄》, 갑오 5월 4일(《東學亂記錄》上), 207쪽.

35) 朴殷植, 《韓國痛史》제2편 제26장, 甲午東學之亂(《朴殷植全書》上), 108~109쪽.  
《東匪討錄》(《韓國學報》3, 〈새자료〉, 1976), 244쪽.

36) 〈湖南儒生原情于招討使文〉, 《東匪討錄》(《韓國學報》3, 〈새자료〉), 259~260쪽.

37) 金允植, 《續陰晴史》上 권 7, 고종 31년 5월, 322~323쪽.

38) 〈湖南會生等上書〉, 《東匪討錄》(《韓國學報》3, 〈새자료〉, 1976), 263~264쪽.  
金允植, 〈又原情列錄追到者〉, 앞의 책, 323~325쪽.

39) 〈全珠準判決宣言書〉(《나라사랑》15, 1974), 147~149쪽.

40) 韓祐勳, 〈東學軍의 弊政改革案檢討〉(《歷史學報》23, 1964)

朴宗根, 〈甲午農民戰爭(東學亂)에 있어서의 ‘全州和約’과 ‘弊政改革案’〉(《歷史評論》140, 1962).

호남회생등상서까지에 모두 제기되고 있고, 개항장 미곡상인의 내지시장 밖에서의 미곡매입 금지요구는 호남유생원정서에서만 제기되지 않았다. 이 두 항목은 모두가 개항후의 미곡수출과 밀접히 연관되는 현상이었다.

일본상인의 내륙지방 행상은 1887년 무렵부터 시작되어 1890년 전후부터는 본격화되었고, 일본 자본주의의 구조 자체의 내적인 요구에 의하여 1890년부터는 한국으로부터의 미곡수출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농민적 상품교환의 장으로서의 농촌장시, 이 장시를 중심으로 한 미곡시장, 그 내부에 미곡판매 농민과 구매농민을 함께 거느리는 재래의 시장구조가 수출시장과의 접촉에 의하여 동요·파괴되기 시작하였다.<sup>41)</sup> 그러나 1894년 당시에는 수출시장과의 연관을 전면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은 이미 현실적인 가능성이 결여된 것이었다. “외국의 潛商이 높은 값으로 쌀을 구입하는 것”<sup>42)</sup>을 시정할 것, “개항장의 잠상이 쌀을 구입하는 것을 일체 금단할 것”<sup>43)</sup> 등은 수출시장과의 연관을 전면적으로 차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핵심은 미곡매매를 농촌장시의 시장질서 내부어로 한정함으로써 농촌장시를 중심으로 한 재래의 시장구조의 파괴를 막고, 그럼으로써 지역적인 재생산구조의 유지를 도모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sup>44)</sup> 전주화약 27개조목의 하나인 “대동上納 전에는 각 개항장의 잠상이 쌀을 구입하는 것을 금단할 것”에서는 그 금단의 시기를 대동상납 전 즉 보리가 나오기 전의 봄철에만 한정하고 있다.<sup>45)</sup> 이 경우에는 쌀값이 올라가는 춘궁기에 있어서의 농촌장시의 보호·방어에 역점을 두고 있다. 즉 수출시장과의 연관을 객관적인 사실로 인정·전제하고서 농촌

41) 吉野誠, <李朝末期에 있어서 穀物輸出의 展開와 防穀令>(《朝鮮史研究會論文集》15, 1978), 110쪽.

42) 주 35)와 같음.

43) 위와 같음. 위와 여기에서 말하는 潛商이란 場市의 시장질서 내부에서 하는 상행위가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서 행하는 상행위로서 장시의 시장질서·시장구조를 교란하는 상행위를 일컫는다.

44) 주 41)의 글, 114쪽 참조.

45) ‘大同上納前’은 “수확 후 조세 納入까지의 기간으로서 米價가 가장 下落하는 시기”(吉野誠, <朝鮮開國後の 穀物輸出에 대하여>, 60쪽의 주 74))가 아니라, “大同米의 收納은 春秋 두 번으로 나누는데 三南과 江原道는 이듬해 봄에 한꺼번에 합쳐서 上納한다”(大典會通 卷2 戶典 徭賦, 景仁文化社, 1969, 282쪽)라고 하였듯이 米價가 가장 올라가는 봄철을 의미한다.

장시=농민적 시장을 중심으로 한 재생산구조의 유지를 도모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1895년 2월 11일의 제2차 법정신문에서 전봉준이 재봉기한 이유를 “일본이 대궐을 범한 연유를 따지고자 하였다”하자, 법관이 “그러면 일본군대와 경성에 머무르는 외국인들을 모조리 구축하려고 하였는가”라고 물었으며 이에 전봉준은 “그렇지 않다. 다른 나라는 단지 통상만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일본은 군대를 거느리고서 경성에 주둔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경토를 침략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되었다”<sup>46)</sup>라고 하였듯이 외국과의 무역관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사실로서 전제하고 있었던 것이다.

전운소의 혁파도 그러한 농촌시장을 전제로 하여, 농민생활에 가해지는 억압과 수탈을 철폐하려는 것이었다. 전운소 창설 즉 “輪船에 의한 상납 이후 每結의 加磨鍊米가 3~4두에 이르렀다”<sup>47)</sup>라는 가마런미는, 전운사 조필영이 인천에서 일본상인에게 선거미만 매도한 것이 아니라 세미본곡까지도 매도하고 그것을 量餘不足米라는 명색으로 농민들에게 재징수한 것이었다.<sup>48)</sup> 즉 미곡수출로 인한 세미곡 상품화의 증대에 따른 과세의 가중이었다. 따라서 전운소 혁파의 요구는 미곡상품화의 증대추세에 있어서 탐학관료의 세미곡 상품화 증대에 대한 농민적 미곡상품화 지향의 저항이었다. 이러한 저항은 이미 고부민란의 경우에도 나타나고 있었다. 전운에 대한 농민층의 반감·저항은 “동도가 나그네로 가장하여 인천 제물포에 와서 전운사위원 1인을 유인하여 배에 싣고 멀리 사라져버렸다. 동도는 진작부터 전운소에 대하여 묵은 반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sup>49)</sup>라는 기록에도 잘 나타나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농민군은 농민의 생산력 발전의 장애물 제거와 농민의 소상품생산자로서의 자립·발전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sup>50)</sup> 농촌소상인의 자립·발전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며 아울러 균전폐지의 요구에서 나타나

46) <全琿準供草>, 을미 2월 11일, 再招問目(《동학란기록》하), 538쪽.

47) 金允植, 《續陰晴史》上 권 7, 고종 31년 갑오, <五月, 全羅道儒生等原情于巡遊使李元會 革弊後錄>의 제11조, 323쪽.

48) 吉野誠, <朝鮮開國後の 穀物輸出에 대하여>(《조선사연구회논문집》15, 1978), 49쪽.

49) <東學黨의 情形>(《朝鮮交涉資料》中), 338쪽.

50) 梶村秀樹, <李朝末期(開國後)의 綿業의 流通 및 生産構造>(《朝鮮에 있어서 資本主義의 形成과 展開》, 龍溪書舍, 1977), 115~116·119~120쪽과 주 17) 참조.

듯이 농민적 토지소유의 발전을 요구하고 그러한 보장을 대원군정권의 성립에서 기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농민군은 이상과 같은 기대에의 저지물로서 민씨척족정권을 그 상징으로 하는 봉건적 제관계를 주요한 것으로, 다음 일본을 그 대표로 하는 외국의 경제적 침투를 부차적인 것으로 인식하였다. 3월 25일에 발표한 ‘4개명의’에서는 ‘왜오랑캐를 쫓아내어 버린다’라고 하였지만 제1차 농민전쟁 당시에는 아직 “일본인이 직접 공격목표가 되었다기보다도 국가의 내정문제로서 위정자 즉 부패관권에 대한 경고로서 발하여진 것이었다.”<sup>51)</sup> 위에서와 같이 제1차 농민전쟁의 경제적 지향은 소상품생산자·소상업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5월에서 9월까지의 집강소의 단계이다. 집강소 단계에서의 폐정개혁은 《東學史》에 나오는 ‘폐정개혁건 12개조’<sup>52)</sup>의 사항들이었다. 12개조중 제12조인 ‘土地의 平均分作’ 이외에는 실현되었다고 보인다. 미처 실현되지 못한 제12조까지 포함하여 농민군의 경제적 지향을 요약하면, 경제관계에서의 봉건적 폐단의 개혁, 均産의 실현, 농민적 토지소유의 실현, 농업생산력 발전의 실현<sup>53)</sup> 등이었다고 생각된다. 기본적으로는 제1차 농민전쟁 단계와 같았지만 농업생산력의 발전이라는 視角이 새로이 보완됨으로써 한걸음 더 역사적으로 전진되었다고 생각된다.

### 3) 국가·민족·국민

제1차 농민전쟁의 단계에서 농민군은 민씨척족정권의 제거와 대원군정권의 성립을 기대하였다. 1894년 3월 25일의 四個名義에서는 “군대를 이끌고 서울에 들어가 權貴를 모두 없앤다”고 하였는데, 권귀란 4월 4일 법성포 吏鄕에게 보낸 통문<sup>54)</sup>에서 “민폐의 근본은 吏逋에 말미암고 이포의 근본은 탐

51) 韓祐勗, 〈東學軍의 弊政改革案檢討〉(《歷史學報》23, 1964), 68쪽.

52) 吳知詠, 《東學史》, 126~127쪽.

53) 필자는 ‘土地의 平均分作’을 토지소유의 재분배가 아니라 토지경작의 재분배라고 생각하며, 이 점에서 정약용의 《경세유표》에서의 정전제 개혁안에서의 농업생산력 발전의 원리를 계승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54) 주 31)과 같음.

관에 말미암고 탐관의 범행은 탐학·부정한 집권층에 말미암는다”고 한 탐학·부정의 집권층을 의미하며, 또 박은식이 “동도가 창궐한 초기에 그들은 장차 서울로 북상하여 왕 측근의 뿔을 쓸어버리겠다고 부르짖었다”<sup>55)</sup>고 한 ‘왕 측근의 악’을 의미하며, 4월 28일 농민군이 전주를 점령하고서 전주 남문에 게시한 방문<sup>56)</sup>에서 “대저 나라의 형세로 말하면 집권대신은 모두 외척으로서 밤이 지새도록 경영하는 것은 다만 일신·일파의 사리뿐이고 자기네 일당을 각 고을에 깔아놓아 백성해치기로서 일을 삼는다”고 한 외척 즉 민씨척족정권이었다. 진봉준은 또 제1차 법정재판 직전에 독립 제19대대장 南小四郎에게 낸 구공서에서도 “원래 우리들이 기병한 것은 閔族을 무너뜨려서 폐정을 개혁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다”<sup>57)</sup>라고 하였다. 전주화약의 27개 조목에서 “왕의 총명을 막아 가리고 매관매작하며 國權을 조종·농간하는 자들을 일제히 축출할 것”이라고 하고 5월 20일 무렵 장성에서의 폐정개혁요구<sup>58)</sup>에서 “간신이 권력을 농간하여 나라일이 날로 그릇된다. 그 매관매직을 처벌할 것”이라고 한 것도 민씨척족정권의 축출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민씨척족정권에 대한 부정은 다른 정권의 성립에 대한 기대로 귀결되지 않을 수 없다. 농민군은 4월 20일 무렵 초토사에게 보낸 湖南儒生原情書<sup>59)</sup>에서 “일이 이 지경에 이르른즉 역조창생이 마음을 같이 하고 8도의 백성이 뜻을 모아 위로는 國太公(大院君-인용자)을 받들어 섭정을 맡겨 부자의 인륜과 군신의 義를 온전히 하며 아래로는 백성을 편안케 함으로써 종묘·사직을 다시금 보존할 것을 죽기를 맹서하고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고, 전주에서 화약교섭중이었던 5월 4일에 초토사에게 보낸 訴志<sup>60)</sup>에서는 “太公을 받들어 섭정을 맡기자는 것은 그 이치가 심히 당연하거늘 어찌하여 반역이라 일컫고 살해하는가”라고 하여 대원군정권 성립의 요구를 명백히 나타

55) 朴殷植, 《韓國痛史》(《朴殷植全書》上), 111쪽.

56) 鄭 喬, 《大韓季年史》上 권 2, 고종 31년 4월, 75쪽.

57) 《東京朝日新聞》, 명치 28년 3월 5일(《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22, 사운연구소, 1996), 509쪽.

58) 鄭 喬, 《大韓季年史》上, 고종 31년 5월, 86쪽.

59) 주 36)과 같음.

60) 주 34)와 같음.

내었다. 이러한 요구는 5월 20일 무렵 장성에서의 폐정개혁 요구에서도 “국태공이 국정에 참여하면 민심에 거의 희망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여 재확인되고 있다. 대원군 정권 성립에의 이러한 기대는 동학의 8자주문에도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었다.<sup>61)</sup>

민비척족정권에 대한 농민군의 부정이 당시의 권력관계에서 그것의 대극점에 위치하고 있었던 대원군의 섭정으로 귀결되었다는 것은 농민군의 권력구상이 기존의 권력관계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있지 못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봉건적 억압과 외래 자본주의 침략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소상공 생산자로서의 자립·발전을 지향하였던 농민군이 사회적 해방의 권력의 이미지는 대원군의 섭정에서 끝막음하고 있었다. 따라서 농민군의 국가구상은 재래의 유교적인 국가의식, 민본 이데올로기 즉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고 근본이 깎이면 나라가 잔약해진다’는 ‘輔國安民’ 의식에서 머물고 있었다.<sup>62)</sup> 물론 ‘보국’의 방법으로서의 ‘안민’의 실제적 내용에 새로운 성격이 담겨 있는 것은 앞의 경제적 지향에서 이미 본 바와 같다.

실제로 농민들에게는 오랜 동안의 恭順과 忍從의 생활에서 습성화된 권력 공포증세가 있었다. 예컨대 1894년 1월에 농민군들이 白山으로 옮긴 뒤에 전봉준이 고부민란 중민들에게 ‘함열 조창에로 나아가 전운영을 치고 전운사 조필영을 정치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군중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것은 民擾가 越境을 하면 반란의 칭을 받는다는 이유”였고,<sup>63)</sup> 민란 중민들은 해산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농민군은 폐정개혁을 요구하는 주체로서의 자기의 정치적 위치를 조정 즉 정부에 직접 건의한다는 차원에조차 두지 못하였다. 1895년 2월 11일의 제2차 법정신문에서 전봉준의 진술은 다음과 같았다.<sup>64)</sup>

61) ‘卽以今知 院位大監’ 韓國教會史研究所 Mutel 文書(韓祐劬, 〈東學思想의 本質〉(《東方學志》10, 1969), 55쪽 주 33)에서 재인용.

62) 〈茂長東學輩布告文〉(《東學亂記錄》上), 142~143쪽. 〈倡義文〉(《東學史》), 108~109쪽.

63) 張奉善, 〈全瑛準實記〉(《井邑郡志》, 1937), 353쪽.

64) 〈全瑛準供草〉, ‘再招問目’(《東學亂記錄》下), 538쪽.

문 : 그렇다면 訴狀을 내어서 호소하지 않았는가?

답 : 감영과 고을에 수없이 소장을 제출하였다.

문 : 그렇다면 조정에도 또한 소장을 내어 호소하였는가?

답 : 소장을 낼 길이 없어 홍계훈 대장이 전주에 머무르고 있을 때에 이러한 사정을 소장으로 호소하였다.

소장을 낼 길이 없었다는 것은 당시의 제도에도 말미암았겠지만 조정의 직접 건의라는 발상, 즉 조정 대 농민군이라는 위치설정의 의식이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농민군은 스스로를 홍계훈의 대극점에 두는 데서 그치고 있었다.

그러나 홍계훈 관군의 대극점의 위치설정도 사실은 제1차 농민전쟁 말기에 쟁취된 것이었다. 초토사 홍계훈의 보고에 의하면 1894년 4월 22일 경군이 “함평에 도착하여 농민군 수천명과 맞닥뜨려 장차 교전하려 함에 농민군이 산에 올라 큰 소리로 말하기를 이 군대는 主上의 명을 받들어 내려온 것이다. 탐관(지방관-인용자)의 군대와는 질이 다르니 결코 대항하지 않겠다. 만약 항전하면 우리는 逆徒의 죄를 벗을 수 없다고 하였다. 경군이 동쪽으로 향하면 그들은 서쪽으로 도주하고 경군이 서쪽으로 향하면 그들은 동쪽으로 달아나 접전하기가 불가능한 형세이다. 심히 답답하다”<sup>65)</sup>고 하였다. 4월 22일자 전라감사의 전보에 의하면 “동도가 전주 남문 밖에 투서하였는데 그것을 펴보니 경군에는 대항하지 않고 지방군은 반드시 격파하여 탐관을 축출하고 부정한 아전을 소멸하겠다. 이것이 우리들의 보국안민의 본뜻이다. 비록 백년이 지나도 결코 물러서 해산하지 않겠다”<sup>66)</sup>고 하였다. 4월 23일의 장성전투에서의 경군에 대한 승리 이후에 농민군은 경군과도 대적할 자세를 확립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집강소 단계에서의 농민군의 국가구상도 제1차 농민전쟁 단계의 그것과 다름이 없었다고 보인다. 이 단계에서의 사회적 해방의 권력의 이미지는 官民相和를 전제로 한 지역적 권력의 성립으로서 표출되었다. 즉 봉건적 신분제의 철폐, 봉건적 지주전호제도의 개혁을 집강소라는 좁은 범위의 지역권력

65) <東學黨에 관한 彙報>(《朝鮮交涉資料》中), 339쪽.

66) 위의 책, 340쪽.

으로써 실현하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좁은 지평에서나마 농민층의 권력의 이미지가 현실화되었다는 것은 한국역사상 초유의 일이었다고 획기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다. 짧은 기간, 좁은 범위의 지역권력의 체험은 다음 단계에서의 새로운 권력구상으로 발전해 가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집강소의 권력의 이미지도 민본 이데올로기 울타리 안에서의 것이었다. 농민군은 전주화약 27개 조목의 실시에 대한 기대에서 6월 무렵까지는 벗어나지 못하였다. 1895년 2월 11일의 제2차 법정재판에서 “결목(27개 조목-인용자)을 제출한 이후에 탐관을 제거하는 성과가 있었는가?”라는 법관의 물음에 전봉준은 “별 성과가 없었다”고 하였고 “그렇다면 홍계훈 대장이 백성을 속인 것이 아닌가” “그렇다” “그렇다면 백성이 어찌 다시 호소하지 않았는가” “그 후 홍계훈 대장은 서울에 가버렸으니 다시 어찌 호소하리오”<sup>67)</sup> 라고 하였고 제3차 법정재판에서 “9월 봉기 이전 조정의 효유문은 하나 둘이 아니었으나 끝내 실시되지 않았다”<sup>68)</sup>고 하였듯이 27개 조목 폐정개혁 실시에의 기대를 포기하지 않았고 또 농민군 스스로를 조정의 대극점에 위치 설정하지도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그 기대를 포기하지 않은 데에는 정부의 일정한 대응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6월 11일 정부에서는 오랫동안 쌓여온 폐단을 고침으로써 大更張·大懲創하기 위하여 校正廳을 설치하고 6월 16일에는 12개 항목의 개혁항목을 공표하였다.<sup>69)</sup> 이 항목들은 “모두 동학당의 原情(폐정개혁 요구-인용자) 안에 있는 것들이었다. 점진적으로 자주개혁함으로써 일인들의 요구를 막아보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임시변통으로 미봉하는 것이어서 여전히 형식일 뿐이었다. 어찌 이것으로써 농민란을 처리할 수 있으리오”<sup>70)</sup>라고 김윤식은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대체로 6월까지의 상황이었고, 집강소 폐정개혁 12개조가 개별 시차적으로, 지역적으로도 들쭉날쭉하게 형성되어가던 6월말부터는, 농

67) <全琿準供草>, ‘再招問目’(《동학란기록》 하), 538쪽.

68) <全琿準供草>, ‘3次問目’, 547쪽.

69) 金允植, 《續陰晴史》上, 고종 31년 6월 24일, 325~326쪽.

70) 위의 책, 320쪽.

민군의 지방행정기관으로서의 집강소는 국가의 지방행정권력기구와 병존하면서 자신의 지방지배권을 사실상 관철시켜 나아갔다. 이러한 집강소의 경험으로 농민군들은 자신들이 지배권력에 일방적으로 恭順하고 順從하는 객체적인 被治物만은 아니라는 의식을 가지기 시작하였다고 생각된다.

9월의 제2차 농민전쟁도 보국안민의 실현이었다. 그러나 이전의 보국안민과는 그 내용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가 발견된다. 첫째 백성 즉 농민군의 뜻을 직접 왕에게 상세히 펼치겠다는 것이었다. 전봉준은 제3차 법정재판에서 “下情(백성의 사정과 뜻-인용자)은 왕에게 알려지지 않고 上澤(왕의 덕정의 혜택-인용자)은 백성에게 미치지 않았다. 고로 일차 서울에 올라가 기어이 백성의 생각을 상세히 펼치려고 하였다”<sup>71)</sup>고 말하였다. 즉 농민군 스스로를 홍계훈의 대극점, 조정의 대극점에서 뛰어넘어 왕에게 직접 호소하는 對面의 위치에 설정하고 있었다. 백성의 사정과 뜻을 직접 왕에게 전달하겠다는 의식은 농민의식의 민주주의적 발전의 단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둘째 위의 필연적 귀결로서 대원군 섭정에의 기대를 전적으로 포기하였다는 사실이다. 제1차 농민전쟁 단계에서는 농민군의 대원군 섭정에의 기대가 전혀 일방적 희망일 뿐이었고 9월의 단계에서는 대원군으로부터의 구체적 결탁 제의가 있었고, 농민군도 그 제의에 호응하여 결탁하려는 움직임도 현실적·구체적으로 있었지만, 그것은 대원군 정권수립의 기대에서가 아니라 농민군의 정치적·군사적 행위에서의 전략적·전략적 세력연합의 차원에서였다. 즉 대원군정권 수립의 기대에서 전략적·전략적 이용의 대상으로의 변환이었다.

셋째 9월 재봉기의 목적은 일본세력을 몰아내려는 것이었다. 일본군은 6월 21일 새벽 경복궁을 포위 점령하여 민씨척족정권을 타도하고 이어 한국군의 무장을 해제하고 국권을 장악하였다. 6월 23일에는 수원부의 楓島 앞바다에서 청일전쟁을 일으키고 6월 25일에는 군국기무처를 신설하여 친일 개화당 정권을 성립시키고 7월 20일에는 잠정합동조관을, 7월 26일에는 한일공수동맹을 체결함으로써 개화당 정권을 손안에 장악하였다.

71) <全琿準供草>, ‘3次問目’(《동학란기록》 하), 547쪽.

이러한 일본군의 행동을 전봉준은 7월 말 8월 초에 남원에서 듣고<sup>72)</sup> 이것은 한국의 국토를 침략하려는 것이라고 생각되어<sup>73)</sup> “우리를 臣民된 자들로서는 일각도 안심할 수 없어 이해(거사의 성패-인용자)가 어찌될 것인가는 생각지 않고”<sup>74)</sup> “忠義之士는 같이 창의하자는 뜻으로 방문을 내걸고 또는 각처에 이 봉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不忠無道한 사람이라는 통문을 돌려”<sup>75)</sup> 재차 봉기하게 되었다. 즉 “피고는 일본군대가 대궐에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필시 일본군이 我國을 병탄코자 하는 것인줄 알고 일본병을 물리치고 그 거류민을 국외로 구축할 마음으로 다시 기병을 도모”하였다.<sup>76)</sup> 일본에의 병탄을 막고 일본인을 축출하는 것이 9월 재봉기의 목적이었다.

그러나 농민군 재봉기가 일본군의 경복궁 쿠데타, 그리고 한일공수동맹 등이 있는 직후 즉 8월에 결정되지는 않았다. 거기에는 “전봉준이 때마침 신병이 있었고 많은 사람을 일시에 움직이기도 어렵고 아직 새쌀이 나오지 않은 농번기”<sup>77)</sup>였다는 사정, 그리고 북쪽의 소극적인 태도라는 사정도 있었겠지만 신분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갑오경장에 대한 기대도 있었다고 보인다.

1894년 7월 10일에는 일체의 상납을 金納으로 할 것을 결정하고<sup>78)</sup> 8월 22일에는 그것을 재확인하고 구체적으로 結價를 정하기로 결정하였다.<sup>79)</sup> 이에 대한 농민층의 반응은 “새 政습이 한번 반포되자 백성은 모두 발을 구르며 좋아하여 洋을 따랐는지 倭를 따랐는지는 묻지 않고 모두 기뻐하여 재생의 기색이 있었”<sup>80)</sup>으며 “稅米를 代錢으로 하는 頒습이 있고부터 民情은 흡연하여 앞을 다투어 바쳤다”<sup>81)</sup>고 한다. 농민전쟁 때 전봉준과 상의하여 농민군을 이끌고 서울로 쳐들어가 정부를 전복하고 國憲을 일신하려고 하였다<sup>82)</sup>李

72) <전봉준공초>, ‘3차문목’(《동학란기록》하), 548쪽 ; ‘4차문목’, 552쪽.

73) <전봉준공초>, ‘재초문목’(《동학란기록》하), 538쪽.

74) 위의 책, 541쪽.

75) 위의 책, ‘초초문목’, 530쪽.

76) <전봉준판결선고서>(《동학관련판결문집》, 총무처정부기록보존소, 1994), 30쪽.

77) <전봉준공초>, ‘3차문목’(《동학란기록》하), 548쪽.

78) 《한말근대법령자료집》1, 1894년 7월 10일, <의안>, 26쪽.

79) 위의 책, 1894년 8월 22일, <의안>, 95쪽.

80) 黃 玹, 《梅泉野錄》, 고종 31년 12월, 168쪽.

81) 위의 책, 178쪽.

82) 정인보, <해학이공묘지명>(《해학유서》, 국사편찬위원회, 1956), 9쪽.

沂도 “작년부터 전세는 돈으로 걷는데 농민에게는 倉費가 없어지고 국가에는 漕弊가 없어지게 되었으니 실로 만세에 고쳐서는 안될 법이다”<sup>83)</sup>라고 평가하였다. 실제 1894년 12월에 결가를 1결에 30냥으로 정할 때 1결의 현물세를 쌀 19두 6승 2흡으로 잡고 당시의 쌀값으로 환산한 것이니까<sup>84)</sup> 농민층에 대한 개화당 정부의 조세면에서의 상당한 양보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보아서 갑오경장에 대한 농민군의 일정한 기대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고 보인다.

1894년 9월 18일 일본은 자기네가 농민군을 진압하겠다고 나섰고 21일 개화당 정권은 이를 수락하였다.<sup>85)</sup> 농민군 토벌을 위한 개화당 정권-일본의 결합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무렵에 전라도 농민군의 재봉기가 확정되었으니 “匪徒는 호남으로부터 공주 등지에 이르기까지 길에 깔려 있었던 것이다.”<sup>86)</sup> 아직까지는 적대적이지 않았던 개화당 정권과 농민전쟁의 모순, 지주적 토지 소유 발전의 코스와 농민적 토지소유 발전의 코스의 모순이 이제 일본 자본주의 침략세력의 개입에 의하여 적대적인 성격의 모순으로 전화되었다.

일본에의 한국병탄을 저지하고 일본인들이 이 땅에서 축출하겠다는 9월 재봉기의 목적의 바탕에는 “조선으로 왜국이 되지 않게 하는”<sup>87)</sup> 의식 즉 ‘倭國化’를 반대하는 의식이 깔려 있었다. 농민군들의 경우 ‘왜국화’의 내용은 “금년 유월에 개화간당이 왜국을 체결하여 승야 입경하여 君父를 꺾박하고 국권을 擅恣하며 우황 방백수령이 다 개화 소속으로 인민을 무휼하지 아니코 살륙을 좋아하며 생령을 도탄함에”<sup>88)</sup>라고 하였듯이 일본군과 개화파세력에 의한 ‘국왕과 國權의 허구화’였다.

이 이전 대원군 섭정에의 기대도 민씨척족정권에 의하여 허구화된 국왕에 국왕으로서의 실체를 부여하기 위한 방법에서였다. 농민군이 갖고 있었던 유

83) 위의 책, <전제망언>, 8쪽.

84) 金容燮, <光武年間の 量田・地契事業>(《韓國近代農業史研究》下, 일조각, 1988), 472쪽.

85) 《日案》3, (고대아세아문헌연구소, 1967), 94~95·98쪽.

86) 《日案》3, 99쪽.

87) <告示. 京軍與營兵而教示民>(《東學亂記錄》下), 379쪽.

88) 위와 같음.

교적인 정치의식에 의하여서도 국왕·국권에 실체가 부여되지 않고는 그 정치의식 자체가 존립될 수 없었기 때문에 9월 재봉기의 단계에서도 실체부여의 방법은 모색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선사람끼리야 道俗은 다르나 斥倭와 斥化는 그 義가 일반이라 두어자 글로 의혹을 풀어 알게 하노니 각기 돌려보고 忠君憂國之心이 있거든 곧 의리로 돌아오면 상의하여 같이 斥倭斥化하여 조선으로 왜국이 되지 아니케 하고”<sup>89)</sup>라고 하였듯이 실체 부여의 방법은 ‘척왜·척화를 원칙으로 한 한국 주민의 결집’이었다.

9월 재봉기 이전의 단계에서는 농민군의 사회적 해방의 이미지가 대원군 정권의 성립이라는 권력의 이미지로 나타났는데 9월 재봉기의 단계에서는 농민군의 사회적 해방의 이미지가 ‘척왜·척화를 성취하는 주체로서의 한국 주민의 결집’으로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유교적 정치이론의 명에서 벗어나서 민족으로서의 결집으로 나아가는 의식의 단서가 마련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1894년 10월 13일 청주 부근에서 농민군과 대치한 장위영 부영관 李斗璜은 효유문에서 “또 너희들이 말하는 바 道, 德을 따져보자. 너희들은 덕을 일컬으면서 敬天이라고 하고 輔國이라고 하며 安民이라고 하는데 모두가 우리 道의 지류를 몰래 도적질하여 따로 이 한 기치를 세운 것이다. 만일 너희들이 이것에만 일삼고 다른 폐악한 행동이 없다면 조정에서 어찌 금지하는 영을 내리겠는가(중략) 지금 너희들의 행동을 너희들의 말과 비교해보면 말은 가공의 것이고 행동은 匪類이니 이는 하늘을 업수이 여기는 것이다”<sup>90)</sup>라고 하였는데 특히 9월 단계의 농민군의 의식·행동의 발전에 적합한 표현이었다.

위의 결집에는 이미 앞에서 보았듯이 동시에, 백성의 사정과 뜻을 직접 왕에게 전달하겠다는 의식이 동반되어 있었다. 따라서 그 결집의 구조는 反侵略·反封建을 전제로 하고, 소상공생산자로서의 자립·발전의 지향을 중심으로 하며, 그것의 反植民地化·反開化에로의 확대·발전이라고 생각된다. 이것은 당시의 역사적 조건에서는 ‘근대민족으로서의 결집·형성’으로 귀결되

89) 위와 같음.

90) <양호우선봉일기>, 갑오 10월 13일(《동학란기록》상), 272~273쪽.

는 것이었다.

이러한 발전은 농민군의 구성에서도 반영되었다. 9월 이전 단계의 농민군은 전라도의 농민으로만 구성되었다는 지방적 제한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제1차 재판에서 “전주에 들어갈 때 (삼례에서 재봉기하여 전주로 입성할 때—인용자) 군사를 불러 모음에 전라도의 온 인민을 몽땅 끌어 모았는가?” “각도의 인민이 상당히 많았다” “공주로 나아갈 때에도 또한 각도의 인민이 상당히 많았는가?” “그때도 그랬다”라고 하였듯이<sup>91)</sup> 9월 재봉기의 농민군은 남한 일대의 농민으로 구성되었다.

다시 말하면 국왕·국권의 절대성을 자명의 전체로 하는 유교적 정치의식의 궤도를 충실하게 따라감으로써 그것에의 실체부여가 요구되었고, 그 요구가 개화와 침략일본과의 결탁에 의하여 촉발됨으로써 근대민족으로서의 결집이 요청되었고, 여기에서 농민군의 정치의식에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 유교적 정치의식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이와 같이 9월 재봉기의 단계에서 농민의 정치의식은 민주주의적 발전의 단서가 열리고 유교적 정치의식에서 벗어나 자립화하며, 민족으로서의 결집에 눈뜨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의식은 국권이 허구화하거나 소멸하더라도 그것에 의하여 굴절되지 않고 자기의 독자적인 발전의 길, 민족과 민주주의에의 전망을 넓혀갈 수 있는 토대를 이미 쟁취하고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공동체적 재판계가 완전히 청산됨으로써 계급으로서의 결집이 객관적으로 가능하고도 필연화되는 단계가 되면 위의 정치의식은 민족해방의 이데올로기로서 다시 한번 비약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끝내 국권주의·국가주의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따라서 민족해방의 이데올로기로 비약할 수 없었던 개화사상의 정치의식과는 좋은 대조를 이루는 것이었다.

제2차 농민전쟁에서는 아울러 농민군의 의식에서 새로운 변화의 싹이 보이고 있다. 전봉준은 농민군 재봉기의 이유에 대해 “다른 외국인들은 단지 통상만 할 뿐인데 일본인은 군대를 거느리고 京城에 주둔함으로 우리나라 境土를 침략하는 것으로 의심되었기 때문이다”<sup>92)</sup>라고 하였고, “피고(전봉준—

91) <전봉준공초>, ‘초초문목’(《동학란기록》 하), 529~530쪽.

92) <전봉준공초>, ‘재초문목’(《동학란기록》 하), 538쪽.

인용자)는 일본군대가 대궐로 들어갔단 말 듣고 필시 일본인이 我國을 併呑코자 하는 뜻인줄 알고”<sup>93)</sup> 재봉기하였다고 한다.

告示·京軍與營兵 而教示民

無他라 일본과 조선이 開國 이후로 비록 隣邦이나 累代 敵國이더니 聖上의 仁厚하심을 힘입어 三港을 許開하사 通商以後 갑신십월의 四凶이 挾敵하여 君父의 危殆함이 朝夕에 있더니 宗社의 洪福으로 奸黨을 消滅하고 금년 유월에 開化奸黨이 倭國을 締結하여 乘夜入京하여 軍부를 逼迫하고 國權을 擅恣하며 虜方 方伯守令이 다 개화중 소속으로 인민을 撫恤하지 아니코 殺戮을 좋아하며 生靈을 塗炭함에 이제 우리 동도가 의병을 드러 왜적을 소멸하고 개화를 제어하며 朝廷을 淸平하고 社稷을 안보할새 (하략)<sup>94)</sup>

11월 12일의 창의 고시에서는 일본군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조선 국왕이 꺾박당하고 사직의 안보가 위태로우며 國權이 擅恣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동경일일신문》은 제2차 농민군 봉기에서의 ‘擧兵의 名義’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sup>95)</sup>

우리들은 전에 폐정을 蠶革할 목적으로 일어났으나 詔諭가 있어서 초토사와 화약을 맺고(중략) 일본은 大兵을 파견하여 我國家를 呑하려고 하여, 日兵은 大擧 境土를 제압하고 이미 京城에 들어왔는데, 이에 국가가 위급하고 존망이 갈리었다. 진실로 國을 생각하는 者는 창을 들고 일어나 방어해야할 때이다. 宮中の 일은 물을 겨를조차 없으므로 우리가 먼저 일어나 日兵을 방어해야 한다. (하략)

농민군은 일본군의 침략을 ‘我國家를 呑하려는 것’, 한국의 ‘境土를 제압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농민군은 제2차 농민전쟁의 단계에서 國家와 國權과 境土를 유기적으로 일체화시켜서 인식하고 있었다. 일정한 經界 안에서 효력을 가지는 國權이 있는 것을 國家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 國家와 자신의 운명을 일체화시켜서, 자신을 그 구성원으로 하는 영역국가에 헌신하려고 하

93) <전봉준판결선고서>(《동학관련판결문집》, 총무처정부기록보존소, 1994), 30쪽.

94) <선유방문 병동도상서소지등서>(《동학란기록》 하), 379쪽.

95) 《동경일일신문》, 명치 27년 8월 5일(《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 22, 사운연구소, 1996), 509쪽.

는 농민군은 국민의 일보직전의 상태에 자신을 갖다놓았다고 생각된다.

원래 우리들이 병을 일으킨 것은 閔族을 타도하고 폐정을 개혁할 목적이었지만, 閔族은 우리들의 입경에 앞서 타도되었기 때문에 일단 병을 해산했다. 그런데 그후 7월 일본군이 경성에 들어가 왕궁을 포위했다는 것을 듣고 크게 놀라 동지를 모아서 이를 쳐엎애려고 다시 병을 일으켰다. 단 나의 종국의 목적은, 첫째 閔族을 무너뜨리고 한패인 간신을 물리쳐서 폐정을 개혁하는 데 있고, 또한 轉運使를 폐지하고 田制·山林制를 개정하고 私利를 취하는 小吏를 엄중히 처단할 것을 원할 뿐이다.<sup>96)</sup>

전봉준은 12월 초순 南小四郎에의 口供에서 농민전쟁의 목적을 위에서와 같이 田制를 개정하고 탐관오리를 처단하는 내정혁신이라고 하였다. “적어도 전봉준이 있는 한은 적어도 순수동학당(농민군-인용자) 만큼은 일본 배격 때문에 그들의 內政更革의 本願을 버려버리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sup>97)</sup> 보도에서처럼, 농민군의 기본목적은 내정개혁이었고, 항일전쟁은 부차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위에서와 같은 국민의식에서의 접근 역시 내정개혁을 위한 농민군의 투쟁, 특히 집강소의 역사적 경험의 기반 위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이러한 정치의식에서의 전진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권력구상<sup>98)</sup>으로 결실되고 있었다.

일본군을 몰아내고 惡奸의 吏를 쫓아내어 임금 곁을 깨끗이 한 후에는 몇 사람 柱石의 士를 내세워서 정치를 하게 하고 우리들은 곧장 농촌에 돌아가 常職인 농업에 종사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國事를 들어 한 사람의 세력가에게 맡기는 것은 크게 폐해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몇 사람의 명사가 協合하여 會議法에 의하여 정치를 담당하게 할 생각이었다.

1895년 1월 말 일본영사관에서의 일본인 경부의 “너는 경성에 공격해 들어온 후에 누구를 추대하려고 생각하였는가”라는 질문에 전봉준은 위와 같

96) 《동경조일신문》, 명치 28년 3월 5일(《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 22), 369쪽.

97) 《二六新報》, 명치 27년 11월 11일(《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 22), 149쪽.

98) 《동경조일신문》, 명치 28년 3월 6일 <동학수령과 합의정치>(《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 22), 372쪽.

이 대답하면서, 폐정개혁·내정개혁을 담보하는 새로운 권력구조로서 몇 사람의 名望家의 合議法에 의한 정치운영의 권력구조 구상을 나타내었다. 전봉준은 한 사람의 세력가가 정치를 담당하는 민씨척족정권의 권력구조 형태와 대원군 권력구조 형태를 모두 비판하였다. 전봉준은 “원래 우리나라의 정치를 그르친 것은 모두 대원군이기 때문에, 인민이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다”<sup>99)</sup>라고 하였다. 전봉준은 이제 대원군에의 기대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전봉준은 대원군을 배척하지는 않았다. 斥洋과 斥倭에서는 일치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sup>100)</sup> 전봉준이 말하는 ‘몇 사람 柱石의 士’에는 대원군 세력도 포함되는 것이라라고 짐작된다. 항일 연합전선의 대상인 척사위정의 보수유림세력도 또한 포함되는 것이라라고 짐작된다. 전봉준은 제2차 농민전쟁의 단계에서는 내정혁신을 위한 방법으로서 항일의 연합전선과 연합정권까지 구상하였다. 농민군 세력도 연합정권의 일각에 자리시켰을 가능성도 농후하였다. 그러나 “우리들은 곧장 농촌에 돌아가 상직인 농업에 종사할 생각이었다”고 하듯이 농민군 스스로를 국권의 담당주체로 인식하는 정치의식은 성립되지 못하였다. 농민군은 영역국가에서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배제하여 국가가 정치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으로서의 國權 즉 主權을 의식함으로써, 영역국가와 主權을 국가정치의 원칙으로서 드러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國權·主權의 담당자로서의 국민은 인식되지 못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농민군은 근대적 내셔널리즘 일보 전의 단계에는 도달하였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농민전쟁은 객관적으로는 농민층에 의한 밑으로부터의 길에 의한 국민국가 형성의 길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농민전쟁은 기본적으로는 일본군의 무력탄압으로 말미암아, 즉 농민군을 ‘살륙’함으로써 농민군 세력을 한반도로부터 ‘剷滅’하려고 한<sup>101)</sup> 일본의 군사력에 의하여 좌절되었다. 1894~1895년의 갑오경장으로 한국은 淸에의 번속체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형식상 모든 단위국가의 대등성을 전제로

99) 《동경조일신문》, 명치 28년 3월 5일 <동학당 대두목과 그 자백>(《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 22), 369쪽.

100) 《동학사》, 158쪽.

101) 井上勝生, <甲午農民戰爭(東學農民戰爭)과 日本軍>(《近代日本の 内와 外》田中彰 編, 吉川弘文館, 1999), 272쪽.

하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국제질서에서 독립국가로 정립되었으나,<sup>102)</sup> 농민전쟁의 좌절로 말미암아 수식민지로서의 성격을 심화시켜 나아갔다. 淸은 청일전쟁에서의 패배로 말미암아 瓜分의 위기에 처함으로써 종속국에로의 길로 들어섰음에 반하여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타민족을 억압하는 제국주의에로의 길로 명백히 들어서게 되었다. 동학농민전쟁은 결과적으로 동아시아 3국의 양극분해를<sup>103)</sup> 촉진함으로써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체제가 확립되는 계기를 이루었다. 그러나 동학농민전쟁은 그 이후 한국에서의 모든 민족·민주 변혁운동에서 끊임없이 역사적 기억과 사회적 傳記로서 소생함으로써 그 운동들의 동력으로서 거듭 부활하였다.

〈鄭昌烈〉

102) 졸고, <근대국민국가인식과 내셔널리즘의 성립과정>(《한국사 11, 근대민족의 형성 1》, 한길사, 1994), 70쪽.

103) 梶村秀樹, <東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제국주의 체제에의 이행>(《발전도상경제의 연구》, 세계서원, 1981; 《梶村秀樹著作集 2-朝鮮史의 方法-》, 명석서점, 1993 재수록), 292~299쪽.

## 찾아보기

### [ㄱ]

- 가리 假吏 233  
 가설직 加設職 240  
 가작 加作 276  
 가작경영 加作經營 259  
 가작제 加作制 255  
 〈각도동학유생의송단자〉 〈各道東學儒  
 生議送單子〉 288  
 〈각도유생의송단자〉 〈各道儒生議送單  
 子〉 289  
 감결 甘結 393  
 감관 監官 310  
 「감국대신」 「監國大臣」 16, 21, 32  
 감동 監董 178  
 감리서 監理署 177  
 감운위원 監運委員 100  
 감조론 減租論 250  
 감타관 監打官 264  
 갑리 甲利 255  
 갑신정변 甲申政變 17~19, 34, 53,  
 54, 74, 85~88, 97, 98, 102, 108, 117, 120,  
 123, 125, 127, 128, 132, 153, 157, 164,  
 169, 251  
 갑오개혁 甲午改革 52, 234, 249, 263,  
 402, 409, 412  
 강건회 姜建會 447  
 강사 講師 395  
 강석 講席 433  
 강시원 姜時元 289, 293  
 강장 講長 395  
 강진희 姜進熙 112  
 강화도조약 江華島條約 14, 45, 425  
 강화산 姜華山 437  
 강화진무영 江華鎭撫營 103  
 개항장객주 開港場客主 162, 163, 164,  
 166, 171, 174, 175, 177, 179  
 객주 客主 52, 162, 163, 169, 171, 174  
 ~176, 178, 179, 186, 208, 209, 273, 369,  
 370, 374  
 객주두목 客主頭目 177  
 객주상회소 客主商會所 174  
 객주조합 客主組合 186, 273  
 거간 居間 52, 96, 175  
 거괴 巨魁 403  
 거납 拒納 255  
 거문도점령사건 巨文島占領事件 54,  
 70, 71, 75  
 검세관 檢稅官 220  
 검찰 檢察 395  
 결미 結米 360  
 결부제 結負制 277  
 결진 結錢 278, 360  
 결환 結還 276  
 경강선 京江船 173  
 경리사 經理使 102  
 경리청 經理廳 102, 442, 443, 459, 460,  
 461, 470, 472  
 경성농상회사장정 京城農桑會社章程  
 252  
 《경국대전》 《經國大典》 223, 231  
 《경세유표》 《經世遺表》 414, 415  
 경친왕 慶親王 80  
 경통 敬通 288  
 〈개미절목〉 〈癸未節目〉 232  
 고무라 준타로오 小村壽太郎 59  
 고문대족 高門大族 241

- 고부민란 古阜民亂 105, 280, 303, 309, 310, 312  
 고재당 高在堂 447  
 고종 高宗 13, 16, 24, 27~32, 41, 60, 85, 86~89, 92, 94, 99~102, 105, 106, 108~116, 119, 122, 125, 126, 128, 132, 133, 150, 153, 181, 195, 234, 301, 347, 349, 352, 359, 386, 401  
 고전 庫錢 362  
 고채 庫債 362  
 근도 近藤眞鋤 207  
 공명호조 空名護照 35, 38, 167  
 공사장 公事長 395  
 공작사 工作司 92, 93, 99, 123  
 공주의송소 公州議送所 286  
 공주전투 公州戰鬪 466, 469, 471, 474, 480, 485  
 공친왕 恭親王 13, 17  
 관동대접주 關東大接主 440  
 관문회곡 官門會哭 280  
 관민상화 官民相和 451, 456, 474, 482  
 관허농상회사장정 官許農桑會社章程 252  
 광대호 廣大號 35  
 광무국 鑛務局 64, 95, 99, 130, 175  
 광성회사 廣成會社 178, 179  
 광양란 光陽亂 281  
 광제륜 廣濟輪 39  
 광혜원 廣惠院 122  
 광화문복소 光化門伏訴 291, 295~297  
 괴흥회사 槐興會社 178  
 교사 教師 395  
 교수 教授 395  
 교안 教案 433  
 교임 校任 366  
 교장 教場 395  
 교정 教政 395  
 교정청 校正廳 94, 409  
 교하농상회사절목 交河農桑會社節目 252  
 교환국 交換局 98  
 구무소 區務所 148  
 구문 口文 174~177  
 구상조 具相祖 472  
 구일세법 九一稅法 415  
 구향 舊鄉 242  
 국내전보규칙 國內電報規則 123  
 국립의학교 國立醫學校 122  
 국문자모호마타법 國文字母號碼打法 123  
 국태공 國太公 340, 372, 452  
 군국기무처 軍國機務處 61, 94, 423, 427  
 군무사 軍務司 92  
 군역전 軍役田 276  
 군전 軍錢 278  
 군정 軍政 395  
 군총제 軍摠制 275  
 궁방윤회결 宮房輪廻結 359  
 궁을 弓乙 333  
 《권농절목》 《勸農節目》 264  
 권명호 權明浩 218  
 권재형 權在衡 234  
 권평국 權平局 177  
 규찰 糾察 395  
 균전론 均田論 249  
 균전사 均田使 311, 359  
 균전관 均田官 100, 354, 355  
 균평소 均平所 177  
 균평회사 均平會社 176  
 균흥상회사 均興商會社 175  
 그레삼 Walter Q. Gresham 66, 67, 69  
 그레이트하우스 Clarence R. Greathouse 64, 110, 125, 126, 131  
 금구접 金溝接 403  
 금성동 錦成東 35  
 기어즈 Giers 74, 75, 77, 78  
 기포 起包 384

기포 起布 395  
 기포 騎砲 395  
 기포령 起包令 421, 441, 442, 446, 457  
 「길림조선상민수시무역장정」 「吉林朝鮮商民隨時貿易章程」 33  
 길모어 G. W. Gilmore 65, 127  
 김가진 金嘉鎭 22, 23, 61, 108, 110, 215, 234, 412  
 김개남 金開(介)南 309, 321, 326, 328, 389, 390, 393, 396, 401~404, 408, 414, 428, 430, 431, 449, 450~452, 454, 467, 470, 471, 474, 479, 484~486  
 김규석 金奎錫 447  
 김규석포 金奎錫包 447  
 김근환 金根煥 217  
 김기범 金箕範 321, 389  
 김기석 金箕錫 95  
 김덕명 金德明 300, 321, 389, 450, 474  
 김덕명포 金德明包 300  
 김명규 金明圭 116  
 김문행 金文行 481  
 김문현 金文鉉 105, 301, 302, 319, 321, 333, 346, 397  
 김벽완 金碧完 402  
 김병시 金炳始 58, 347  
 김보일 金甫一 413  
 김봉균 金鳳均 302  
 김봉집 金鳳集 302  
 김사일 金士逸 403  
 김사철 金思轍 59, 253  
 김석운 金錫允 454  
 김선근 金善根 192  
 김성규 金星圭 415  
 김성기 金成基 209  
 김약제 金若濟 413  
 김여옥 金汝玉 209  
 김여중 金汝中 454  
 김연국 金演局 293

김영동 金永東 454  
 김영수 金永壽 101  
 김옥균 金玉均 58, 85  
 김윤식 金允植 20, 36, 38, 55, 85~88, 110, 117~119, 133, 302, 332, 383  
 김인배 金仁培 449  
 김재용 金在容 107  
 김재현 金在顯 434  
 김종한 金宗漢 60  
 김창석 金昌錫 310, 311  
 김창현 金彰鉉 101  
 김천상회 金泉商會 178  
 김철규 金澈圭 400  
 김학우 金鶴羽 108, 234  
 김학진 金鶴鎭 346  
 김홍집 金弘集 22, 23, 55, 61, 85, 86, 133, 140, 141, 412  
 김효대 金孝大 224

[L]

나카야마 中山庄吉 216  
 남계천 南啓天 285  
 남로전선 南路電線 43, 44, 123, 124, 131  
 남영병 南營兵 429, 432  
 남원대회 南原大會 393  
 남원접 南原接 403  
 《남유수록》 《南遊隨錄》 315  
 남응삼 南應三 404, 484  
 남접 南接 304, 315, 323, 326, 332, 427, 437~440, 442, 456, 457, 467  
 남접농민군 南接農民軍 425, 427, 430~433, 437, 441, 447  
 남접도소 南接都所 315, 321, 323, 332  
 남진원 南眞元 413  
 남학당 南學黨 216  
 남미허통 納米許通 232  
 남속수직 納粟授職 240  
 남속품관 納粟品官 240  
 내노비 內奴婢 222, 232

- 내무부 內務府 88, 89~111, 114~116, 119, 120, 123, 124, 126, 130, 154  
 내무부 분사장정 內務府 分司章程 92  
 〈내무부 신설절목〉 〈內務府 新設節目〉 88  
 내시노비 內寺奴婢 222, 225, 230, 231  
 내성리상회 乃成里商會 178  
 〈내정개혁방안강령〉 〈內政改革方案綱領〉 94  
 내지객주 內地客主 171, 174, 179  
 내지통상권 內地通商權 16, 142, 145, 270~272  
 내지통상 內地通商 34, 164, 165, 167~170, 174  
 노비제폐지운동 奴婢制廢止運動 231  
 노양처소생종모역법 奴良妻所生從母役法 223, 230  
 노직 老職 240  
 농과규칙 農課規則 251  
 농과장 農課長 251  
 《농담》 《農談》 253  
 농무규칙 農務規則 251  
 농무목축시험장 農務牧畜試驗場 119  
 농무사 農務司 92  
 농무학당 農務學堂 120, 253  
 농상규칙 農桑規則 251  
 《농정신편》 《農政新編》 253  
 《농정촬요》 《農政撮要》 253  
 닌스테드 F. H. Nienstead 127, 129
- [ㄷ]
- 다께조에 竹添進一郎 19  
 다이 William M. Dye 62, 127~129  
 담문기 畚文記 413  
 당오전 當五錢 97, 98, 138, 152, 274  
 당일전 當一錢 274  
 대고 大考 120  
 대구속신 代口贖身 223  
 대도소 大都所 323, 385, 431, 435, 442, 454, 466  
 대동상회 大同商會 185, 191  
 대안상회 大安商會 178  
 대원군 大院君 13, 15, 16, 20, 22, 24, 55, 61, 87, 94, 108, 109, 146, 278, 281, 339, 360, 371, 372, 375, 414, 423, 424, 427, 450~453  
 대의소 大義所 385  
 《대전통편》 《大典通編》 223  
 대접 大接 384  
 대포 大包 384  
 대흥상회 大興商會 178  
 던 Edwin. Dun 67  
 데니 O. N. Denny 21, 25, 28, 32, 44, 101, 110, 125  
 데이비스 Robert H. Davis 113  
 데이톤 J. H. Dayton 66  
 덴비 C. Denby 25, 67, 111  
 도가 都賈 369  
 도개혁과 都賈革罷 369  
 도감관 都監官 97  
 도강장 都講長 433  
 도결제 都結制 276, 277, 278, 280  
 도고잠상 都賈潛商 193  
 도변수 都邊首 97  
 도성문세 都城門稅 363  
 도소 都所 385, 393, 457  
 도순무사 都巡撫使 458  
 도약장 都約長 434  
 도인감사 道人監司 397  
 도인 道人 425  
 도장 導掌 310  
 도접 都接 395  
 도접주 都接主 433  
 도지제 賭地制 260~263  
 도티 S. A. Doty 122  
 도회 都會 426  
 《동경대전》 《東經大全》 284, 433  
 동계사 同契社 175

동도대장 東徒大將 326, 329, 333  
 동로군 東路軍 444  
 동몽 童蒙 384, 404  
 동문학 同文學 92, 131  
 동순태 同順泰 31, 35, 39, 40, 166  
 동심의맹 同心義盟 333  
 동포진 洞布錢 278, 360  
 동포제 洞布制 276  
 동학 東學 66, 281, 282~284, 287~  
 293, 295~298, 301, 312, 315, 320, 323, 325  
 ~327, 343, 371, 406, 421, 424, 425, 427,  
 431, 443, 479, 484  
 동학군통문 東學軍通文 353  
 동향상회 東港商會 175  
 두모포 豆毛浦 140  
 두세 斗稅 177  
 디드리히트 C. Diedrich 130  
 딘스모어 H. A. Dinsmore 25, 64, 65,  
 111, 126

[ㄹ]

라디겐스키 Ladygenskii 72  
 라셀레스 F. Lascelles 78  
 러일전쟁 露日戰爭 220, 266  
 레밍턴총 481  
 록힐 Rockhill 65  
 르젠드르 Charles W. LeGendre 29,  
 30, 32, 64, 101, 110, 125, 126, 154  
 리 John G. Lee 62, 127  
 라이트 C. Riedt 130

[ㄴ]

마건상 馬建常 115  
 마건충 馬建忠 15  
 <만석동회선령> <萬石洞廻船令> 184  
 만석보 萬石湫 311  
 맹영재 孟永在 444  
 메릴 H. F. Merrill 21, 40, 41, 126, 153

맥케이 William McKay 131  
 면리집강 面里執綱 385  
 면임 面任 366  
 명의 名義 411  
 모록 冒錄 240  
 모리 森有禮 13  
 모속 冒屬 240  
 모오간 F. A. Morgan 42, 126  
 모오스-타운센드상회 Morse and Town-  
 send & Co. 172  
 모칭 冒稱 240  
 모칭유학 冒稱幼學 239  
 목승석 睦承錫 107  
 뮐렌도르프 Möllendorff 17, 19, 20,  
 21, 40, 153  
 무관세무역 無關稅貿易 39, 446, 137  
 ~139, 141, 148, 153  
 무남영 武南營 333  
 무로타 室田義文 195, 207  
 무장기포 茂長起包 314, 323, 326~  
 329, 337, 347, 350, 455  
 무즈 무네미츠 陸奧宗光 56, 77, 461  
 문계팔 文季八 454  
 문괴무선 文槐武宣 233  
 물침표 勿侵標 352, 380  
 뮐렌스테스 H. J. Muhlensteth 131  
 미국무역상사 American Trading Co.  
 173  
 미나미 南小四郎 462  
 《미속습유》 《美俗拾遺》 114  
 민공식 閔肯植 87  
 민병석 閔丙奭 87, 98, 121  
 민보군 民保軍 429, 439~441, 443~  
 445, 447, 455, 465, 469, 478, 485  
 민비 閔妃 22, 23, 87, 88, 108  
 민비일파 閔妃一派 20, 22  
 민세호 閔世鎬 87  
 민씨척족 閔氏戚族 85~88, 94, 95,  
 100, 108, 119, 121, 133  
 민영달 閔泳達 121

민영승 閔泳昇 346  
 민영위 閔泳緯 87  
 민영익 閔泳翊 16, 23, 25, 29, 85, 87, 127  
 민영준 閔泳駿 24, 58, 102, 106, 110  
 민영환 閔泳煥 87  
 민응식 閔應植 121  
 민종렬 閔鍾烈 400  
 민종묵 閔種默 56, 85, 87, 121  
 민포 民砲 404

[바]

박광호 朴光浩 293  
 박동진 朴東鎭 452  
 박림사 博林社 178  
 박문국 博文局 117~119  
 박봉양 朴鳳陽 404  
 박상길 朴尙吉 472  
 박영효 朴泳孝 85, 250  
 박용구 朴容九 447  
 박용원 朴用元 216  
 박원명 朴源明 309, 318, 319  
 박정양 朴定陽 24, 26, 28, 61, 111  
 박제순 朴齊純 26, 115, 212, 400, 468  
 박희인 朴熙寅 478  
 반노스키 A. Vannosky 81  
 반원운동 反袁運動 22  
 방갑 房甲 216  
 배재학당 培材學堂 122, 127  
 백지징세 白地徵稅 359  
 번 H. E. Bourne 127  
 법소 法所 433, 438, 457  
 법헌 法軒 290  
 벙커 D. Z. Bunker 65, 127  
 베버 E. C. Baber 26  
 베이야드 T. F. Bayard 111  
 베텔 F. Vetel 74  
 변석운 邊錫運 37  
 별검 別檢 175

별기군 別技軍 16  
 별무사 別武士 223  
 별유 別儒 242  
 별임 別任 438  
 별포위 別砲衛 103  
 <병선불준수해관장정> <兵船不遵守海關章程> 38  
 보단 報單 175  
 보빙사 報聘使 119, 127  
 보성접 寶城接 403  
 보충대 補充隊 222  
 <본교력사> <本敎歷史> 292  
 봉소도소 奉疎都所 293  
 부강장 副講長 433  
 부교사 富敎司 92  
 <부산구설해저전선조약> <釜山口設海底電線條約> 123  
 부산상회소 釜山商會所 175  
 부약장 副約長 434  
 부접주 副接主 433  
 부정 副正 251  
 북로전선 北路電線 44, 124  
 북접농민군 北接農民軍 429, 431, 442, ~444, 446, 447  
 북접 北接 323, 427, 438, 439, 441, 442, 455, 457, 467~470, 485  
 북접도주 北接道主 290  
 분전수세 分錢收稅 369  
 브라운 J. McLeavy Brown 42, 127  
 비총제 比摠制 275

[사]

사격 沙格 209  
 시노비 寺奴婢 222  
 사대명의 四大名義 330  
 사발통문 沙鉢通文 303, 312~316, 318, 321, 322, 326  
 사상도고 私商都賈 150  
 사수 社首 361

- 사와다 澤田總太郎 207  
 사유도내난민문 四諭道內亂民文 388  
 사접 私接 384  
 사장 社倉 361  
 사헌국 司憲局 91  
 삼단 三壇 233  
 삼정개혁론 三政改革論 250  
 삼정조 三井組 162  
 삼칠주문 三七呪文 333  
 상공대접주 尙公大接主 435  
 상권수호운동 商權守護運動 50, 53  
 상리국 商理局 95, 186  
 상법회사 商法會社 175  
 《상감찰요》 《桑蠶撮要》 253  
 상회사 商會社 52, 172, 174, 176~179, 186  
 생금건 生金巾(canequin) 152  
 서광범 徐光範 85  
 서기 書記 404  
 서로군 西路軍 443  
 서로전선 西路電線 43, 123  
 서병학 徐丙鶴 285~287, 293, 296, 299, 303  
 서병학 徐丙學 450  
 서병호 徐丙浩 176  
 서상교 徐相喬 57  
 서상우 徐相雨 110  
 서상집 徐相漬 174  
 서상철 徐相徹 475  
 서성태 瑞盛泰 166  
 서인주 徐仁周 285, 287, 296  
 서장옥 徐章玉 302, 441, 442, 456, 457  
 서태후 西太后 80  
 석기군 席旗軍 317  
 선륙수객주 船陸首客主 176  
 선상회사 船商會社 178  
 섭집규 聶緝楛 57  
 성기운 成岐運 98, 115  
 성찰 省察 384, 395, 404  
 성하영 成夏泳 443, 458~460, 470, 472  
 세창양행 世昌洋行(H. C. E. Meyer & Co.) 30, 99, 172, 173  
 소금조 小錦組 162  
 소모사 召募使 444  
 소문평족 素門平族 241  
 소접 小接 394  
 소포 小包 384  
 속인 俗人 425  
 손병희 孫秉熙 293, 299, 447, 468, 485  
 손여옥 孫如玉 454  
 손인택 孫仁澤 436  
 손천민 孫天民 286, 289, 293, 440  
 손해중 孫海中 302  
 손화중 孫和(化)中 309, 321, 326, 328, 389, 390, 402, 403, 408, 428, 430, 450, 454, 466, 474, 478, 486  
 《속대전》 《續大典》 223  
 솔거노비 率居奴婢 228, 230, 231  
 송일두 宋日斗 454  
 송전방화 松田放火 280  
 송희옥 宋熹玉 450, 452, 454  
 수문사 修文司 120  
 수분법 水糞法 252  
 순변사 巡邊使 106, 370, 380, 384  
 순신창상회 順信昌商會 173  
 순신창회사 順信昌會社 178  
 웨니케 J. F. Schaenicke 42, 96, 126  
 스키무라 후카시 杉村 藩 58  
 스키야마 테이스케 梶山鼎介 56  
 스나이더총 481  
 스크트 St. John T. Scott 62, 130  
 스크랜튼 Mary F. Scranton 121  
 시라이시 白石由太郎 216  
 시라키 白木誠太郎 459  
 시마무라 嶋村久 193  
 〈시사지무십관〉 〈時事至務十款〉 109  
 시전상인 市廛商人 179  
 《시천교력사》 《侍天教歷史》 302  
 시카고 만국 박람회 The Chicago World

Fair 65  
 〈시험장각종목록〉 〈試驗場各種目錄〉  
 119  
 신건친군영 新建親軍營 16  
 신건친군영제 新建親軍營制 102  
 신복상회사 新福商會社 178  
 신부 信符 343  
 신분모칭 身分冒稱 230  
 신사과 辛司果 285  
 신사 神師 296  
 신사유람단 紳士遊覽團 140  
 신식화폐발행장정 新式貨幣發行章程  
 98  
 신식화폐조례 新式貨幣條例 98  
 신옥년 辛玉年 209  
 신재련 辛在蓮 441, 447  
 신재련포 辛在蓮包 442  
 신정희 申正熙 60, 61, 458  
 신창상회 信昌商會 178  
 신창희 申昌熙 472  
 신초군 新抄軍 103  
 신태휴 申泰休 99  
 신향 新鄉 242, 279  
 심상학 沈相學 25, 111  
 심순택 沈舜澤 23, 25, 85  
 12개조 기율 12個條 紀律 331  
 쌍성태 雙盛泰 39, 166  
 씨일 John B. Sill 60, 67

[ㅇ]

아류양반 亞流兩班 234  
 아오키 수조 青木周藏 56, 209  
 아펜젤러 H. G. Appenzeller 121  
 안경수 安剛壽 98, 130, 234  
 안무영 按撫營 103  
 안중수 安宗洙 253  
 알렌 Horace N. Allen 25, 28, 62, 65  
 ~67, 112~115, 122, 130, 153  
 알적 暹羅 187

야마가타 山縣有朋 75  
 야스오카 安岡德平 209  
 양하일 梁河一 403  
 양호도순무영 兩湖都巡撫營 443  
 양호선무사 兩湖宣撫使 105  
 양호순무영 兩湖巡撫營 458  
 양호순변사 兩湖巡邊使 106  
 양호초토사 兩湖招討使 105  
 어염세 魚鹽稅 362  
 어윤중 魚允中 15, 55, 85~88, 105, 119,  
 299, 303  
 언더우드 Horace G. Underwood 122  
 얼 Edwin Uhl 67  
 엄세영 嚴世永 392  
 엘러즈 Annie J. Ellers 122  
 여각 旅閣 52, 273, 369, 370  
 여산회사 汝產會社 178  
 여서창 黎庶昌 29  
 역가미 役價米 367  
 연납 衍納 255  
 연로책 聯露策 19, 20, 22, 23  
 연역 烟役 278, 363  
 연호잡역 烟戶雜役 363  
 엄지초 葉志超 59  
 영사재판권 領事裁判權 33, 34, 36,  
 139, 142, 143, 145, 162  
 영신상회 永信商會 178  
 〈영약삼단〉 〈另約三端〉 112~114  
 영업세제도 營業稅制度 176  
 영지 令紙 385  
 영직 影職 240  
 영학당사건 英學黨事件 219  
 영해민란 寧海民亂 285  
 오경석 吳慶錫 233  
 오봉룡 吳鳳龍 410  
 오시마 요시마사 大島義昌 59  
 오시영 吳時泳 329  
 오오노 大野五平 207  
 오오미와 초오베 大三輪長兵衛 57  
 오이시 마사미 大石正巳 56, 65

- 오일상 吳一相 447  
 오장경 吳長慶 15, 16, 17, 18  
 오조유 吳兆有 15, 18  
 오준영 吳俊泳 56  
 오창성 吳昌成 472  
 오크너 Nicolas R O'conor 76, 77, 79  
 오쿠마 시게노부 大隈重信 55  
 오토리 케이스케 大鳥圭介 58  
 《오하기문》 《梧下記聞》 315, 321, 322, 336, 342, 348, 407  
 은건개 화파 穩健開化派 86, 118, 119  
 응동수 翁同壽 80  
 와다 엔지로 和田延次郎 57  
 와환 臥還 278, 361  
 완영도회소 完營道會所 290  
 왕봉조 汪鳳藻 59  
 외거노비 外居奴婢 228, 230, 231  
 외국인무국지폐 外國人買穀之弊 208  
 《요역절목》 《徭役節目》 405  
 《용담유사》 《龍潭遺詞》 284  
 용호영 龍虎營 103  
 용호회사 蓉湖會社 178  
 우금치전투 牛禁峙戰鬪 444, 472, 484  
 우정국 郵征局 17  
 우정사 郵程司 92  
 우편국 郵便局 42  
 운양호사건 雲揚號事件 13, 33  
 울릉도삼림채벌권 鬱陵島森林採伐權 173  
 「원대인」 「袁大人」 32  
 원산상회소 元山商會所 174, 208  
 원산선 元山線 44  
 원세개 소환운동 袁世凱召還運動 110, 115  
 원세개 袁世凱 15~32, 34~45, 47, 50, 53, 57~61, 65, 73, 106, 108~111, 113~117, 126, 132, 167, 170, 179, 181, 351  
 원유 元儒 242  
 원정열록추도자 原情列錄追到者 353  
 원정 原情 353  
 원평취당 院坪聚黨 297  
 월삼 John Walsham 71  
 월송만호 越松萬戶 107  
 웨베르 K. I. Waeber 22, 58, 72, 73, 76, 79, 109  
 위보 僞譜 241  
 위테 S. Y Witte 75, 76, 81  
 유계춘 柳繼春 280  
 유공만 劉公萬 481  
 유기환 俞箕煥 57  
 유길준 俞吉濬 61, 250  
 유병직 劉秉直 336  
 유서분 劉瑞芬 23  
 유수영 留守營 103  
 유수원 柳壽垣 241  
 〈유언사조〉 〈諭言四條〉 109  
 유역하층민 有役下層民 239  
 유학 幼學 234, 239  
 유학호 幼學戶 238  
 유향분기 儒鄉分岐 241  
 유흥기 劉鴻基 233  
 유회소 儒會所 444  
 〈육영공원 설학절목〉 〈育英公院 設學 節目〉 120  
 육영공원 育英公院 119  
 윤규섭 尹奎燮 111  
 윤락호 尹樂浩 414  
 윤상구 尹相耆 107  
 윤중억 尹鐘億 414  
 윤주신 尹柱莘 414  
 윤치호 尹致昊 234  
 윤태준 尹泰駿 16  
 은대정 殷大靜 338  
 은면진 銀麵塵 181  
 은진의병소 恩津義兵所 476  
 의계 義契 264  
 의사원 議事員 405  
 의신회사 義信會社 178  
 의주전선조약 義州電線條約 27, 42  
 이건영 李建英 452

- 이경방 李經芳 57  
이경직 李耕植 289, 290  
이경호 李璟鎬 333  
이곤양 李昆陽 336  
이관영 李觀榮 434, 435  
이규태 李圭泰 394, 402, 458, 460, 470  
이그나티에프 N. P. Ignatiev 71  
이근호 李根濤 99  
이기 李沂 250  
이노우에 가오루 井上馨 19, 462, 463, 464  
이덕익 李德益 209  
이도재 李道宰 486  
이돈승 李敦昇 336  
이두황 李斗璜 443, 458  
이-라디켄스키협정 李-Ladygenskii協定 70  
이리타 入田八郎 209  
이무 移貿 276  
이문영 李文永 337  
이민희 李民熙 104  
이병수 李炳壽 384  
이병휘 李秉輝 216  
이복영 李復榮 315, 410  
이사문 李士文 403  
이상덕 李相德 472  
이상재 李商在 112  
이상준 李商準 434  
이성렬 李聖烈 386, 403  
이승수 李承壽 69  
이승우 李承宇 465  
이완용 李完用 111, 112, 114  
이용구 李容九 447  
이용구포 李容九包 447  
이용규 李容珪 397  
이용식 李容植 195  
이용익 李容翊 99  
이용태 李容泰 105, 319, 320, 323, 326, 327, 371  
이우규 李祐珪 253  
이운사 利運社 100, 312  
이운호 利運號 100  
이원우 李源佑 400  
이원팔 李元八 440  
이원회 李元會 104, 106, 353, 380, 381, 384  
이유상 李裕尙 477  
이유태 李裕泰 439  
이윤용 李允用 234  
이장회 李長會 442  
이재면 李載冕 15  
이조연 李祖淵 16, 234  
이종건 李鐘健 95  
이종성 李宗城 235  
이종원 李宗遠 253  
이종태 李宗泰 454  
이종하 李鍾夏 112  
이종훈 李鍾勳 447  
이종훈포 李鍾勳包 447  
이주호 李周鎬 345  
이중익 李重益 298  
이중하 李重夏 107  
이중환 李重煥 241  
이지치 고오스케 伊地知幸介 58  
이채연 李采淵 112  
이철화 李喆和 334  
이토 히로부미 伊藤博文 19  
이튼 J. Eaton 127  
이필제란 李弼濟亂 281  
이필제 李弼濟 285  
이하영 李夏榮 112, 114, 130  
이학승 李學承 341  
이한 李翰 346  
이헌용 李憲用 112  
이헌직 李憲植 104  
이호준 李鎬俊 206  
이화양행 怡和洋行(Messrs, Jardine, Matheson & Co.) 29, 99, 172  
이화학당 梨花學堂 122  
이환 里還 276

이회원 李會源 444  
 임규호 任圭鎬 434, 435  
 임농탈경 臨農奪耕 264  
 임피 任賂 366  
 임용현 林鏞炫 219  
 임채 任債 366

[ㄷ]

작부제 作夫制 277  
 작청 作廳 405  
 잠상공사 蠶桑公司 251  
 《잠상집요》 《蠶桑輯要》 253  
 잠수지폐 潛輸之弊 190  
 잡직서용 雜職叙用 232  
 잡페 E. Zappe 26  
 장교사 掌交司 92, 110  
 장극원 張克元 437  
 장두재 張斗在 450  
 장리 長利 255  
 장박 張博 234  
 장성전투 長城戰鬥 105, 332, 341, 343, 346, 474  
 장용진 張容鎭 472  
 장위영 壯衛營 102, 105, 337, 442, 443, 459, 460, 461  
 장음환 張蔭桓 113  
 장청일 張淸一 410  
 장청 將廳 405  
 재유도내난민문 再諭道內亂民文 387  
 재인접 才人接 402  
 재인포 才人布 402  
 〈제조선국일본인민통상장정〉 〈在朝鮮國日本人民通商章程〉 143, 194  
 제프리 R. Jaffray 120  
 지리 邸吏 367  
 적간론 摘姦論 20  
 적리 籍吏 240  
 전가 全哥 302  
 전라도유생등원정 全羅道儒生等原情

353  
 전명숙 全明淑 390  
 전보국 電報局 27, 119, 123, 124, 371  
 〈전보장정〉 〈電報章程〉 123  
 전보총국 電報總局 131  
 〈전봉준등재상서〉 〈全琫準等再上書〉 391  
 전봉준 全琫準 280, 281, 302~305, 309, 312, 314~323, 325, 326, 328, 330, 332, 333, 335, 340, 345, 346, 349, 350, 352, 365, 373, 379~383, 389, 393, 395~408, 413~416, 427~432, 441, 447, 449~457, 464, 466~471, 474, 477~486  
 《전세도록》 《田稅都錄》 405  
 전양묵 全良默 108  
 전우총국 電郵總局 131  
 전운국 轉運局 99  
 전운사 轉運使 207  
 전운어사 轉運御史 100  
 전운영 轉運營 317, 321, 322, 334, 338, 339, 363, 364, 404  
 전운위원 轉運委員 100  
 전주화약 全州和約 106, 309, 349, 350, 352, 353, 379, 381, 386, 406  
 전패작변 殿牌作變 280  
 전헌사 典憲司 91, 92  
 전환국 典園局 41, 95, 97, 130, 173  
 전환 錢還 276  
 점진개화파 漸進開化派 133  
 접괴 接魁 384  
 접사 接司 384  
 접사 接師 395  
 접소 接所 436  
 접수 接主 384, 394  
 정경수 鄭璟洙 447  
 정경수포 鄭璟洙包 447  
 정경원 鄭敬源 114, 436, 456  
 정낙용 鄭洛鎔 95  
 정동파 貞洞派 115  
 정병하 鄭秉夏 253

- 정사진 鄭士辰 413  
 정석모 鄭碩謨 404  
 정소운동 呈訴運動 280, 282, 314  
 정약용 丁若鏞 225  
 정여창 丁汝昌 15  
 정영방 鄭永邦 58  
 〈정유절목〉 〈丁酉節目〉 232  
 정읍경동학회생등장 井邑境東學會生等  
 狀 381  
 정인덕 鄭寅德 452  
 정인량 鄭寅亮 434  
 정전론 井田論 249  
 정전제 井田制 414  
 정준시 鄭俊時 446  
 정현석 鄭顯奭 193  
 제18은행 第18銀行 154  
 제생회사 濟生會社 178  
 제53은행 第53銀行 154  
 제일은행 第一銀行 154  
 제주도 방곡사건 濟州道 防穀事件  
 215  
 제통회사 濟通會社 178  
 제흥사 濟興社 178  
 쟈부시 Zembush 60  
 〈조가회통〉 〈朝家回通〉 292  
 조두순 趙斗淳 188  
 조러밀약설 朝露密約說 22, 24, 38, 86,  
 108, 109, 125, 130  
 「조미수호조규」 「朝美修好條規」 141,  
 152  
 조병갑 趙秉甲 105,  
 조병식 趙秉式 56, 73, 190, 299  
 조병완 曹秉完 472  
 조병직 趙秉稹 28, 56, 57, 59  
 조병호 趙秉鎬 105  
 〈조선국의경제항일본인민무역규칙〉 〈朝  
 鮮國議定諸港日本人民貿易規則〉 137  
 〈조선대국론〉 〈朝鮮大局論〉 109  
 〈조선북로전선조약〉 〈朝鮮北路電線條  
 約〉 124  
 〈조선전선조약〉 〈朝鮮電線條約〉 123  
 「조선총리교섭통상사의」 「朝鮮總理交  
 涉通商事宜」 21  
 조성길 趙成吉 439  
 조세 금납화 租稅金納化 249  
 조신희 趙臣熙 26, 115  
 조양호 朝陽號 99  
 「조영수호조규」 「朝英修好條規」 144  
 조인승 曹寅承 94  
 조일공수동맹 朝日攻守同盟 423  
 「조일수호조규속약」 「朝日修好條規續  
 約」 145, 162  
 조일수호조규 朝日修好條規 137, 138,  
 243  
 조재벽 趙在璧 447  
 조존두 趙存斗 22, 23, 108  
 조준구 趙駿九 454  
 조창식 趙昌植 107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朝清商民水  
 陸貿易章程」 33, 45, 61, 115, 142, 152  
 조정윤선왕래합약장정 朝淸輪船往來合  
 約章程 46  
 조필영 趙弼永 310, 311  
 종량로 從良路 222  
 종모법 從母法 224  
 종목국 種牧局 119  
 종속노비 從屬奴婢 228  
 좌반전 佐飯塵 181  
 주문희 周文喜 216  
 「주차조선통리교섭통상사의」 「駐節朝  
 鮮統理交涉通商事宜」 55  
 주찰 周察 395  
 「중강·회령통상장정」 「中江·會寧通  
 商章程」 33  
 중로군 中路軍 443  
 《중맥설》 《重麥說》 253  
 중서 中庶 233  
 《증보감상집요》 《增補蠶桑輯要》 253  
 증직 贈職 240  
 지노비에프 I. A. Zinovieff 71

지리사 地理司 92  
 지식영 池錫永 253  
 지운영 池運永 66  
 지위 知委 438  
 지도선 地討船 173  
 직제사 職制司 92  
 직조국 織造局 251  
 진결가세 陳結加稅 278  
 진고 賑庫 361  
 진부결 陳浮結 359  
 진수당 陳樹棠 20, 21, 33, 34, 39  
 진어영 鎭禦營 97  
 진주민란 晉州民亂 280  
 진회사 溱會社 178  
 집강소 執綱所 309, 375, 377, 379, 382,  
 384~389, 391~395, 397~412, 414~417,  
 421, 423, 424, 426, 433, 436, 449, 450, 476,  
 478, 482, 483  
 집사 執事 404

[天]

차관도입정책 借款導入政策 101, 102  
 창룡호 蒼龍號 173  
 창의격문 倡義檄文 321  
 창의소 倡義所 457  
 채구석 蔡龜錫 216  
 책문개시 柵門開市 45, 146  
 천우협 天佑俠 392, 427  
 천인접 賤人接 402  
 천진조약 天津條約 19, 21, 24, 59, 80,  
 128, 422  
 천시동맹파업 撤市同盟罷業 181  
 청일전쟁 淸日戰爭 18, 21, 31, 34, 42,  
 46, 50, 106, 143, 154, 210, 211, 220, 245,  
 248, 412, 423, 431, 448, 449, 451, 454, 456,  
 461, 464, 474  
 청·러친협약 淸·露天津協約 55  
 청병차병안 淸兵借兵案 347  
 청부주전사업 請負籌錢事業 97

청산대회 靑山大會 467  
 청의대접주 淸義大接主 440  
 청주전투 淸州戰鬪 479  
 《청한론》 《淸韓論》 63, 125  
 초상국윤선왕래장정 招商局輪船往來章  
 程 39  
 초상국 招商局 38, 39, 40, 46, 64, 99,  
 192  
 총대 總代 304  
 총어영 總禦營 102  
 최경석 崔景錫 119, 253  
 최경선 崔景善 321, 389, 485, 486  
 최경선 崔卿宣 454  
 최대봉 崔大奉 454  
 최맹순 崔孟淳 439  
 최시형 崔時亨 284~292, 296, 323, 421,  
 437, 431~442, 447, 485  
 최영년 崔永年 302, 397  
 최제우 崔濟愚 66, 283, 284, 286, 287,  
 289, 431  
 최치운 崔致雲 208  
 춘천유수영 春川留守營 104  
 충경대도소 忠慶大都所 476  
 충경대접주 忠慶大接主 435  
 충의위 忠義衛 239  
 친군남영 親軍南營 102, 103  
 친군북영 親軍北營 103  
 친군서영 親軍西營 102  
 친군심영 親軍沁營 102  
 친기위 親騎衛 223

[ㅋ]

카네킨 canequine 182  
 카시니 A. P. Cassini 76  
 카와카미 소오로쿠 川上操六 57, 59  
 카프니스트 Count Kapnist 78  
 캐렛트 S. Kerrett 67  
 커민스 E. H. Cummins 62, 127~129  
 케아르버그 Paul De Kehrberg 59,

78  
 코르프 A. N. Korf 71  
 크라우스 F. Kraus 130  
 크르프 極老砲 481  
 크리그 E. F. Creagh 126  
 클리블랜드 Grover Cleveland 113  
 킨더 M. C. W. Kinder 75

[E]

타운선양행 陀雲仙洋行 29  
 탈경이작 奪耕移作 264  
 태평회사 太平會社 178  
 토문감계사 土們勘界使 107  
 <토비대략> <討匪大略> 301  
 토포사 討捕使 444  
 통령 統領 395, 447  
 통리군국사무아문 統理軍國事務衙門 88  
 《통리아문일기》 《統理衙門日記》 50  
 통문 通文 353  
 통수 統首 251  
 통어영 統禦營 103  
 통위영 統衛營 102  
 통제영 統制營 103  
 통찰 通察 395  
 통청 通淸 232  
 통호규칙 通戶規則 251

[F]

파블로프 A. F. Pavlov 77  
 파아크스 Harry. S. Parkes 144  
 팔로도성찰 八路都省察 436  
 팔로도집강 八路都執綱 436  
 페이니 Payne 62  
 평양전 平壤錢 274  
 폐정 14개조 弊政14個條 380  
 폐정개혁건 12개조 弊政改革件12個條 408

포덕소 布德所 438  
 포덕 布德 394  
 포목상회사 布木商會社 178  
 포사 砲士 384  
 포스터 John W. Foster 64  
 포크 George C. Foulk 110, 121  
 포흠 逋欠 366  
 푸트 Lucius H. Foote 127, 128  
 프란키트 F. R. Plunkett 54  
 프레이저 Everett Frazer 119, 125  
 프레이저회사 Everett Frazer Co. 62  
 플랑시 Collin de Plancy 28  
 피리 T. Piry 126  
 피어스 A. I. Pierce 62, 99, 130

[H]

하관조약 下關係約 70  
 하나부사 花房義質 15  
 하라이 河賴 54  
 하라 타카시 原敬 56  
 하베이 Eugene Harvey 62, 130  
 하야시 橋本彌三郎 206  
 하야시 林權助 212  
 하야시 林市郎治 208  
 하야시 타다스 林董 59, 68  
 하여장 何如璋 140  
 하트 Robert Hart 28, 40, 41, 126, 153  
 한규설 韓圭高 29, 95  
 한규직 韓圭稷 16  
 한랭사 寒冷紗 152  
 한성개간 漢城開棧 33~36, 46, 51, 53, 164, 185  
 《한성순보》 《漢城旬報》 117  
 한성전보총국 漢城電報總局 43, 123  
 한성조약 漢城條約 85  
 《한성주보》 《漢城周報》 117  
 한성철간 漢城撤棧 36  
 <한일무역규칙> <韓日貿易規則> 139  
 한진론 限田論 249

- 한전어음 韓錢於音 155  
 한품서용 限品叙用 231  
 항정도조법 恒定賭租法 415  
 해관세징수권 海關稅徵收權 153  
 〈해관세칙〉 〈海關稅則〉 194  
 해룡호 海龍號 99  
 해산회사 海産會社 179  
 해연총제영 海沿總制營 103  
 핼리팩스 T. E. Halifax 123, 131  
 행군의소 行軍義所 385  
 행간 行棧 142  
 향곡품관 鄉曲品官 241  
 향권 鄉權 241  
 향병 鄉兵 380  
 향임 鄉任 366  
 향전 鄉戰 242  
 향청 鄉廳 234  
 허드 Augustine Heard 64  
 허문숙포 許文叔包 442  
 허문숙 許文叔 441~443  
 허바드 Richard B. Hubbard 67  
 허용업 許龍業 112  
 허통 許通 232  
 헌터 Hunter 67  
 헐로드 Joseph. R. Herod 66  
 헐버트 Homer B. Hulbert 65, 120, 127  
 헤이든 Mary E. Hayden 122  
 현익호 顯益號 100  
 협호 挾戶 270  
 형세 衡稅 177  
 해상공국 惠商公局 186  
 호남유생원경서 湖南儒生原情書 371  
 호남유생원정 湖南儒生原情 353  
 호남창의대장소 湖南倡義大將所 329  
 《호부론》 《護富論》 250  
 호서선무사 湖西宣撫使 456  
 호조 護照 35, 142  
 호주대의소 湖州大義所 476  
 호포제 戶布制 360  
 홍경래의 난 洪景來의 亂 225  
 홍계훈 洪啓薰 105, 106, 339~341, 346~349, 352, 353, 380, 384  
 홍낙관 洪洛官 402  
 홍병기 洪秉箕 447  
 홍영식 洪英植 85, 133  
 홍운섭 洪運燮 443, 460, 470, 472  
 홍재희 洪在義 299  
 홍종우 洪鍾宇 57, 58, 217  
 홍콩·상해은행 香港·上海銀行(Hong Kong and Shanghai Bank) 63  
 화전국 華電局 43, 44  
 환총제 還摠制 275  
 활빈당 活貧黨 217  
 황사림 黃仕林 15  
 황준헌 黃遵憲 140  
 황토현 전투 黃土縣戰鬥 105  
 황하일 黃河一 302, 434  
 황현 黃玹 315, 326, 335, 383, 384, 387, 392, 394, 395, 397, 400, 407, 481  
 회선포 回旋砲 481  
 히트로프 Mikhail Hitrovo 77

# 집 필 자

개 요 ..... 정창렬

## I.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1. 청의 간섭 ..... 이양자
2. 조선의 대외관계 ..... 박일근

## II.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1. 통치기구의 재정비 ..... 한철호
2. 민씨척족정권의 시정 ..... 한철호
3. 독립외교의 추진 ..... 한철호
4. 개화정책의 추진과 좌절 ..... 한철호
5. 외국인 고문의 고빙 ..... 한철호

## III. 개항 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1. 개항 후의 국제무역 ..... 도면희
2. 국내적 상품유통의 변동 ..... 하원호
3. 방곡령실시의 사례와 원인 ..... 하원호
4. 사회신분제의 동요 ..... 지승중
5. 개항기 지주제와 농업경영 ..... 최원규

#### IV. 동학농민전쟁의 배경

1. 동학농민전쟁의 사회경제적 배경 ..... 고동환
2. 동학교조 신원운동 ..... 박맹수

#### V. 제1차 동학농민전쟁

1. 동학농민군의 봉기 ..... 정진상
2. 동학농민군의 격전 ..... 정진상
3. 동학농민군의 폐정개혁 요구 ..... 정진상

#### VI. 집강소의 설치와 폐정개혁

1. 집강소의 설치 ..... 정창렬
2. 집강소의 구성과 조직 ..... 정창렬
3. 집강소의 폐정개혁 ..... 정창렬

#### VII. 제2차 동학농민전쟁

1. 동학농민군의 재기 ..... 신영우
2. 반일투쟁의 전개 ..... 배항섭
3. 동학농민전쟁의 역사적 의의 ..... 정창렬

# 한 국 사

39

##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1999년 12월 20일 인쇄

1999년 12월 27일 발행

발 행 국 사 편 찬 위 원 회

427-01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6  
전화 02-500-8286

인 쇄 탐 구 당 문 화 사  
서울 용산구 한강로 1가 158  
전화 02-3785-2213

판매처 프레스센터 정부간행물 판매센터  
전화 02-734-6818

---

값 6,300 원